

A STUDY OF EFFECTS OF MINISTERS' SUPEREGO
ON THEIR CHILDEN

Keun Young Lim

September 5, 2010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A STUDY OF EFFECTS OF MINISTERS' SUPEREGO
ON THEIR CHILDREN

By

Keun Young Lim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Henderson Christian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Doctor of Christian Counseling

Keun Young Lim

September 5, 2010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임근영의 박사 학위 논문을 인준함

Approved:

Dissertation Mentor

Dr. Yang Taik Lim D. Min. Ph. D. Cand.

Approved by the Dissertation Committee :

Dissertation Committee Chairperson

Dr. Henderson Belk, Ph. D.

Second Reader

Dr. 1) Lynn W. Haines, D.R.E.

Third Reader

Dr. Paul Kim, Ph. D.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September 5, 2010

감사의 말씀

목회자 아버지의 수퍼에고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1
(사무엘을 중심으로)	Error! Bookmark not defined.
국문초록	9
1. 서론	13
가. 연구 배경	13
나. 연구 목적	14
다. 연구방법 및 내용	16
라. 문제제기	17
2. 본론	18
가. 수퍼에고(Superego)	18
(1) 일반적 연구	18
(2)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21
나. 아동기의 발달과정과 수퍼에고	23
(1)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심리성적 발달이론과 수퍼에고 ..	25
(가) 인간정신에 대한 지형학적 이론(Topographic Theory) ...	25
① 의식(Conscious)	26
② 전의식(Preconscious)	27
③ 무의식(Unconscious)	27
(나) 성격의 구조	29
① 리비도 (Libido)	29

② 원본능(Id)	31
③ 자아(Ego)	31
④ 초자아(Superego)	33
(다) 성격의 발달	34
① 구강기(The Oral Stage)	35
② 항문기(The Anal Stage)	36
③ 남근기(The Phallic Stage)	37
④ 잠복기(The latency Stage)	39
⑤ 생식기(The Genital Stage)	40
(라) 프로이트와 수퍼에고	42
(2)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 1902-1994)의 심리사회 발달이론과 수퍼에고	44
(가) 심리사회 발달이론	46
① 제 1 단계: 신뢰감 대 불신감	46
② 제 2 단계: 자율성 대 수치심 및 의심	48
③ 제 3 단계: 주도성 대 죄책감	49
④ 제 4 단계: 근면성 대 열등감	51
⑤ 제 5 단계: 자아정체감 대 정체성 혼란	52
⑥ 제 6 단계: 친밀감 대 고립감	54
⑦ 제 7 단계: 생산성 대 자기침체	55
⑧ 제 8 단계: 통합성 대 절망감	57
(나) 에릭슨과 수퍼에고	59

(3)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 Theory)	59
(가)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 1882-1960)	64
① 놀이와 환상(Phantasy)	65
② 편집-분열적 자리(Paranoid-Schizoid position)	65
③ 우울적자리(Depressive Position)	67
④ 멜라니 클라인과 수퍼에고	69
(나) 페어베언(W. W. D. Fairbairn, 1889-1964)	71
① 초기 유아적 의존 단계	73
② 과도기적인 중간 단계	73
③ 성숙한 의존 단계	74
④ 페어베언과 수퍼에고	75
(다) 위니캣(Donald W. Winnicott, 1896-1971)(대상관계이론을 통해 본 유아의 하나님 표상형성에 관한)	77
① 자기(Self)의 개념	79
② 자아(Ego)	80
③ 충분히 좋은 엄마	81
④ 의존의 3 단계	83
⑤ 위니캣과 수퍼에고	86
(라) 코헛(Heinz Kohut, 1913-1981)	86
① 자기(Self)의 개념	87
② 자기 대상(Self Object)	89
③ 전이(Transference)	90

④ 코헛과 수퍼에고	94
(4) 대상관계이론의 중요개념	98
(가) 대상	98
① 외적대상(External Object)과 내적대상(Internal Object)	98
② 부분대상(Part-Object)과 전체대상(Whole Object)	99
③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과 중간현상(Transitional phenomena)	99
(나) 자기표상과 타인표상 /대상표상과 하나님(신) 표상	101
① 자기표상(Self Representation)과 타인표상(other Representation)	101
② 대상표상과 하나님 표상(신표상)	102
(다) 대상항상성(Object Constancy)	103
(라) 안아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	105
(마) 충분히 좋은 엄마(보충해야 함)	107
다. 사무엘의 아동기와 발달과업	108
(1) 프로이트 입장에서 본 사무엘의 발달장애	111
(2) 에릭슨의 입장에서 본 사무엘의 발달장애	115
(3) 대상관계 입장에서 본 사무엘의 발달장애	119
(가) 클라인이 본 유아의 심리발달과 부모의 역할	120
(나) 페어베언이 본 유아의 심리발달과 부모의 역할	122

(다) 도날드 위니캣이 본 유아의 심리발달과 부모의 역할.....	125
(라) 코헛이 본 유아의 심리발달과 부모의 역할.....	129
라. 사무엘의 하나님 경험	132
(1) 유대인의 자녀 교육.....	133
(2) 사무엘의 탄생.....	135
(3) 사무엘의 소명과 계시(사무엘상 3:1-14)	137
(4) 사무엘의 사역.....	139
마. 사무엘의 수퍼에고가 자녀에게 미친 영향	140
(1)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이 사무엘에게 미친 영향	140
(가)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일반적 연구.....	141
(나) 엘리 제사장의 아버지 역할 부재.....	145
(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에 미친 영향	151
(2) 사무엘이 두 자녀 요엘과 아비아에게 미친 영향	161
(가) 부모 상실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164
(나) 분리 불안을 경험한 사무엘과 두 자녀와의 관계.....	169
(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174
(3) 사무엘의 내면화 그리고 대상관계, 하나님 경험	179
3. 결론	185

국문초록

사람들과의 다양한 관계를 벗어나 살아갈 수 없는 인간에게 인간관계란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란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다. 인간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들로 결국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서 관계의 틀을 결정하게 되며,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경험을 함에 있어서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가장 가깝고도 친밀한 인간관계의 모임이 가정이며 가정 안의 목회자와 목회자 자녀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으로 표현되는 가장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부모 된 목회자는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에 이바지하며 특히 자녀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사회나 교회 특히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자리매김 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가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목회자사모신문(발행인 설동욱 목사)은 2009년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가 주최한 제11회 전국목회자자녀세미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목회자 자녀들 대부분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심각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거나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자의 자녀들 10명 중

7명이 예배 생활에 별다른 은혜를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물질적으로는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많은 자녀들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

2010년 모 신문에 '안타까운 죽음' 이라는 신문의 기사를 보면 목회자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을 이해할 수 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목회를 위해 아이를 희생시키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켜줄 겁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갔었죠. 개척교회를 하면서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신경 써주지 못했어요."

"아들은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것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사람들은 목사의 자녀들도 부모처럼 경건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목사의 자녀니까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죠.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목사 자녀들도 그냥 그 나이 또래의 아이일 뿐이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봐달라고요."²

부성부재의 현실, 아버지가 존재감이 희미해져 가는 사회, 아버지의 위치가 자의든 타의든 상실되고, 가정에서 주변인이 되어가고 있다. 단지

¹ 크리스찬투데이, 2009년 3월 20일.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01174>

² LA 중앙일보 "목회의 열정, 아들에 쏟았으면..." 김 00 목사 부인 김 00 씨인터뷰 기사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995637

남편의 갑작스런 죽음. 그리고 그보다 더 그를 힘들게 했던 남편의 죽음이 아들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 김목사의 부인인 김사모는 앞으로 자신처럼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해 상담사역과 중보기도팀을 인도할 예정이다. "아픔을 아는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알잖아요.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아버지가 경제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아버지로 비취지고, 집안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현상은 바람직한 가정의 모습은 아니다.

이런 현실은 부정적인 결과로서 아버지의 위치만 흔들릴 뿐 아니라 자녀와 가정, 사회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목회자 가정은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에 목회자가 아버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결과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가장 은혜스럽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 목회자 가정에서 목회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떻게 이런 어려움과 상처가 발생하는지 불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서 늘 좋은 일만 가득할 수 없을 것이며, 문제가 다른 가정에서보다 덜 생기는 것 또한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발생하는 상처와 불행이 왜 목회자 가정에서도 생기는 것일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유교의 가부장제적인 권위의식이 자신도 모르게 잠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또한 율법적인 신앙관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앙적으로만 해석하여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녀의 성장발달 단계를 무시하여 심리적인 부담감과 어려움을 가중시킨 경우도 있으며, 목회자 부모가 교회 일로 너무 바빠서 자녀를 돌볼 겨를이 없이 방치되어 마음의 상처로 인한 반발심에서 스스로 문제가 된 경우, 또한 목회자 부모의 이율배반적인 삶의 태도로 인하여 겪게 되는 갈등 등 많은 요인들이 있다.

목회자 부모와 자녀들간에 겪게 되는 문제의 원인들은 경제적인 문제 혹은 건강의 사유보다는 심리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녀들의 문제라기 보다는, 부모에게 그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다.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로 인하여 마음에 분노가 쌓여 교회를 떠나거나,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문제의 자녀 뒤엔 문제의 **부모가 있기 마련이다**. 목회자인 부모도 부모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와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자녀들에게 자신들도 모르게 전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정신을 의식(Conscious)과 무의식(Unconscious)로 구분한 프로이트의 무의식과 수퍼에고 이론, 인생은 성장과 성숙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는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대상관계이론에서 바라본 아동기의 발달과업을 통해, 어린 시절에 경험하게 되는 초기 대상과의 발달장애가 자신의 삶과 자녀들의 삶에 끼친 영향들을 사무엘의 생애 연구를 통해 수퍼에고가 개인의 성장과 내면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 보려고 한다.

또한 본 연구는 목회자 자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자녀들의 문제의 근원을 파악하며, 화평케 하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바탕으로 목회자 부모와 자녀와의 화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자녀의 행복한 삶을 돕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1. 서론

가. 연구 배경

가정은 사회제도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이며, 하나님의 기획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는 가정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축복기관이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된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후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가 가능하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은 생령이 되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하와를 **만드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³

이 영적인 생명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다(요 4:24).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 1:28).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시 127:3). 자녀들을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 아래서 살게 하셨다. 자녀를 주심으로 부모 자녀의 관계가 형성되었다. 인간은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수평적으로는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부름을 받았을 뿐 아니라, 부모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에게는 신앙을 전수하는 전수자로 부름을 받았다.**

성서에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신앙의 가정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시고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셨다. 창 12: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³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 1:28 절).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셨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은 한분이신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삭에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과 그리고 이삭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인 야곱에게 경험하도록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했다.

이와는 다른 예로 가인과 아벨을 들 수 있다. 가인은 살인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 살인자가 되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죽인 이유는 첫째로 아담이 지은 죄⁴의 영향이 형제간의 불화와 살인으로까지 발전된 것이다. 돌로 쳐 죽이니라” 라는 말은 죽일 의도를 가지고 죽인 것이다. 둘째 이유는 부모로부터 받은 정서적인 상처가 살인사건으로까지 발전되었다고 본다.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전수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자녀의 어린 시절에 부모의 잘못된 양육 태도로 인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받는 것을 예방하며,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특히 심리적으로도 바르게 성장하게 하는 것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연구 목적

⁴ 창 3: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가정은 인간의 성장과 발달이 일어나는 최초의 장으로 인간은 가정 안에서 성장해 간다. 또한 가정은 개개인의 인격이 형성되는 장이며, 삶의 행동 방식을 배우고 인격을 형성해 가며, 부모를 통하여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며 경험하게 되는 곳이기도 하다.

한 개인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 만나는 양육환경으로서의 가정은 개인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자라나게 하며,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의 영향력 또한 절대적인 곳이다. 부모의 생각, 성품, 감정, 행동은 물론, 직접적으로 구사하는 말투, 가르침, 삶의 방식과 태도 등이 그대로 자녀의 정서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자녀의 삶의 가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과 환경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목회자의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찰스 셀은 오늘 날 교회의 성장을 위해 가정의 희생을 강조하며, 가정의 중요성을 등한시 하는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을 향해 “교회와 가정은 둘 다 하나님이 세운 제도로서 서로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가정이 교회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교회가 가정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⁵며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능력 있는 목회사역을 하는 목회자 아버지는 성공적인 목회자라는 인정은 받겠지만, 부모만의 하나님 경험과 사회적인 인정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있어 건강한 성장을 함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목회자 부모가 자신의 수피에고를 자녀들에게 강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강한 그 가정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는 가에 그 목적이 있다.

⁵ Gary R. Collins, 「가정의 충격」, 안보현, 황희철 공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77), p. 488.

다.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목회자 부모의 수피에고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이며, 수피에고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수록한 서적, 논문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님의 증으로 부름 받은 목회자의 수피에고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려고 한다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 받은 선지자였다. 사무엘의 출생은 여느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면들이 있다. 어머니 한나의 슬픔과 분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었고, 그의 결과로 얻게 된 아들이 사무엘이다. 한나는 특별히 얻은 아들이기에 특별히 키웠고, 특별히 양육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서원으로 얻은 아들이기에 **젖떼는 무렵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집에 바쳤다(삼상1: 24)**.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어려서 엘리제사장도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히 들었고, 제사장의 특별한 배려 가운데 사사로서의 삶을 시작하였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다는 자의식은 그의 생애 가운데 카리스마를 위로부터 부여 받게 되었다는 의식과, 그 의식은 그의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자의식과 그 자의식(수피에고)으로 인해 사무엘의 자녀들이 받았을 영향들을 연구하려 하며, 이론적 배경으로는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이론, 사회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이 주장한 8단계 인간발달과정, 대상관계이론에서 본 발달과정 중에서 특히 Melanie Klein, W. W. D. Fairbairn, Donald W. Winnicott, Heinz Kohut의 이론을 배경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이론들을 통해 어린 시절에 경험하게 되는

심리발달장애가 자신의 삶과 자녀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제시하려 한다.

특히 사무엘의 심리생애사(Psychobiography)⁶ 연구를 통해 사무엘의 부모와 엘리 가정의 주변상황 그리고 사무엘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 즉 수피에고가 사무엘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사무엘의 내면 세계가 그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연구해 본다. 또한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수피에고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현대 사회의 건강한 목회자상과 목회자 가정상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라. 문제제기

1) 사무엘의 하나님 경험이 사무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사무엘의 자녀들은 아버지 사무엘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특별함의 의식이 있었겠는가?

2) 사무엘의 하나님 경험이 그의 자녀인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로서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⁶ 심리생애사 연구자인 윌리엄 러닌(William M. Ruynon)은 심리생애사 연구를 정신분석, 인격심리(Personality Psychology), 역사학에 근거한 심리생애사적 연구로 구분한다. 심리생애사 연구의 특징은 개인을 움직여가는 시스템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심리적 역동과 의도에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진다. 심리생애사적 연구의 대표적인 작품은 에릭슨의 「청년루터」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실제로 루터와 마주한 인터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루터의 이미지와 이야기들로 이뤄진다. 사건이나 사실이 아닌 내면에 호르는 원인과 역동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참조. 김미강 “공지영의 심리생애사 연구를 통한 386 세대 연구”, 서울: 석사학위논문,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08. pp. 24-28. 강민수 문용린 “생애사 연구의 교육심리학적 고찰”, 한국인간발달학회, 인간발달연구, Vol. 14 No.1, 2007. 손영미, “생애사 연구법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의 삶 이해”,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2008).

3) 왜 그들은 대선지자의 아들로써, 그리고 사사로서 정당하지 못한 재판으로 아버지의 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까?

2. 본론

가. 수퍼에고(Superego)

(1) 일반적 연구

인간의 마음에 대해 연구한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몸을 네 가지 기질 즉 혈액, 흑담, 점액, 황담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였다. 사람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문제는 이런 기질들간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울증은 흑담이 지나치게 많은데서 생긴 병이며, 성격이 급변하는 것은 혈액이 너무 많은 데서, 게으름은 점액이, 초조함과 불안은 황담이 너무 많이 분비되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했다.⁷

그러나 성격과 행동은 강력한 내면의 세계의 결정으로 표출된다는 사실을 프로이트는 최면을 연구하면서 최면상태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사실들을 말로 표현하는데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또한 최면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였는지, 왜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런 행동의 동기는 자신들의 의식 밖에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⁷ 폴린 윌런 저, 「나를 망가뜨리는 내안의 말썹쟁이 길들이기」, 박미낭 역, (서울: 젠북, 2007), p. 98.

무의식은 개인의 생각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찾아내지 못한다. 무의식은 인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앤 베리 울라노프(Ann & Barry Ulanov)는

“무의식의 발견 이후로 역사학은 변화를 겪고 있다 인간의 현재 안으로 가져오는 과거의 모든 것, 그이 현재의 모든 것과 함께 인간이 변한다. 우리는 필요로 하는 모든 기술과 또 많은 정보를 실제로 갖고 있지 못하지만, 논쟁의 여지없이 분명한 사실은 무의식의 발견이 역사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여러 방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⁸ 며 무의식이 인간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프로이트는 마음이 세 가지로 구성되었는데 본능, 자아, 초자아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설명하였다. 본능은 오직 쾌락원칙만을 추구하고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욕망충족을 향해 내달린다. 자아는 현실원칙을 참고로 하여 본능을 사회적으로 수용될 만한 수준에서 만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초자아는 자아가 하는 일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오이디푸스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이 부모의 음성 이미지, 그리고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초자아가 형성된다고 하였다.⁹

⁸ Ann & Barry Ulanov, 「종교와 무의식」,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p146.

⁹ Jay R. Greenberg, Stephen R. Mitchell,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p. 205.

프로이트는 1915년 우울증을 분석하면서 그 근본특징 속에 강한 죄의식을 발견하고, 이를 일종의 나르시시즘 즉 자기애로 설명하려 했으나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23년 쾌락원칙을 문제 삼으면서, 죽음의 본능(공격적 본능)을 발견한 이후 우울증은 공격적 본능의 출현으로 설명되었다. 프로이트는

프로이트의 인간이해의 핵심은 본능론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초기에는 인간을 자아본능과 성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인데, 이 생의 본능을 움직이는 원동력을 리비도라 하였다. 즉 이 리비도가 신체의 어느 부위에 집중되느냐에 따라 전개되는데, 구강기와 항문기를 거쳐 도달하는 남근기는 특히 중요한 발달시기로 간주되었다. 이 기간 동안 아동은 부모에 대한 오이디푸스적인 양가감점과 갈등을 중심으로 한 심리적 위기를 겪게 되고, 그 위기 해결의 결과로서 부모상을 내면화한 초자아를 발달시키게 된다는 것이다.¹⁰

초자아는 외부세계의 대변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드의 대변자이기도 하다. 이드의 리비도적 충동의 첫 번째 대상이었던 부모를 내투사함으로써 즉 리비도적 외부 대상으로서의 부모를 포기하고, 이 과정에서 탈성화된 그 대상을 자아 속에 동일시함으로써, 초자아의 한 편에 부모를 일종의 이상으로 심어 놓는다. 초자아가 갖는 외연은 사회화 과정 속에서 넓어지고, 이에 따라서, 초자아의 이면에는 과거와 전통의 온갖 영향들이 자리 잡게 된다. 사회화 과정으로 초자아 속에 스며든 “아버지 표상”은 개체 발생적으로, 그리고 계통 발생적으로 지속된다. 초자아는

여기서 성애적 리비도와 공격본능을 포함하는 새로운 심리구조를 구상했으며, 이것이 1923년 「자아와 이드」에서 제시된 구조이다. 초자아는 자아가 자신에 대해 느끼는 죄의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공격적 본능의 발현으로 생각하였다. 초자아를 ‘자아 이상’, 즉 사회적 권위의 내면화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이런 ‘자아 이상’의 개념은 발화주체의 형성과 연관되면서 욕망의 신경증적 억압과 관련되기는 하지만, 초자아의 죄책감을 설명하지는 못한다는 반론에 부딪혀, 1930년 「문명과 불안」에서 초자아의 발생의 원천을 사물에 대한 충동과 관련된다고 보았다. 이병창, “들뢰즈와 라캉, 실재계와 초자아”, (코기토,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8), pp. 55-56.

¹⁰ 프로이트,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김성태 역, 「정신분석입문」, (서울: 삼성출판사, 1972), pp. 545-573.

양심의 이름으로 자아를 압박한다.¹¹

(2)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

초자아(Superego)는 자아로부터 발달하는 사회적 구성요소로 욕망과 현실 그리고 이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며 갈등하는 관계에 있어 어느 한쪽이 우세하면 그 속성을 띠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성격에 초자아가 지배적이라면 현실적이기 보다는 도덕적인 면에 치중하게 된다. 따라서 초자아는 사회문화적인 제 규범이 내면화된 것으로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또한 초자아는 양심과 이상을 대표하는 기능이다. 이들은 서로 상이한 역할과 기능을 가지며 때론 협조하고 때로는 반목한다.

초자아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윤리적, 도덕적, 이상적인 면을 말하며, 유전되기 보다는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 즉 부모가 주는 보상과 처벌에 대한 반응과, 사회 현실과 관계되는 자아경험에서 발달되어 나온다. 즉 부모와 다른 사람들이 개인의 행동을 이상에 따르도록 한다. 쾌락이나 현실적인 것보다 사회의 가치와 도덕의 내면화된 그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나, 이상적이고 완전한 것을 지향하게 한다.

초자아는 두 가지 하위체계를 가지는데 자아이상(Ego-Ideal)와 양심(Conscience)이다. 바람직한 인간의 이상적인 내적 기준이 되는 초자아의 측면을 자아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자아이상은 부모로부터

¹¹ 김우재, “프로이트의 죽음충동(Todestrieb) 개념에 관한 비판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 인하대학교, 2007), p. 80.

칭찬받는 경험을 쌓아가면서 형성하여 가는 도덕적 선의 개념으로 자아의 현실검증 기능을 감시하는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내면의 경찰이다. 이드로 부터 용납할 수 없는 충동들을 차단하고, 효율성이 아니라 도덕성 쪽으로 가도록 자아를 압력하며, 완성을 추구하도록 밀고 나가는 힘이 초자아의 일이다.

양심은 초자아의 처벌적 측면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한 처벌을 통하여 형성된다. 양심은 행동뿐만 아니라, 단순한 생각이나 의도에 대해서도 엄하고 타협의 여지가 없는 판단을 한다. 자아를 관찰하고 명령할 수 없으며, 죄책감과 같은 처벌을 통해 자아를 위협하기도 하다.

부모로부터 처벌받는 경험을 쌓아가면서 형성하여 가는 도덕적 악의 개념, 예를 들어 어린이가 깨끗하고 단정할 때 마다 상을 받는다면, 깨끗한 것은 어린이의 이상이 되기 싶다. 반면 이 어린이가 더럽다고 하여 자주 처벌을 받는다면, 이 어린이는 더러운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상아와 양심은 동일한 도덕률의 안과 밖이라 할 수 있다.

초자아가 동원하는 심리적 상과 벌은 자존심을 느끼는 일 또는 죄악감, 열등감을 느끼는 일 등으로 나타난다. 자아가 어떤 착한 일을 했거나 훌륭한 생각을 했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으쓱해지는 마음, 즉 자존심의 충만함을 느끼게 되고, 유혹에 빠진 행동을 했을 때는 공연히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게 된다. 이때 자존심은 자기 사랑과 관계 있고 죄악감 및 열등감은 자기 증오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초자아는 부모를 통해 전달되는 사회의 가치관, 도덕률이 그 배경이 됨을 알아야 한다. 즉 아이의 초자아는 부모의 행위를 닮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초자아를 흡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²

프로이트에 의하면 죄의식의 근원은 2가지가 있다, 하나는 권위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피에고에서 오는 두려움이다, 수피에고에서 오는 두려움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이다.¹³

인간은 사회 속으로 태어나므로, 남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을 어느 정도 억압하도록 사회화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위해서 그 사회의 질서체계인 가치, 도덕, 윤리체계를 습득해야 한다. 이것들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어린이가 5세경이 되면 초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발전한다. 자아를 행정부에 비유한다면 초자아는 입법부와 비유되어 성격을 억누르고 감독하고 비판하는 도덕적인 재판관을 맡고 있다.

초자아가 너무 발달되어 있을 때에는 지나친 금지 기능으로 말미암아 아동의 현실적인 접촉과 실험을 억압하고, 그 결과 아동의 경험 범위가 축소되어 현실에 대한 학습이 제한된다. 가령 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언급하려고 하지 않고 지나치게 고답적인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자라나는 아동에게 지나치게 융통성 없는 가치관을 주입시키거나 강요하는 것은 자아의 발달을 저해한다.

나. 아동기의 발달과업과 수피에고

¹² 김경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상담 기법을 통한 인성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pp. 15-16.

¹³ 피세진, “Sigmund Freud의 도덕론 연구”, 인문과학총론, (서울: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0), p. 125.

발달과업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하비거스트(havighurst, R. J)이다. 이 개념은 개인의 내적 요구와 사회로부터의 요청의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⁴

발달이란 양적인 변화로서 신체의 변화와 질적인 변화로서 사고방식의 변화나 태도, 가치관의 변화 등 질적인 발달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방향의 변화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한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몇 가지의 발달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 단계에는 그 시기에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이 있다.

즉 발달과업이란? 해당되는 발달단계에서는 누구나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그 발달단계에서 생존해 가는데 꼭 필요한 기술이다. 만일 발달 장애아를 교육하거나 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단계의 아동이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명시하고,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그 아동이 앞으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를 명시하는 것이다. 만일 아동이 자기가 속한 시기에 과업을 잘 해내지 못하게 되면, 다음 발달 단계에 과업성취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아동기에 있는 동안에 이것만은 반드시’ 성취해야 하고 만일 그 시기를 거치면서 과업을 완수하지 못한 경우 개인의 차이를 어느 정도 예측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한다.

각 단계의 아동은 환경과의 결정적 상호작용의 형태를 생물학적으로 준비하고, 각 단계에 속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과업을 해석,

¹⁴ 문인원, “아동기 발달과업의 이론적 고찰”, 논문집, Vol. 20 No.1(인천: 인천교육대학교, 1986), p. 22.

해결함으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이 건전한 것이 된다. 그리고 과업의 해결을 사회가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자아는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그 속에서 통합 발달된다.

(1)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심리성적 발달이론과 수퍼에고

(가) 인간정신에 대한 지형학적 이론(Topographic Theory)

프로이트는 1900년 출간된 「꿈의 해석」에서 희랍어로 지형 및 장소를 일컫는 Topographic을 사용하여 은유적으로 인간 심리 내면의 구성요소와 그 작용을 설명하고 있다.¹⁵

¹⁵ 프로이트(1856-1939)의 정신분석학은 인간의 정신과정 전체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정신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노이로제 증세를 진단하고 분석함으로써 건강한 정신과정을 회복하고자 한다.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적 이론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 1880년 대 후기에 브로이어의 카타르시스 방법을 채택한 것으로 시작해서 1905년 까지 기간을 포함한 첫단계 동안 관계구조모델과 비슷한 방법으로 정서 및 방어의 내념을 설명. 둘째 단계(1905-1910)는 그가 유혹이론을 공식적으로 폐기한 시기로 욕동 구조 모델을 정의하는 많은 개념을 발전시켰다. 셋째 단계: 1910년 이르러 변하지 않는 개념들으로써 확고한 원칙을 갖게 된 시기로 “정신적 기능의 두 가지 원리들(Two Principles of Mental Functioning, 1911a)”에서 관계적 개념을 욕동 구조 안에 통합시키는데 열중하였다. 참조. J. R. Greenberg and S. R. Mitchell, op. cit. pp. 53-54.

프로이트는 리비도의 힘과 그 힘이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사람의 행동패턴 즉 인격을 형성하는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성격이론의 핵심을 이루는 지형 모델(Topographic Model)과 구조모델을 형성하게 된다. 프로이트가 욕동(Drive)을 중심 개념으로 해서 이론을 전개했다면 그의 뒤를 이은 안나 프로이트(Anna 프로이트)는 1936년에 The Ego and the Mechanisms of Defense 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프로이트가 1920년 이후 제시한 삼중구조 이론과 저항개념을 통해 자아의 중요성과 자아발달을 강조한 것을 계승 발전시켜 자아심리학(Ego Psychology)을 발달시켰다. 특히 그녀가 아버지의 업적을 확장시켜 9가지의 자아방어기제를 체계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공헌이었다. 참조.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서울: 이유, 2003), pp. 169-209.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을 의식(Conscious)과 · 무의식(Unconscious)로 구분하고 그 중간 단계인 전의식(Preconscious)의 개념을 주장하였다. 이 세 가지 의식은 끊임없는 각각의 상호작용의 상태에 있으며, 의식과 무의식은 지속적인 긴박한 갈등과 교류의 상태에 있다고 한다.

① 의식(Conscious)

의식(consciousness)이란 외부환경의 자극들에 대해 그리고 기억, 사고, 신체적 감각 등의 인지적 현상에 대해 자각하고 있음(awareness), 즉 깨어있을 때 사물을 깨닫는 마음의 작용, 곧 이지와 감정과 의지의 일체 정신작용” 이라고 할 수 있다. 의식에는 하(下)의식, 수면 상태, 꿈, 최면 상태, 명상, 일반 의식 상태 등의 여러 수준들이 있을 수 있다.

프로이트는 의식은 마음 전체에서 본다면 얇은 한 조각에 지나지 않으며, 의식은 어떤 순간에 한 개인이 현재 느끼거나 알 수 있는 모든 경험과 감각을 말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물 표면에 떠 있는 지극히 작은 빙산의 일각만을 인간의 의식 전체로 여긴 것이다. 그러나 물 속에는 의식되기 이전의 것과 함께 빙산의 거대한 몸체인 의식되지 않은 것이 은폐되어 있다. 인간의 정신과정이 자아의 의식에 의해서만 형성된다는 종래의 설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의식이 아니라 은폐되어 있는 심층의식, 곧 충동이 정신과정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한편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는 infantile sexual need (유아기적 성적 욕구) 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 잠재된 성적 욕구는 꿈, 실연, 실착행위(실연이나 깜빡 잊는 것 등을 말함), 예술작품, 전설, 설화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행동을 통해 실현되고 특히 꿈은 완전히 무의식적 욕구에 의해 지배된다. 인간이 기억하는 꿈의 이미지는 왜곡된 대리물로서

이 꿈에 대한 검열활동과 상징적 표현으로 이루어진다.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의식은 이드(Id)를 제외한 자아(Ego), 초자아(Super Ego) 두 가지로, Ego는 Personality의 책임자, 집행자이며 이드와 초자아를 통제하고 지배하며, Personality의 전체와 그 광범위한 욕구를 위해 외부세계와의 교섭을 유지하는 등의 일을 한다. 자아가 그 집행 기능을 현명하게 수행하고 있으면 조화와 적응이 지배적이나, 자아가 이드나 초자아나 외부세계에 대해 그 힘을 포기하거나 굴복하면 부조화와 부적응의 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② 전의식(Preconscious)

인간정신의 흐름에 있어서 의식과 무의식이 교차 공존하는데, 회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의 저장소로 현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전에 의식했던 것을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의식할 수 있는 전의식의 영역이 형성된다.

전의식의 기억이나 관념은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의식 속으로 떠오를 수 있고, 본래적인 무의식의 사고와 기억은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의식으로 나타나기가 훨씬 어렵다. 실제로 무의식에는 무수히 많은 단계가 있다. 이 단계의 한 끝에는 언어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의식으로 나타날 수 없는 기억이 있고, 다른 한 끝에는 생각이 날 듯한 기억이 있다.¹⁶

③ 무의식(Unconscious)

일반적으로 무의식이라 부르는 것은 ‘의식화될 수 없는 한 쪽’ 이고 또 다른 무의식의 부분은 전의식이라고 이른다. 이곳은 어떤 종류의 재료가

¹⁶ C.S 홀 저, 지경자 역,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서울: 홍신문화사, 1994), p. 77.

의식으로 떠오르거나 혹은 의식에서 망각되어 무의식으로 사라지는 상호 교류관계에서 검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어떠한 자극이 의식화되기 위해서는 불변하는 순서와 검열 등과 같은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무의식과 전의식의 관계, 두 관계와 의식과의 관계에 있어 전의식의 조직은 무의식 조직과 의식 사이에서 병풍처럼 가로막고 있어서 의식과 무의식간의 상호관계를 위한 교량역할을 하고 또 두 조직의 충당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것이다.¹⁷

무의식은 지나간 것을 넣어두는 창고가 아니라 미래의 심적 상황과 사고의 가능성, 창조적 관념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러한 의식하지 못하는 정보들은 무의식의 언어를 형성하는 상징을 통해 전달한다.

무의식에는 무수히 많은 단계가 있다. 이 단계의 한 끝에는 언어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코 의식으로 나타날 수 없는 기억이 있고, 다른 한 끝에는 생각이 날 듯 말듯한 기억이 있다.¹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말이나 글, 기호, 상, 상징 등이 있다. 이 중 상징은 정의할 수 없거나 충분히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을 표시한다. 인간의 감각은 유한하지만 인간의 한계 너머의 것을 이해하고자 하면 현실지각은 무의식적 측면의 관여를 받는다. 그것은 꿈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때의 무의식적인 면은 합리적 사고가 아니라 상징적 상으로 나타나게 된다.¹⁹

무의식에 대한 임상적 증거는 1) 무의식적 욕구, 소망, 갈등의 상징적 표상인 꿈, 2) 말의 실수나 망각, 예를 들어 친숙한 이름, 3) 후천적 암시, 4)

¹⁷ S. 프로이트, 「꿈의 분석」, 장병길 역 (서울: 을유문화사, 1983), p. 522.

¹⁸ C.S Hall,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지경자 역, (서울: 홍신문화사, 1994), p. 77.

¹⁹ C.G Jung, 「인간과 상징」, 조승국 역, (서울: 범조사, 1983), p. 0.

자유 연상으로부터 도출된 자료, 5) 투사법으로부터 도출된 자료 6) 정신증적 증상의 상징적 내용²⁰ 등을 들 수 있다.

(나) 성격의 구조

성격은 선천적이며 기질적인 요소인 생물학적 요인과 후천적이고 경험적인 요소인 환경적인 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즉 성격의 형성은 타고난 기질과 환경과의 만남을 통해 본인의 의지나 의도를 통해 형성된다.²¹

프로이트는 초기 지역모델(의식, 전의식, 무의식)을 버리고 1923년 『자아와 본능』(The Ego and the ID)을 출판하면서, 의식 세계는 성격의 형성과 관련이 깊고 이러한 성격의 기능적 구조를 원본능(ID), 자아(Ego), 초자아(Superego)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이 세 체계가 서로 갈등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은 부적응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 자신의 세계에 만족하지 않으며 능률도 줄어든다고 한다.²²

① 리비도 (Libido)

²⁰ G. Corey,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조현춘, 조현재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1996), p145. 과거의 억압된 경험이 무의식은 인간행위의 숨은 원인으로 의식의 표층으로 떠오르게 하기 위해 꿈의 해석이나 자유연상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프로이트는 대부분의 심리적 기능이 의식영역 밖에 있다고 생각하여, 그의 정신분석 치료법의 목표는 무의식적 동기를 의식화하는 것이다.

²¹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의 이론에는 정신 역동이론(프로이트, Adler, Jung, Hartman, Erickson, Fromm), 특질이론(Allport, Cattell, Eysenk), 학습이론(Pavlov, Skinner, Bandura), 현상학적이론(Rogers, Maslow) 등이 있다.

²² C.S 홀 저, 지경자 역, op. cit, p. 28.

라틴어의 리비도(Libido)는 요구, 충동, 쾌락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프로이트는 이 리비도를 본능적 에너지 혹은 성적 충동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 인간의 마음은 신이나 혹은 이성과 같은 존재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 갖는 성적 본능인 리비도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리비도는 내적인 정신 대상이 되는 표상이나 자기에게 투자될 수 있다. 리비도가 외부에 존재하는 사랑하는 대상에게로 향하는 성적 욕동의 에너지를 대상 리비도(Object Libido)라 부르고, 자기에게 향하는 경우에는 자기애(Narcissism)라고 부른다.

프로이트는 성 및 변태성욕자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리비도 이론을 전개하였다. 프로이트는 정신분석학 강의에서 “리비도를 배고픔과 마찬가지로 본능이 드러내는 힘을 나타냅니다. 즉 배고픔이 영양을 섭취하려는 충동을 불러 일으키는 것처럼, 리비도는 성적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됩니다. ... 최초의 성적 자극들은 유아의 경우, 생명 유지에 긴요한 다른 기능들과의 연관 속에서 나타납니다. 만약 그가 어머니의 젖으로 배를 불린 후 잠이 든다면, 이는 행복한 만족의 표현이며, 이 같은 현상은 성인이 된 후 극도의 성적 쾌감을 체험한 후에 반복됩니다. (중략) 쾌락의 획득이 오직 입과 입술의 주변을 자극하는 것과 관계하기 때문에 신체의 이 부분들은 성감대로 불립니다. 그리고 빠는 행위를 통해 달성된 쾌감은 성적인 것으로 표현됩니다²³ 라고 말하고 있다.

모든 인간의 행동 이면에는 일차원리인 리비도의 법칙과 현실법칙인 이차원리 사이의 충돌과 갈등이 존재하며, 수정되고 타협되어 하나의 행동으로 표출되는데 이 갈등을 조절해 주는 힘이 자아(Ego)이다.

²³ S. Freud, 「정신분석학 강의」, 임홍빈 홍혜경 역 (서울: 열린책들, 2003), pp. 423-424.

② 원본능(Id)

프로이트에게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부분,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마음이자 성욕을 중심으로 존재하는 본능으로서, 성격의 가장 원시적인 체계이다.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맹목적, 욕구적, 끈덕지며, 강력하다. 먹고, 자고,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생물학적 충동이 깃들여 있다. 끓어 오르는 흥분된 술과 같아서 긴장을 참지 못하고, 성숙하지 않으며, 생각은 하지 않고 무엇을 하거나 어떻게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다. 또한 Id는 삶의 본능이나 죽음의 본능과 같은 정신에너지를 보관하는 창고이다.

Id의 세계는 어떤 조직도 의지도 없는 개성의 막연하고 접근하기 힘든 부정적인 성질의 것이며 쾌락원리(Pleasure Principle)에 따라 본능적 필요의 만족을 구하려는 충동이다. 즉 사고의 논리적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즉 모순율이 참이 되는 것이며, 비합리적인 신비스러운 정신의 차원이며, 갑자기 떠오르는 착상이나 사유의 섬광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한 성격, 야심 및 인간 정신과의 자연발생적인 측면의 일반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Id는 보통 영감이라 부르는 것의 원천이다.²⁴

Id의 세계는 대부분 인식되지 않으며 무의식적이다. 이 무의식에는 어느 정도 자아와 초자아의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③ 자아(Ego)

²⁴ C.S 홀 저, 지경자 역, op. cit. pp. 131-134. 이드는 쾌락의 원리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환상지향적인 경향을 띤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현실의 제약 때문에 본능을 충족시키는 것이 언제나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

자아는 외적 현실과 이드 및 초자아라는 내적 현실의 요청을 조정하는 역할, 즉 자아는 외적, 물리적,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이드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한편, 초자아의 명령에도 따라 역할을 하는 실행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원본능(Id)의 요구와 초자아의 도덕적 금기들을 중재하는 기능을 한다.

갓 태어난 아기는 본능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능이 추구하는 쾌락은 곧 현실이라는 거친 벽에 부딪치게 된다. 즉각적인 만족이 항상 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일차적 과정은 적극적인 과정이지만 배고픔, 목마름, 성적 충동에 의해 일어난 긴장을 만족스럽게 방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차적인 과정에서 형성된 이미지는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참된 만족을 얻으려면 현실세계와 접촉해야 한다. 이 현실세계와의 접촉으로 인해서 인성의 두 번째 요소인 자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아는 본능과는 달리 현실원리(Reality Principle)에 따르게 된다.²⁵

자아(Ego)는 성격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조정하는 실행자다. 원본능, 초자아, 외부세계에 대한 교통 경찰관이므로 본능과 주위 환경 사이를 매개한다. 의식을 통제하며, 검열활동을 한다. 자아는 현실원리를 따라 움직이며 끊임없이 이드와 초자아 사이의 힘을 중재하는 현실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체계를 따르는 이차적 과정이다.

자아는 6-8개월부터 발달하여 2-3세에 형성된다. 이드의 욕구를 원하는 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나며, 현실적 제한이나 초자아의 압력 속에서도 만족을 추구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조정이

²⁵ 방선옥 외 2명, 「심리학의 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2003), p. 284.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조정은 갈등의 해결과정 중 아동의 내부에서 진행되는데, 아동이 욕구의 좌절을 경험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자아의 발달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로 보았다.

자아가 잘 발달된 사람은 성욕과 같은 본능의 지배력과 초자아의 억제력을 현실에 가장 적합하게 조절할 수 있다. 이 자아가 출생시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후 차츰 발달하는 것이고, 초기 양육이 자아발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자아는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없다. 자아는 지각하고 통합하고 사고하는 행동을 한다. 그것은 우리 성격의 중심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의식에 속한다고 생각되지만 자아 기능의 대부분은 무의식에 속해있다고 여겨진다. 내적인 성찰을 하는 가운데, 자아는 관찰되는 현상(the Observed) 가운데 관찰하는 주체(the Observer)로 남아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자아는 역사적으로 ‘자기’ (Self)와 동의어로 쓰인다.

④ 초자아(Superego)

초자아는 정신 기구에 속하는 대리자의 하나로 성격을 안내하는 내면적인 도덕적 금기, 태도, 사고의 표준들을 기술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남근기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욕동의 금지자인 동성 부모의 태도나 행동을 내재화함으로써 형성된다.

성격의 판사와 같은 부분으로, 사회규범과 행동규준들이 내면화되어 형성된 것으로 마지막으로 발달한다. 초자아는 개인의 도덕이며, 주관심사는 행위가 착한지, 그렇지 않은지의 선악을 구분하는 것이다. 현실이 아니라 이상을 나타내며, 쾌락보다는 완벽을 추구한다. 종교에서 말하는 양심과 비교할 수 있다.

초자아는 쾌락이나 현실원리보다 도덕이나 완벽원리에 의해 작동된다.

초자아가 너무 약하거나 우세하면 자아의 발달이 저해된다. 초자아가 너무 약하면 자아는 자신의 욕구와 현실의 조건만을 고려하기 쉬워진다. 이때 가치 판단이 결여되어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함으로써 타인들이 억제하고 있는 욕구를 무시하고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욕구를 충족하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자아는 이드로 부터 형성되며, 초자아는 자아로부터 형성된다. 이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혼합된다. 자아는 아동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 시기를 지나면서 사회적 표준이나, 부모를 통해 얻게 되는 가치관과, 도덕률, 교육 등이 내면화된 것으로 심리적 보상이나 처벌에 관련이 있다. 부모의 내면화 영역은 초자아 영역에 속한다. 보상은 자부심 혹은 자기애이고 처벌은 죄책감이나 열등감이다.

초자아는 부모나 교사 또는 다른 초자아가 형성된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한 사회화 과정에서 사회적 이상과 가치 등을 내면화 시킨다. 아동은 주변 영향자들로 부터 처벌과 보상이라는 학습원리에 따라서 초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다) 성격의 발달(Psychosexual Developmental Theory)

인간은 출생 때부터 성적욕망을 가지고 태어난다. 프로이트는 아이가 성장해감에 따라 삶의 에너지인 리비도가 집중되는 신체부위에 따라 특정 성감대의 활동에 주목하여 성격의 발달 단계를 나누었다.²⁶ 그 결과

²⁶ 정서적 갈등을 겪었던 유럽여성들은 프로이트의 자유연상(Free Association)기법을 통해 잊어버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되찾았다. 그 기억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억 내용들이 대부분 성욕의 표출과 관련되어 있고, 또한 아동기 시절의 욕구표출에서 정신적인 상처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프로이트는 그 어린 시절의 상처가 바로 현재 정서적 갈등문제의 씨앗이 되고, 그 상처를 지금이라도

프로이트는 구강기(The Oral Stage), 항문기(The Anal Stage), 남근기(The Phallic Stage), 잠복기(The latency Stage), 생식기(The Genital Stage)로 인간 정신의 다섯 가지 성적 발달단계를 제시하였다.

① 구강기(The Oral Stage)

태어나면서부터 약 1세까지이다. 이 시기의 주된 성감대는 입이다. 유아는 입, 혀, 입술을 통해서 젖을 빨아 먹는데, 유아기의 아이는 리비도가 입에 집중되어 있어 입을 통해 빨고 먹고 깨무는 행위를 통해서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며, 긴장감소와 쾌락을 경험하며, **자신에게 만족과 쾌감을 주는 인물이나 대상에게 애착을 가진다.**²⁷

이 시기의 유아는 어머니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시기로, 유아는 자신과 어머니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자체를 하지도 못하는 시기다. 이 시기에 어머니는 아이에게 있어서 최초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유아인 자신을 해치지 않는까 하는 공포감을 갖는 시기이다.

어루만져주는 것이 현재의 문제를 치유하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참조. 윤가현, 「성문화와 심리」, (서울: 학지사, 2003), p. 67.

²⁷ 초기에는 리비도 요구(Libidinal needs, Oral eroticism)가 주도하고, 나중에 공격적인 요소가(Oral sadism) 가미된다. 지나친 충족이나 박탈은 고착을 유발(Fixation), 지나친 낙관주의(optimism), 자기애(narcissism), 비관론(pessimism), 요구성(demandingness)를 유발한다. 구강기 성격(Oral character)은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남이 주기만을 바란다. 시기와 질투가 간혹 연관되어 있다. 이 시기가 고착되면 구강형 성격이 발달하게 되는데 지나치게 낙관론적이거나 의존적인 경향성을 구강수동적 성격이라 하고, 지나친 비관론, 적의성, 공격성을 보이는 경향을 공격적 성격이라고 부른다. 인격의 문제들로 타인에 대한 불신, 타인의 사랑에 대한 거절,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대한 공포나 불능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 시기에 적절한 보살핌과 아이가 추구하는 쾌락을 얻지 못하거나 과잉충족을 하게 되면 지나친 집착, 과도한 흡연, 손가락 깨물기, 과음, 과식, 타인에 대한 의존 등과 같은 미성숙한 성격적 결함을 나타나게 된다.

② 항문기(The Anal Stage)

1세부터 3세까지의 시기로 항문 부위가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리비도가 항문으로 이동되고 아이는 대변의 보유와 배출에서 쾌감을 경험하고 성감대가 항문으로 옮겨간다. 이 시기에는 대소변 가리기 훈련이 시작되는데 이 때 유아는 처음으로 그의 본능적인 충동을 외부로부터 통제 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즉 유아는 부모로부터 자신의 쾌감을 연기하는 훈련을 받게 된다. 만일 부모가 대단히 엄격하고 억압적으로 훈련하게 되면, 성인이 된 뒤에도 고착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²⁸

아이는 배변훈련을 통해 양육자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복종과 반항, 질서와 무질서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고 주기와 간직하기 더러움과 청결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

항문기 성격 특성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강박 신경증이다. 이 시기에 고착되면 정돈하지 않고 지저분하며 어지럽히는 행동인 ‘항문기 폭발적 성격’ 과 고집이 세고 완고하며 검소하고 인색한 성격이 나타나는 ‘항문기 강박적 성격’ 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행동은 항문기 억압에 대한 분노가 소극적으로 나타나는 방식이다.

이와 반대로 방어에 실패하면 우유부단 양가적 태도, 지저분하고, 기율에 반항적이거나 가학성이나 피학성을 나타낸다. 부모의 훈육 양식과

²⁸ C.S Hall,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지경자 역, (서울: 홍신문화사, 1994), p. 227.

태도는 아동의 후기 인격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²⁹

③ 남근기(The Phallic Stage)

이 시기는 대략 3세 이후부터 5세까지로, 성격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리비도가 항문에서 성기로 옮겨간다. 아동은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자극하는 데서 흥분과 쾌감을 느끼며, 성기가 남녀 공통의 관심사가 된다.

이 시기의 아동은 남녀의 신체가 다르고 아기의 출생, 부모의 성 역할 등에 관심을 갖는다. 이성의 부모와 성적으로 하나가 되려는 무의식의 충동을 강하게 느끼는 시기이다. 특히 남아들에게서 발견되는 엄마라는 대상에게 내적 리비도를 투사하여 심리적 결합을 이루는 시기로 강한 애착(Cathexis)을 보이는 시기이며, 남근기 동안에 남자아이가 이성의 부모에 대한 성적 애정에 접근하려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³⁰를 가지게 된다.

²⁹ 이 시기에 유아는 부모의 지나친 통제는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한 인색한 성격의 소유자로, 또는 대소변이 더러운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지나치게 깔끔하거나 지나치게 규율을 준수하는 결벽성의 소유자가 된다. 늘어놓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정한 것을 참지 못하고, 단정한 환경에서 억압과 답답함을 느낀다

³⁰ Oedipus complex 는 인간의 정상적인 성의 발달의 단계로 자기와 반대의 성을 가진 부모에 대한 성적 애착과 함께 자기와 같은 성을 가진 부모에 대한 미움, 공포 등 양면적 감정이 함께 있다. 테베의 왕 라이우스는 자신의 아내 이오카스테 사이에서 낳게 될 아들에 의하여 자신은 죽고 그 아들이 아내와 결혼하게 된다는 신탁을 받고 신하를 시켜 아들을 죽이라는 명을 내린다. 그러나 이를 불쌍히 여긴 신하는 왕 몰래 아기를 살려 주었다. 장성한 오이디푸스는 테베의 왕을 죽이고 왕위에 앉았으며 자신의 생모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출생의 비극을 알게 된 오이디푸스는 자신의 눈을 찢러 스스로 장님이 되고 테베를 떠났다고 한다. 이 때 오이디푸스의 눈을 뽑는 행위는 스스로 자신을 거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자 아이는 이 시기에 자기 어머니에게 성적 애착을 느끼게 되며, 동성의 부모인 아버지를 어머니의 애정쟁탈의 경쟁자로 생각하여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

어머니에 대한 욕망과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은 아버지와의 사이에 갈등을 야기한다. 아이는 우세한 경쟁자인 아버지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성기를 없애버릴 것이라는 거세불안(Castration anxiety)을 느낀다. 이 거세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을 억압하여 아버지에 대해 동일시하게 된다. 이 동일시 과정을 통해 어머니에 대한 성적 욕구를 간접적으로 해결하며 아버지로부터 올 수 있는 공격에 대한 불안도 동시에 해결한다. 아버지의 도덕률과 가치 세계를 내면화하고 양심과 자아 이성을 발달시켜 간다.

또한 여아는 남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남근을 부러워하는 남근선망(Penis Envy)을 갖게 되며, 아버지에 대해 성적애착을 갖게 된다. 이 책임을 어머니에게 돌리며 어머니에 대한 애정이 약해진다. 그래서 아버지를 더 좋아하게 되는 엘렉트라 콤플렉스(Electra Complex)³¹를 느낀다.

Oedipus complex 의 시작을 남자아이의 엄마에 대한 성적 집착과 아버지에 대한 동일시가 갈등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자란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김균진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증명되지 않는 가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어린이가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부모에 대한 근친상간적 관계는 인류학자는 물론 심리학자들역 의해 증명되지 않는다. 아버지가 딸을, 어머니가 아들을 더 가까이 하는 현상은 자주 나타나지만, 그렇다 하여, 서로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은 아니며, 아드리 아버지에, 딸이 어머니에게 질투를 느끼지도 않는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근친상간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극소수의 예외일 따름이다. 프로이트는 예외적인 경우를 보편적원리로 삼는다. 김균진, “프로이트의 심리분석적 무신론에 대한 신학적 성찰”, 신학논단, Vol. 47,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2007, p. 100.

³¹ 엘렉트라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성의 이름으로 용이 Freu 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 대비시키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신화속의 엘렉트라는, 미케네의 왕 아가멤논과 왕비 클리템네스트라의 딸로 태어났다. 트로이 원정의 총지휘관이며 그녀의 아버지인 아가멤논은 10 년의

이러한 콤플렉스를 극복하는 고정에서 동일시(Identification)현상이 일어난다. 이는 남자 아이의 경우 어머니에 대신 성적 애정을 포기하고 아버지와 같은 남성다움을 갖기 위해 노력하며, 여자 아이의 경우에는 남근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머니처럼 여성스럽게 되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가 어떤 원인으로 해서 이 단계에서 고착되면 남근기적 성격이 형성된다. 무모하고 잘난체하고, 남성성이나 정력을 과시하고 돈, 성적 방종에 빠지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하지 못했을 때에는 성 불감증, 동성애 같은 신경성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 시기의 병리적 현상은 거의 모든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어 매우 복잡하다. **초자아가 형성되는 시기로 어린이의 점증하는 성적 관심에 대한 부모의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 방식은 성에 대한 어린이의 태도와 감정에 영향을 끼친다.**

④ 잠복기(The latency Stage)

대략 6세에서 시작하여 11세까지의 시기이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극복한 후 아이는 잠복기에 들어선다. 초자아(Superego)의 형성과 자아(Ego)의 성숙으로 본능적 충동을 상당히 통제 가능한 상태가 된다. 성적

출타 끝에 고향으로 개선하였으나, 그날 왕비 클리타임네스트라와 간부(姦夫) 아이기스토스의 손에 살해된다. 아버지의 살해자들로부터 모진 학대를 받던 엘렉트라가 이 사실에 분개하여 조국을 떠나 망명 중에 있던 동생 오레스테스와 함께 왕비와 간부를 죽이고 아버지의 복수를 하였다. 어머니를 죽인 엘렉트라의 스토리는 아버지를 죽인 아들 오이디푸스의 스토일와 대조적이면서도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오이디푸스가 어머니와의 사이에 아이를 얻는 것에 비해 엘렉트라의 이야기에서는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적인 애정은 결여되어 있고, 그 대신 동생 오레스테스와 동지적인 정이 강조되어 있다. 후쿠시마 아키라 외 지음, 「정신분석이라는 이름의 인간드라마」, 고문진 옮김, 이손, 2003, pp. 216-217.

욕구가 철저히 억압되므로 앞의 세 단계에서 가졌던 욕구들을 거의 잊게 되므로 따라서 위험한 충동이나 환상이 잠재되어 조용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아동은 학교에 입학하고, 주위 환경에 대한 탐색이 활발하다. 동성간의 교류, 그리고 리비도 에너지와 공격적 에너지(libidinal & aggressive energy)가 공부나 놀이로 승화(sublimation)가 일어난다. 실제로 아이들은 운동이나 게임, 그리고 지적 활동과 같은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행동에 집착하게 되고, 운동능력을 배양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의 관점도 알게 되며, 성적 변화가 일어나는 **사춘기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성적역할, 오이디푸스적 동일시(Oedipal Identification)가 더욱 통합된다.

⑤ 생식기(The Genital Stage)

생식기는 **12-18세의 시기**로, 오래 전의 남근기의 주제들이 되살아난다. 12-13세의 청소년기까지 잠시 성적 에너지가 억제되거나 의식 밑에 가라앉은 잠재기를 갖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2차 성징의 출현 등, 신체적 변화가 생기면서 생식기에 들어서는데 성적인 본능이 다시 활발히 나타난다.

사춘기의 시작에서부터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 생리적인 변화와 더불어 성기능의 성숙, 호르몬 변화로 성 본능이 강화된다. 구강기, 항문기, 성기기 등 자기 신체의 자극을 통해 얻었던 단순한 쾌감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찾아 만족을 얻고자 한다. 즉 성적 에너지의 대상이 이성으로 옮겨가게 되고 구애가 시작된다. 이전의 초기 단계들의 특징이었던 자기에 및 혼합된 갈등 감정이 더 이상 없으며, 개인들은 성숙된 이성적인 형태로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질 수 있다.³²

이 시기의 특징은,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이성의 부모에게 밀착감을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사랑의 대상자로, 성숙된 이성간의 대상 관계를 성취하기 위해 이성을 찾는다. 젊은이들은 우정을 형성하고, 예술이나 스포츠에 힘을 쏟고, 직업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에 성적 에너지를 투자한다.

또한 이 시기는, 그 동안 형성된 성격구조의 퇴행과 과거의 발달단계에서 생긴 갈등이 다시 재개되면서 그 갈등들을 해결을 하게 되면 성숙한 성인의 모습의 기틀을 형성하게 된다(Mature Sexual & Adult Identity).

프로이트는 심리성적 발달단계(Psychosexual Developmental Stages)가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의 진행이 방해 받으면 특정 단계에 고착될 수 있다. 이 고착이 성인기 성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고착(Fixation)은 각각의 심리성적 발달단계에서 더 이상 성숙하지 못하고 특정 단계에 어떤 대상에 리비도가 집중되어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한다. 고착이 일어날 경우 새로운 발달 단계로 넘어가거나 새로운 관심을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적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이에 비해 퇴행(Regression)은 후기 생애단계까지 나아갔던 사람이 현재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리비도가 성장의 초기단계와 같은 행동방식으로

³² 최정훈 외 5인, 「인간행동의 이해」, (서울: 범문사, 1993), p. 289.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다 큰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줌을 가리지 못하는 것도 일종의 퇴행현상이다.

(라) 프로이트와 수퍼에고(Super Ego)

성격의 제삼 요소로,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내적 표본이며, 부모가 어린이에게 설명해 주고, 상벌체계의 방법으로 어린이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성격의 도덕적 또는 사법적 측면이다. 현실보다는 이상적인 것을 대표하고, 쾌락보다는 완성을 지향한다. 주요관심은 옳고 그름을 결정하여 사회기관이 인정하는 도덕적 기준에 맞추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의 도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초자아는 모든 금지나 억제, 교육이나 사회화의 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편리한 개념이다. 이 개념에는 혼란, 조건화, 동일시, 이상, 표준, 양심 등의 개념들이 포함되어 있다.³³

행위의 내재화된 도덕적 재판관으로서 초자아는 이드에서 생겨난 것으로 주로 아동기 초기에 부모가 주는 보상과 처벌에 대한 반응에서 발달된다. 보상을 얻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이는 부모가 설정한 노선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배운다.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말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초자아의 두 하위체계중의 하나인 양심(Conscience)과 행동을 승인해 주고 보상해 주는 것은 자아이상(Ego-Ideal)과 결합되는 경향이 있다. 양심은 개인으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함으로써 벌을 주고 자아이상은

³³ Leon J. Saul, 「아동기 감정양식과 성숙」, 천명문 외 5인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6), p. 148.

개인으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게 함으로써 보상을 준다.³⁴

양심은 ‘안돼’ 라는 금지에 해당하고, 자아이상은 윤리적 대상선택과 동일시 된다. 자아이상은 인간이 사람에게 인정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부모의 초자아는 자녀에게 전수된다. 그것은 부모의 벌과 칭찬에 의해, 선과 악이 결정되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도덕적 기준이 좌우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의 자녀 교육에 있어서 벌을 주거나 칭찬을 할 때 일관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 유아는 성장해감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아와 초자아를 발달시키게 되고, 현실원칙에 의거해서 욕망의 충족을 지연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유아의 성장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지대하다.

35

초자아도 자아와 마찬가지로 이드에서 생겨나는데 주로 아동기 초기(5-6세)에 습득한다, 특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부모에 대한 사랑과 증오라는 양가 감정을 체험하며, 부모와의 동일시를 형성함으로써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해소한다. 동일시 과정에서 남자 아이의 초자아가 성장을 하게 된다. 아버지의 도덕적 기준을 내면화하며 일생을 통해 내적 압력이 된다. 여자아이의 경우 남자아이처럼 명확하고 완전하게 갈등을 해소시켜주는 거세에 대한 불안이 없기 때문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³⁴ C. S. Hall, G. Lindzey, 「성격의 이론」, 이상로, 이관용 공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7), pp. 37-38.

³⁵ 송석재, “프로이트의 도덕발달 이론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청원군: 한국교원대학교, 1996), pp. 40-42.

초자아는 자아보다 의식적인 측면이 적다.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을 두려워한다. 증오스러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이기 못하는데 이는 법에 저촉되서라기보다 진심으로 타인을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초자아는 외부의 권위적 인물을 적대하거나 거역하려 할 때 마다 자아를 공격한다. 그 결과 어린이는 아버지에게 공격을 가하게 되고→아버지는 어린이를 처벌하여 보복하며→어린이는 처벌하는 아버지와 동일시하게 되고→아버지의 권위는 내면화되어 초자아가 되고→초자아는 자아가 초자아의 도덕 규칙에 순종하지 않을 때 자아를 벌한다.³⁶

초자아는 인격형성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도구이지만 완벽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에 만족함이 없으며 죄의식을 생성하게 된다. 초자아는 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동일시와 부모의 금지를 통해서 형성됨으로 부모는 어린이의 초자아 형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에릭 에릭슨(Erik H. Erikson, 1902-1994)의 심리사회 발달이론과 수퍼에고

에릭슨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에서 출발하여 그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프로이트의 이론을 기초로 하였지만 여러 면에서 관심을 달리했다. 즉 인간의 심리적 발달이 아동의 연령에 따라 리비도의 표출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프로이트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나 리비도의 표출양상 자체를 성격발달의 주요 지표로 간주한 프로이트와는 달리 변화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환경과 접촉하는 과정에 아동의 자아양식이 경험하는

³⁶ C. S. Hall,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pp. 75-76.

위기(Crisis)와 극복과정을 성격발달의 주요인으로 생각한다.³⁷

에릭슨은 심리학적 현상이라도 반드시 생리학적, 행동적, 경험적,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함을 강조하였는데 그에게 있어서, 주요 관심은 건강한 인격의 발달에 두고 **원본능(Id)보다 자아(Ego)에** 주된 관심을 두었으며 인격은 일평생을 통한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에릭슨은 개인을 역사적 시간과 문화적 맥락의 시각에서, 태어난 문화권의 성장환경 즉 가치관과 양육방식에 따라 아이가 경험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경험과 독특한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보았다.³⁸

에릭슨의 이론은 1950년에 발간된 「Childhood and Society」(아동기와 사회)라는 저서에서 "인간의 여덟 시기"(Eight Ages of Man)라는 이름으로 처음 발표되었다. 인간의 발달단계를 8단계로 설명한 이 이론은 인간발달에 대한 이론가로서 관심을 갖게 한 이정표가 되었다.

심리사회적이라는 용어는 개인이 성격발달의 내재적 경향에 의해 발달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이고, 또한 개인이 그가 상호작용하고 있는 사회가 제시하는 발달과제(Developmental Task)에 의해 규정되고 영향을

³⁷ 전체 8 단계에서 제 5 단계까지는 프로이트가 체계화한 심리성적단계(Psychosexual Stage)에 대응하고 그 이후의 단계는 Erikson 자신에 의한 임상적, 비교문화적 관찰(Cross-Cultural Observation)에서 나온 것이다. 에릭슨의 이론의 특징을 프린스턴 신학교의 도널드 캡스(Donald Capps)는 「Life Cycle Theory and Pastoral Care」(생애주기 이론과 목회적 돌봄)에서 에릭슨 이론의 사회심리적 8 단계의 특징이 ‘단계에 기초한 이론(A Stage-based Theory)’, ‘순환적 과정(A Cyclical Process)’, ‘양극적 단계(Bipolar Stages)’, ‘후성설적 기반(Epigenetic Ground Plan)’ 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이론을 심리성적 단계이론(Psychosexual stage theory)라고 한다면, 에릭슨의 이론을 심리사회적 단계이론(Psychosocial stage theory)라고 부른다.

³⁸ Stephen. A. Mitchell, Margaret. J. Black, 「프로이트 이후- 현대정신분석학」,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pp. 249-258.

받는다는 점에서 ‘사회적’임을 의미한다. 각 단계에서 인간이 겪어야만 하고 겪을 수 밖에 없는 갈등 혹은 위기를 서로 대립되는 양극(Polarity)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인간은 인생 주기의 모든 단계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성과 잠재력으로 인해 새로운 성장을 하는데, 인간은 환경과 과거의 사건에 영향을 받는 동시에 이러한 환경과 역사의 흐름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³⁹

(가) 심리사회 발달이론

에릭슨(Erik Erikson)은 출생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의 인간의 일생을 8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성취해야 할 기본적인 과업을 설정하고 그것을 양극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발달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제 1단계: 신뢰감 대 불신감

(Trust vs. Distrust 출생~생후 1년)

이 단계는 프로이트의 구강기(The Oral Stage)에 해당하는 시기로, 인간이 직면하는 최초의 단계로, 각 성적인 부위마다 특유한 자아 양식이 있다. 이 시기는 입, 눈, 귀, 목소리, 사지와 관련되어 있다. 이 시기는 수동적이지만 열심히 빨려는 활동양식을 취하며 이를 함입(Incorporation)이라 한다.

신뢰감(Trust)이란 건강한 성격의 기초이며, 자신감(Confidence)과 같은

³⁹ E. H. Erikson, “인간발달 8 단계”, 「한권으로 읽는 교육학명저 24선」, Eugene S. Gibbs 편 저(서울 : 도서출판 디모데, 1994), p. 16.

특성이다. 이런 기본적인 내적 신뢰감(Inner Certainty)을 가진 유아는 사회적 환경을 **안전하고 안정된 장소로**, 인간을 양육자로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로 본다. 초기 유아기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러한 신뢰의 양(Quantity)은 모친이 주는 음식의 절대량(Absolute Quantity)이나 표현된 애정의 양(Quantity)이 아니라, 모친과의 관계의 질(Quality)이다.

기본적인 신뢰와 불신의 갈등해결은 자아의 첫 업무이며 모성적인 사랑을 통해 전달되는 자아가치에 대한 내적인 감정으로부터 발달된다. 이 시기의 유아는 엄마의 돌봄에 의해서 생을 유지하고 성장해 간다. 이 때 엄마의 돌봄이 적절하고 긍정적이면 아기는 엄마를 믿고 의지할 수 있음을 느낀다. 잘 먹었을 때 행복을 느끼고 배고플 때 불행하다고 느낀다.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 때 엄마의 행동에서 어떤 일관성과 예언성, 그리고 신뢰성을 감지하게 된다. 그래서 아기는 엄마에 대해 기본적 신뢰감(Trust)을 발달시키게 된다. 돌봄이 불규칙할 때, 아기는 엄마의 돌보아주는 행동을 예측할 수 없게 되고 믿을 수 없는 불신감(Distrust)을 발달시키게 된다.

에릭슨이 이 시기를 인생의 초기 단계 중 가장 비중 있게 취급했던 이유는 발달 특성으로서의 기본적 신뢰감이 인생 후기에서 갖게 되는 사회적 관계에서도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다.⁴⁰

기본적 신뢰감이 불신감을 능가하면 희망이라는 자아의 힘이 생겨난다. 에릭슨은 희망을 살아있는 상태에 내재된 가장 최초의 그리고 가장 필수 불가결한 가치로 표현하였다.⁴¹

⁴⁰ E. H. Erikson, *Child and society*, 「아동기와 사회」, 윤진, 김인경 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2), pp. 285-290.

⁴¹ E. H. Erikson, *Insigh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Norton, 1964, p. 115.

이 시기에 형성되는 기본적 신뢰성 또는 불신감은 일생을 통해 지속된다.

② 제2단계: 자율성 대 수치심 및 의심
(Autonomy vs. Shame and Doubt 1세~3세)

이 단계는 프로이트의 항문기(The Anal Stage)에 해당하는 시기로, 이 시기의 어린이들은 프로이트가 말하는 항문 근육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근육들도 마음대로 사용하려고 한다. 두 발로 일어나 걷기 시작하는 이때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

이 단계의 아동들은 혼자 걷고, 대소변도 점차 가리게 되므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 그리고 말도 할 수 있어서 자기 주장이 강해져 간다. 이 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처음으로 획득한 자율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 사회적, 문화적 통제 등과 같은 외부의 체제에 적응해 나가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어떤 부모들은 적절한 통제 방법을 잘 알지 못해서 스스로 행동하려는 아동의 노력을 좌절시키거나 반항적 행동 속에 숨겨진 자율성의 의지를 지나치게 무시하거나 억압해 버림으로 수치(Shame)와 회의(Doubt)에 대한 느낌은 이런 계기에서 생기게 된다.⁴²

이 단계에서는 ‘자율성 대 수치심 및 의심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인간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가? 아니면 의존적이고 자기회의로 찬 부끄러운 인간이

⁴² E. H. Erikson, *Insight and Responsibility*, p. 119. 신체적인 발달과 동시에 문화가 문제가 되는 시기이다. 서구의 청결 위생 강조는 아동들에게 심각한 압박감을 주게 되는데, 다른 문화들 가운데 아주 완만하게 조절을 배워가게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그 영향의 차이가 크게 눈에 띈다.

되느냐?’ 를 결정한다. 이 단계에서 사랑과 증오, 협조와 고집, 자기표현과 자유와 억압에 대한 비율이 결정된다. 자존심의 상실 없이 자기 조절감으로부터 지속되는 호의와 자긍심이 생겨나고, 자기조절의 상실감과 외부적인 과잉 통제감에서부터 지속적인 의심과 수치심의 경향이 생겨난다.⁴³

수치를 느끼는 아동은 세상이 자기를 바라보지 않도록 강요하고 싶어한다. 아동은 세상의 이목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대신에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기를 희망한다. 수치스러운, 왜소하다는 느낌’ 을 증가시킨다. 너무 지나친 수치심은 오만한 뻔뻔스러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아동과 성인이 자신과 자신의 신체 혹은 욕구를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 상황을 겪을 때 그들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⁴⁴

이 시기의 유아 발달에는 사회적인 기대나 압력과 자신의 의지 사이에서 조절과 적응력이 발달 특성을 결정짓게 된다. 자녀들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용납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부모는 아동의 독립성을 방해한다. 이 시기 동안 아동은 실험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수를 해도 수용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독자적이고 독특한 사람으로서 자신은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③ 제3단계: 주도성 대 죄책감

⁴³ E. H. Erikson, *Child and society*, 윤진, 김인경 역, 「아동기와 사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2), pp. 294. 예를 들면 배변과정에서 자기 통제의 상실감, 보행시도 중 근육의 무능감, 자기주장에 대한 과잉 통제 등의 자율성 확보의 과제 해결이 실패하게 되면 수치를 느끼게 된다. 이때 수치심을 너무 많이 느끼는 어린이는 수치심을 주는 자에 대하여 커다란 내적인 분노나 반항을 일으키게 된다.

⁴⁴ *Ibid*, pp. 290-293.

(Initiative vs. Guilt 3 세~6 세)

이 단계는 프로이트의 남근기(The Phallic Stage)에 해당하는 시기로, 프로이트에 따르면 남근기의 중요 갈등의 초점은 이성의 부모에게 느껴지는 무의식적 근친상간의 욕구이다.

이 시기는 운동과 지각 능력이 발달하고 대인관계 기술도 발달한다. 아동이 수동적, 수용적 숙달에서 능동적 발달의 단계로 나아감으로, 많은 신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언어구사능력이 생기면서 아동은 주도성의 단계로 들어간다. 주도성(Initiation)이란 이와 같은 능력을 사용하여 자율적으로 과제를 기획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 단계의 위기의 긍정적 해결은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인지적 탐색이 여러 가지 정보를 가져다 주는 즐거운 경험이라고 하는 감각의 발달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⁴⁵

주도성을 발달시킨 아동들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활발하게 때로는 무모하게 일을 계획하고, 경쟁 목표를 설정하며, 그것을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이기려고 경쟁도 한다, 그러나 아동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근사한 계획과 기대했던 목표와 희망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⁴⁵ 남근기의 소년은 어머니의 관심을 열망하고 아버지에게 대해서는 적대감을 느끼며, 어머니에 대한 근친 상간의 감정 때문에 아버지가 처벌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는 거세공포가 생긴다. 어머니에 대한 성적 관심은 이성의 부모와 성교를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성에 대한 호기심, 성적 환상, 성역할 동일시, 성놀이 등 성적 환상과 함께 자위는 이 시기에 정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신의 몸매에 관심을 가지며 성 차이를 발견하려고 한다. 도덕적 기준을 학습하는 시기이며, 부모가 경직되거나 비현실적인 도덕 기준을 가르치면 초자아에 의한 과잉통제가 생길 수 있으며, 모든 충동을 나쁜 것이라고 가르치면 자연스러운 충동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타인과의 친숙한 관계를 즐기지 못하게 된다. 이 시기에 중요한 것은 영아의 성(Infantile Sexuality)으로 혼돈된 어른 마음의 눈으로 보지 말고 현실에 있는 그대로 보자고 한다. 자신과 타인의 성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성인의 역할을 상상하고 한쪽 부모와 경쟁관계를 느끼게 된다는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시기에 해당된다.

위기가 오게 된다, 즉 아동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충동과 이에 대해서 주어지는 사회적 금기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때로 아동은 상당한 패배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위험한 충동과 환상을 금지하는 사회적인 금기들을 내면화하게 되어 죄책감(Guilt)를 형성하게 된다.⁴⁶

만일 아동의 활동을 제한하고 호기심을 말살시키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일관성이 없고 귀찮아한다든가 하면 아동은 자발성과 호기심을 잃게 되고, 아동 자신의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부모를 향한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게 되고, 실망과 혼란을 겪기도 하고, 또한 성취를 반복함으로 자아 성취감을 갖기도 한다.

④ 제4단계: 근면성 대 열등감

(Industry vs. Inferiority 6 세~11 세)

이 시기는 프로이트의 잠복기(The latency Stage)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프로이트와는 달리 Erikson은 잠복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성적 충동이 잠복기로 들어가며, 인간관계도 가족에서 학교라는 사회로 넓어진다. **자아성장의 가장 결정적인 단계라고 보았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보다 넓은 문화의 유용한 기술과 도구를 배우는데 전념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학교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지적인 기술들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또래들과 놀고 함께 협동하는 것을 배운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작업에서 얻어지는 성공경험을 하게 되는 아이들에게 근면성(Industry)이라는 정서가 생겨나게 된다, 반대로 실패의 경험은 아동들에게 열등감(Inferiority)을 느끼게 한다. 더 이상 노는 것만을

⁴⁶ E. H. Erikson, *Insight and Responsibility*, p. 122.

즐거는 어린이가 아니라 무엇을 만듦으로써 인정을 받고 스스로도 뭔가 생산적이라는 느낌을 갖기를 원한다.⁴⁷

이 시기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부정적 자아 개념, 학습과 관련된 부적절감, 사회적 관계형성에서의 열등감, 가치에 대한 갈등, 혼란된 성-역할 정체감, 진취적 기상의 부족, 술선감의 부족, 그리고 의존성 등이다.⁴⁸

⑤ 제 5단계: 자아정체감 대 정체성 혼란

(Identity vs. Identity Confusion 청소년기, 12 세~18 세)

이 시기는 프로이트의 생식기(The Genital Stage)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청년들은 심리 성적 발달의 이전 단계에 고착되어 있지 않는 한 생식기로 넘어가며 신체적 성장과 성적 성숙이 급격히 발달하여,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⁴⁷ E. H. Erikson, *Insight and Responsibility*, p. 124. Piaget의 발달이론에 따르면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므로, 심리성적 발달면에서는 잠복기로서 비교적 평온한 상태라고 하지만, 인지적 발달면에서는 결코 소극적인 조용한 시기가 아니다.

근면성(Sense of industry)은 외부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과 태도를 뜻하는데, 성공의 경험을 통해서 아동의 성취동기나 유능감(feelings of Competence) 발달하므로, 아동은 자긍심을 갖게 되어 생산적 인간으로서의 정체감의 감정을 발달시킨다.

그러나 성공적인 경험보다 실패의 경험이 많은 아동은 도전에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생각에서 열등감이 발달하게 되어 외부세계에 대해 스스로 부정적 성격을 형성하기 쉽다. 이런 열등감은 전단계에서 성공적으로 갈등은 극복하지 못했을 때나, 학교나 사회가 아동에 대한 편견적 태도를 취할 때 발달되기 쉽다.

⁴⁸ G. Corey,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조현춘, 조현재 공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1996), pp. 158-59.

표현되는 시기이다.

생리적인 변화와 성기관의 성숙으로 이성애에 관심을 보이고, 성적 시도를 하고,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갖기 시작한다. 성인으로 성숙해 감에 따라 친밀감을 형성하고, 부모의 영향력에서 점차 자유로워지며, 타인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자기애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행동과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인지발달이 일어남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며,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시기로 이런 질문은 자신의 감정에 의해 나타나는 기본적인 질문이면서, 사회에 의해 주어지는 질문이기도 하다.

정체감 형성(Identity)이 전생애에 걸친 과정이라 할지라도, 정체감 문제는 청년기에 위기를 맞게 된다. 왜냐하면 많은 내적 변화가 일어나고 미래의 참여에 대한 많은 것이 문제되는 때가 이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부정적인 측면은 정체성 혼란(Identity Confusion)이다. 이것은 직업적인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했거나, 어떤 사회적 가치나 이상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거나, 자신에 대해 신뢰하지 못했을 때 생겨나게 된다.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고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었을 때 충성(Fidelity)라는 힘이 축적된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가치체계의 상충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사에 의해 자신이 공약한 충성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다.⁴⁹

⁴⁹ E. H. Erikson, *Insight and Responsibility*, p. 125.

정체성이란?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자기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람들을 동일시하는데 성장 과정에서 동일시는 단순한 집합으로 개인의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분적인 동일시들이 개인의 고유한 전체성과 통합되어 나아갈 때 이관된 자아정체성을 이룰 수 있다.

자아정체감의 형성은 청소년기에 시작하는 것도 끝나는 것도 아니다. 의식되지 않은 채 일생 동안 계속되는 발달이다. 정서적 안정과 좋은 성 역할의 모델이 있으면 자신에 대한 통찰과 자아정체감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직업선택이나 성 역할, 가치관의 확립에 있어 심한 갈등을 야기시킨다.

이 시기의 자아정체감의 획득은 기본신뢰감이 아동기의 새로운 경험세계에 돌입할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처럼, 앞으로 성인생활의 도전 즉 배우자 선택이나, 직업선택 및 사회활동에 대응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기 때문에 신뢰감이 형성되는 제1단계에 못지 않게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⑥ 제 6단계: 친밀감 대 고립감

(Intimacy vs. Identity 성인전기 18 세~24 세)

성인전기(Young Adulthood)라고 불리는 단계로, 이 단계 이후로 에릭슨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넘어서서 자신의 독자적인 이론을 정립하고

그러나 실제로 어떤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던가, 혹은 성취를 위한 지속적인 참여를 할 수 없을 때 청소년들은 자신의 능력을 종종 고통스럽게 느끼게 된다. 또한 그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결정하고 성취해야 할 일들이 많기는 하지만, 어떤 결정을 너무 서둘러 내리면 그것이 미래의 다른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참여와 성취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찾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일종의 심리적 유예기간을 갖는다.

청소년기는 지금까지 형성된 값진 것들이 전혀 새로운 가치와 이념으로 전환되는 혁명의 시기이며 위기의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청소년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이며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나는 장차 어디로 갈 것인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는 것이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자아정체감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의 특정한 역할, 가치관의 달성을 통해서 획득되는 자기가치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평가 즉 자존감정이다.

있다.

사춘기가 끝나면 초기 성인기에 접어드는데, 이 시기는 바로 그 사람의 인생모습이 결정되는 때이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스스로 삶을 즐기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보살핌을 넓혀가고 감화시키는 단계를 나타낸다. 이 시기의 청년은 매우 자기몰두적이어서, 이들은 자기가 누군지,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이성에게 매혹되어 사랑에 빠지기도 하지만, 이러한 애착은 대부분이 자기 정의(Self- Definition)를 위한 노력인 것이다. 이성과의 상호작용에서 청년들은 자신의 진정한 감정, 서로를 보는 관점, 자신의 미래계획, 희망, 그리고 기대에 관해 끊임없이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이 누구인지를 되찾으려 한다.⁵⁰

이 단계에서는 부모, 배우자, 이성, 동료 등과 좋은 인간관계를 발전시키면 친밀감을 갖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타인에 대한 두려움과 고립감이 생긴다. **진정한 친밀감은 합리적인 정체감이 형성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확고한 정체감을 가진 사람만이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확고한 정체감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자신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로 인해 배우자는 물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고립하여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된다.**

⑦ 제7단계: 생산성 대 자기침체

⁵⁰ E. H. Erikson,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Vol. I, No. 1),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59, p. 95.

(Generativity vs Stagnation 성인중기 24 세~54 세)

이 시기는 성인중기로써 이전단계까지는 자아정립을 위한 준비단계였다면 중년기(Middle Adulthood)는 정립된 자아를 통해서 자신과 타인, 이웃과 세계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창조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학습하는 시기로서, 생애에 있어서 가장 생산적인 시기 중의 하나이다.

자신에게 몰두하기보다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문제에 집착하며, 직업을 통해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시기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사회 심리적으로 침체된다.

생산성은 넓은 의미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작업을 통하여 물건을 만들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의미하긴 하지만 자녀를 돌보는 것에 더 중점을 둔다. 부모들이 자식을 갖는 것은 자식을 적절하게 양육하고 지도하는 것과 그 동안 축적해 온 희망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의미가 있다.

생산성이 결핍되게 될 때의 결과는 성격이 침체되고 불모화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종종 일종의 유사친밀(a sense of generativity)로 퇴행하거나 마치 그들이 혼자이고, 외아들인 것처럼 스스로에 빠져들기 시작한다.⁵¹

이 단계에서 더 이상 발달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신들의 아동기가 너무 공허하고 좌절적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더 잘해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너무 독립적이고 성취를 강조할 경우

⁵¹ Ibid. p. 87.

배타적이되어 자신의 성공에만 열중하게 되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책임에 대해 경시하게 된다.

⑧ 제8단계: 통합성 대 절망감

(Integrity vs. Despair 성인후기 혹은 노년기 54 세 이후~)

노년기(Maturity)는 인간의 모든 갈등이 조화롭게 통일되며, 성숙한 경지에 도달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첫째로 자신의 삶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삶을 만족과 감사로 받아들이며, 심지어 자신의 죽음까지도 받아들이고 죽음으로 끝나는 생애주기를 초월하려는 궁극적 관심까지도 갖게 한다.⁵²

노년기는 반성의 시기로 자신의 생애가 무의미한 것이었다고 느끼게 되면 절망에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이런 절망 속에서도 자신은 그때 그럴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 보람을 느끼게 되면, 인생에 대한 참다운 지혜를 획득하게 된다.

후회가 별로 없다는 느낌을 가진 사람들은 자아 통합감을 성취한 것으로, 자기의 과거에 대하여 실존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고 자신의 존재가 후계나 창조적 업적을 통하여 계승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도 있었던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이 한 것으로부터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자아통합감을 성취하지 못하면 낙심, 절망, 죄책감, 분노, 자기 혐오의 감정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전부 생각하며 또 한번의 기회를 몹시 갈망하기도 하지만, 생애를 헛되이 낭비하였다는 생각은 절망감을 느끼도록

⁵² E. H. Eri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1968, p. 140.

한다.⁵³

지금까지의 인생에 만족하면 생의 유한성도 수용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공허함과 초조함을 느끼며 절망감을 느낀다.

에릭슨의 이론은 프로이트의 이론과는 달리 자아의 발달과 기능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연령적 단계에 따라 인생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새로운 성장이 생기며, 그 성장은 인생단계에 따라 끊임없이 진행되고 성장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에릭슨이 말하는 발달 단계에는 각 단계별로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각 단계는 모두 ‘발달적 위기’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런 각 단계의 위기는 대립되는 성격의 특성에 의해 표현된다.

셋째, 각 단계의 위기 해결은 그 단계의 위기를 나타내는 상호 대립된 특성의 영속적인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의해 행해진다. 즉 대립되는 특성들 가운데 긍정적인 면 또는 부정적인 면 중에서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게 되면, 발달에 있어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넷째, 각 단계는 각각 이루어야 할 발달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과제의 달성은 다음 단계에는 장애가 되는 것이 없는 전체적 발달로써 보다 좋은 전망을 가지면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사람은 각 단계의 특징적인 과제에 진전하도록 동기가 유발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들 과제는 사회 구조에 의해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 인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선택과 도전으로부터 성립되어 있고, 어떤 단계의 과제를 달성할 수 없으면 다음 단계의 과제로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되어

⁵³ G. Corey, 조현춘, 조현재 공역, 「심리상담과 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1996), p. 160.

있기 때문이다.⁵⁴

에릭슨의 이론의 가장 큰 장점은 인간은 심리학적, 사회적 존재이며 대외적인 힘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인간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나) 에릭슨과 수퍼에고

프로이트가 성격은 주로 본능이나 부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지만, 에릭슨은 개인은 그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위치한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관계가 있어, 부모, 형제자매, 다른 사람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즉 자아가 형성되는 심리 역사적 환경을 중요하게 여겨 자아발달이 사회제도와 변화하는 가치체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였다.

(3)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 THEORY)

대상관계이론(object relations theory)은 현대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이론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에서도 최근에 대상관계이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상담 영역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이 이론은 한 사람에게 의한 단일 이론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론으로 구성되고, 그 이론들 사이에는 쉽게 해소될 수 없는 견해의 차이와 모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다양성과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대상관계라는 하나의

⁵⁴ 아청, 「아이덴티티의 탐색 II」,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5), pp. 11-12.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것은 이론들의 기본 구조가 대상관계적 모델에 속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그린버그(Greenberg)와 미첼(Mitchell)은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이론」에서 대상관계이론의 기본적 모델을 프로이트의 기본모델인 본능구조(Drive structure) 모델과는 다른 관계구조(Relation Structure)모델이라고 명명하고 있다.⁵⁵

프로이트는 개인의 본능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선택하는 사람 또는 사물이라는 의미로 ‘대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1923년 발표한 자아와 원본능이라는 논문에서 “인간이 성적 대상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때 종종 자아의 변화가 뒤따른다. 그것은 자아 내부에 대상이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초기 발달단계에서 그 과정은 매우 빈번하며, 자아는 포기된 대상에 대한 리비도 집중이라는 기본 재료로 구성되며, 그것은 또한 그런 대상-선택(Object-choice)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다.”⁵⁶

원래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대상은 리비도(Libido)적 대상을 말한다. 이 대상은 사물이라는 의미와 함께 목표나 표적이라는 뜻을 동시에 담고 있는 욕동의 표적이 되는 사물을 말한다. 따라서 정신분석의 ‘대상’은 단지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실체들을 뜻하는 학술적 심리학의 대상 개념과는 다르다.⁵⁷

⁵⁵ J. R. Greenberg and S. R. Mitchell, op. cit. p. 45.

⁵⁶ 이승구, “자아-이질적 동성애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웨스트민스터대학원대학교, 2006), p. 3.

⁵⁷ J. R. Greenberg and S. R. Mitchell, op. cit. p. 34.

프로이트의 고전적 정신분석이론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욕동(Drive)⁵⁸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했다면, 프로이트 이후 대상관계 이론에서 ‘대상’이란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가 아닌 ‘사람’을 의미하며, 주체와 관계를 맺는 실제 외부세계 사람들과 내적으로 형성된 그들의 이미지들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대상관계란 한 개인이 외부의 실제 타자들과 내적인 상상적 타자들과 이루는 상호작용으로 내면화된 사람의 표상을 의미하며, 인간을 근본적으로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한다.⁵⁹

그 대상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생각이나 집착의 대상이 되는 다른 생물체, 또는 그렇다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 어떤 무생물체까지 포함한다. 즉 대상은 타자를 의미한다. 아기는 대상과 상호작용하면서 상대방과 자기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고, 그의 행동에 기대를 가지며 그와 관련된 상황 맥락에 대한 표상을 형성한다⁶⁰고 하였다.

박주영은 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에 관한 연구에서

“전통적인 프로이트 이론은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면서

⁵⁸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동기를 부여하는 기본적 생물학적 힘을 표현하는 프로이트이 개념으로 흔히 본능적 욕동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두 가지 욕동에는 성욕 욕동과 공격적 욕동이 있다.

⁶⁰ Michael St. Clair, 「인간의 관계 경험과 하나님 경험」,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서, 1998), pp. 17-20. 일반적으로 양육자(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이미지와 어머니가 만들어준 아이의 이미지가 무의식의 세계에서 상호 작용하는 것을 칭하는 개념으로서 아이가 갖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준거가 될 수 있다. 대상관계이론은 한 개인이 실제로 타인들과 맺는 관계양식뿐만 아니라 그가 맺는 내적 대상들이 갖는 심리적인 기능을 밝히고자 하는 이론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상대적으로 미루어졌다는 점이다. 한편 대상관계이론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비판 수정하면서 프로이트가 이론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전-외디푸스적 어머니의 역할과 위상을 부각시킨다. 즉 대상관계이론은 가부장적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오히려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갈등에 주목한다. (중략) 대상관계 이론의 시작과 함께 아이의 발달과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그녀의 권위가 프로이트가 지적하는 가부장적 아버지의 절대적인 힘과 권위의 영역으로까지 중요하게 부각된다. 다시 말해 대상관계 이론은 아버지 중심의 정신분석 구도를 어머니 중심의 구도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⁶¹

예를 들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Cinderella가 왕자와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고 가정해 본다면, 전통적인 프로이트 학파에서는 Cinderella의 문제를 자아와 이드의 구조 사이에 방어와 갈등으로 분석하거나 자신의 성적 본능과 부모에게 가졌던 미해결된 오이디푸스 감정을 Cinderella가 억압시켰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하지만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Cinderella가 어머니의 사망으로 인해 경험하게 된 초기의 심리적 박탈감(유기)으로 고통을 당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것이다. 이와 같이 프로이트가 세운 고전적 정신분석이론이 인간을 근본적으로 욕동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 대상관계이론은 인간을 근본적으로 대상과의 관계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로 이해한다.⁶²

대상관계 이론은 인간이 타인과의 관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을

⁶¹ 박주영, “환상 안에 있는 고딕 어머니: 멜라니 클라인의 대상관계 이론에 관한 연구”, (충남: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논집 제 13 집, 2004), pp 57-58.

⁶² 김미혜 김정미 박지연 공저, 「대상관계이론」, (서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Vol No.1, pp 72.

기초로 성숙과 발달의 과정을 이루어 나간다는 점을 전제로 하여, 개인이 생의 초기로부터 관계 경험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규정짓고 관계를 유형화하는 과정을 통해 성격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밝히는 이론이다.

넓은 의미에서 대상관계이론은 사람들은 외부세계와 내적 세계를 동시에 살아가며, 어떤 이들에게 외부세계와 내적 세계는 서로 상호 침투적인 것이고 또 다른 이들에게 이 세계는 엄격하게 분리된 것이라는 놀라운 임상적 관찰을 설명하려는 노력이다. 따라서 대상관계라는 말은 한 개인이 실제로 사람들과 맺는 관계뿐만 아니라 그가 맺는 내적 대상과의 관계 그리고 그 내적 대상들이 가지는 심리적인 기능을 밝히고자 하는 이론들이나 이론들의 측면을 가리킨다.⁶³

결론적으로 대상관계이론은 유아의 관계성에 대한 욕구로부터 인간의 동기 원리를 도출해내고 정신분석 치료의 일차 목표를 초기 관계 경험에서 유래한 대상관계의 수정으로 보는 모든 이론을 포괄한 개념인 것이다.

프로이트 이후, 대상관계이론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한 의미와 형태로 사용된다. 대상관계이론은 Klein에 의해 창시되었는데 에딘버러의 Fairbairn과 생각을 교환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대상관계이론의 지평을 열었으며, 이들과 함께 Guntrip, D. W. Winnicott, Bowlby, Bion이 영국에서 활동했다면, Hartmann, Margaret S. Mahler, Kernberg, 그리고 자기 심리학자인 H. Kohut 등이 미국에서 활동하며 정신역동적인 관점인 대상관계학파를 형성하였다.⁶⁴

이들 이론들은 각자의 관심과 성향에 따라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⁶³ J. R. Greenberg and S. R. Mitchell, op. cit. p. 31.

⁶⁴ 이재훈, “대상관계이론과 목회상담”, 「실천신학논단」, (서울: 기독교서회, 1992), p. 392.

인간을 관계(relation)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존재로 자기 체계 속에 갇힌 존재가 아닌 근원적으로 대상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로 보았다.

최근까지 진행되어온 여러 정신분석학과에서 대상관계라는 용어를 다양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⁶⁵

첫째, 대상관계의 의미는 실제 외부세계의 사람들과 내적으로 형성된 그들의 이미지를 포괄하는 것이다.

둘째, 타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다양한 경험들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셋째, 실존하는 존재로서의 타자와의 관계를 말한다.

넷째, 대상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심리적인 상황에 따라 조종 또는 변경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가) 멜라니 클라인(Melanie Klein, 1882-1960)

클라인은 프로이트의 이론에 충실했으며, 자신의 연구는 프로이트의 연구 결과를 좀더 발전시킨 것이라고 믿었다. 정신분석 이론을 어린이 놀이치료에 적용하는 것(1920년대)을 통해서 프로이트가 믿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이미 초자아의 초기 형태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고, 이 발견을 통해서 프로이트 심리학이 기초해 있는 오이디푸스 시기보다 훨씬 앞선 전 오이디푸스기의 심리적 발달과정의 중요성이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어린 아이들이 갖는 무의식적 환상 과정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며, 프로이트가 말하는 욕동이라는 것도 사랑하기도 하고 증오하기도 하는 대상관계들로 구성되어 있는 정신 실재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⁶⁵ J. R. Greenberg and S. R. Mitchell, op. cit. pp. 34-36.

그녀로 하여금 유아의 심리발달에 대한 초심리학적이론의 확립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로써 정신병과 우울증의 발생학적인 근원에 대한 이해에 커다란 빛을 주었다.⁶⁶

① 놀이와 환상(Phantasy)

클라인의 이론은 놀이를 통해서 아동을 직접 분석하는 임상적 연구의 결과로 형성된 것이다. 1912년 이후 프로이트의 이론을 접목시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치료를 행하였고, 1917년 처음으로 아동의 치료에서 장난감을 사용한 놀이에서 해석하지 않고 놀이⁶⁷를 통해 아동들의 내면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을 시도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1923년에 아동 분석의 원리와 기술을 완전히 확립하였다.

아동에게 있어서 환상은 정신기제 발달에 중요한 힘으로 태어날 때부터 가능하며, 추동의 심리적 표현이라고 보았다. 또한 환상을 창조적 능력으로 유아가 자기 자신을 대상에게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환상을 통하여 세상과 접하며 어머니와 소통한다

② 편집-분열적 자리(Paranoid-Schizoid position)

멜라니 클라인은 인간의 심리적 상태를 두 가지 근본적인 자리(position)

⁶⁶ Hanna Segal, 『멜라니 클라인』,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⁶⁷ 클라인은 자신의 분석방법을 놀이 기법(Play Technique)이라고 불렀다. 그녀는 1920 경부터 개발하기 시작했다. 아동분석을 위한 방법은 R.D. Hinshelwood, 「임상적 클라인」,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6), p. 59ff. 참조

즉, 편집-분열적⁶⁸ 자리(paranoid-schizoid position)와 우울적 자리(depressive position)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와 유사한 것으로, 자리(Position)⁶⁹는 불안, 환상, 방어, 대상관계 등으로 구성되며 주체가 인생의 과정에서 언제라도 다시 들어설 수 있는 심리적 공간이다.

클라인은 유아가 생후 몇 달 안에 프로이트의 죽음의 본능과 관련된 경험을 가진다고 보았다. 가장 초기의 발달단계인 편집-분열적 자리(Paranoid-Schizoid position)는, 생애 첫 해의 전반기 이내에 정점에 이르는데, 유아는 어머니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을 갖게 된다.

클라인에 따르면 신생아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과 죽음의 본능을 배가 고프 때 즉각적으로 제시되는 어머니는 젖가슴으로 대표되는 대상과의 관계에서 충족한다. 그러나 이 초기 대상관계 경험은 수유를 통해서 배고픔을 해소하는 좋은 젖가슴과 즉각적으로 제공되지 않을 때 경험하는 나쁜 젖가슴으로 분열되어 부분대상으로 경험하는데 이 시기를

⁶⁸ . 편집적(paranoid)이라는 것은 유아가 외부의 나쁜 대상인 가슴으로부터 박해 받는다는 지속적인 두려움을 가지기 때문이고, 분열적(schizoid)이라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열(splitting)하는 경향성으로 부터 나왔다.

⁶⁹ 클라인은 프로이트의 ‘단계(stage)’라는 용어보다는 ‘자리(position)’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인간의 발달이 일정한 순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단계들이 서로 중복되고 융합되는 과정을 거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유아의 정신발달은 되돌아가는 것이 없는 완전한 단계의 연속이라기보다는 안과 밖의 변동과정으로, 어떤 심적 상처에 의해 일시적이거나 만성적 상황때문에 발생하는 퇴행이 있기 때문이다. 성장과정은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으로, 심리적 특징들이 환경의 변화와 정서적 상태에 따라 반복되고 있다고 보았다.

편집-분열자리라고 불렀다.⁷⁰

만약 분열적 자리에서 엄마와의 대상관계가 적절하고 원만하였다면 아이는 우울적 자리에서 엄마라는 대상에 대한 양가감정을 통합해내어 자신이 미워하고 증오했던 어머니에 대한 나쁜 대상들을 애도할 수 있게 된다.

편집-분열적 자리의 특징은 분열과 방어기제의 우세성, 부분적 대상관계, 자아의 보존이나 생존에 대한 편집적인 두려움이 특징이다. 이 자리는 유아의 투사와 내재화의 반복이며, 유아는 선한 어머니와 악한 어머니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까지 계속한다.

결국 편집-분열적 자리는 유아가 나쁜 대상을 파괴하고 제거하여 좋은 대상만을 남겨두어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③ 우울적자리(Depressive Position)

클라인은 “조울 상태의 심리발생론에 대한 기고”에서 우울적 자리라는 개념을 소개하였다. 그녀는 아동의 심리적 기구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생후 처음 몇 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이 사실은 성인의 정신분석

⁷⁰ 유아가 처음으로 관계 맺는 대상은 부분 대상으로서의 어머니의 젖가슴으로, 아이의 욕망의 대상이 되는 이상적인 젖가슴과 증오와 공포의 대상이 되는 박해적인 젖가슴으로 나뉜다. 생후 첫해의 후반기 동안에 아이의 통합적 인식 능력이 자라면서 아이는 어머니를 하나의 전체적인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변화를 우울적 자리의 시작으로 보았다.

좋은 젖가슴은 좋은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은 자신에게 전능감의 환상을 갖게 해주는데 비하여, 나쁜 젖가슴의 반복경험은 어머니를 박해자로 내재화된 부분대상으로 경험하게 된다. 자아 통합 능력의 미성숙으로 유아는 나쁜 대상관계 경험에서 전능감의 좌절을 느낄 수 밖에 없고 이 때 발동하는 파괴 본능을 불안을 유발시켜, 이 불안을 떨쳐버리기 위해, 어머니의 젖가슴에 자신의 공격성을 투사한다. 따라서 젖을 제공하지 않는 어머니에게 향한 공격성은 자신이 어머니로부터 공격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경험되는데, 신생아가 느끼는 불안을 편집증적 불안이라 부른다.

과정 속에서 확인되었다.

클라인은 생후4-5개월이 되면 유아는 어머니를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둘 다 주는 전체대상으로 경험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어머니를 전체대상으로 보는 순간 유아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원천인 어머니에게 필연적으로 양가감정을 갖게 되므로 자신 안에 존재하는 파괴본능이 좋은 어머니 대상을 해칠까 두려워하는 우울 불안을 경험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유아는 대상에 대한 사랑 증오 그리고 심리내적 현실과 환상과 외적 현실까지도 역동적으로 통합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제를 안게 되는 것이다. 어머니로 대표되는 한 대상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며 또 나의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고 좌절시키기도 하는 관계 경험에서 파생되는 혼란과 대상상실에 대한 불안은 죄책감의 발달로 이어진다. 유아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어머니를 미워하기도 하면서 자신 안의 좋은 대상이 파괴되는 것을 경험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기의 유아들이 자신이 내재화한 좋은 대상을 유지하지 못할 까봐 본능적으로 두려워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통합되어야 하는 자아가 파괴 될 것이라는 위협을 느끼고 두려워하면서 좋은 대상을 복구하려는 노력을 필사적으로 한다고 보았다.⁷¹

편집-분열적 상태의 특징인 피해적 두려움과 대조적으로, 우울적 자리에서 우세한 두려움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공격이 아니며, 좋은 대상 및 외부대상에 해를 끼치는 것에 관한 것이다.

클라인은 편집-분열 자리와 우울적 자리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세울 수 없다고 보았다. 두 자리는 중첩되고 두 자리 사이에서의 변동은 언제나

⁷¹ 안명희, “양육적 모성과 충분히 좋은 엄마의 고찰 대상관계 이론 중심으로”, 동덕여성연구 Vol. 8: (동덕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02), p. 152, (재인용)

발생하고, 이는 정상 발달의 한 부분이다. 유아가 우울적 자리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불안을 촉발하는 상황은 예기치 않게 닥치며 그러한 경우 유아는 편집-분열 자리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편집-분열적 자리는 사실상 공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⁷²

④ 멜라니 클라인과 수퍼에고

클라인은 프로이트의 이론적 틀인 자아, 초자아, 그리고 원본능 간의 상호작용에 대하여 서술한 구조적 틀을 사용하여, 편집-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에의 개념은 이 구조적 이론을 확장하여 설명하였다. 자아와 초자아 역시 이 구조적 측면에서 더 상세히 분석된다.

프로이트는 4세 이후에 초자아(자아비판 기능을 하는 한 부분)가 발달하는 것으로 보았지만, 클라인은 생후 1년이면 초자아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1958년에 집필한 “정신기능의 발달에 관하여(On the Development of Mental Functioning)”에서 대상관계, 생명본능과 죽음 본능이라는 관점에서 정신구조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녀의 초기논문에서 원초적인 대상, 즉 이상적인 부분 대상 및 박해적인 부분 대상이 초자아의 근원이며, 이것이 우울적 자리에서 통합된다고 강조한 반면, 이 논문에서는 초자아가 처음부터 어느 정도 통합을 이루고 있으며, 그러한 원초적 대상들은 분열되어 그녀가 “깊은 무의식”이라고 서술한 것으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초기 논문들에서는 원초적 대상이 통합될수록 그리고 불가피하게 남아 있는 부분

⁷² 박선영, “멜라니 클라인의 아동정신분석: 이론 및 임상체계의 재구성,” (박사학위논문,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2003), p. 329.

대상관계와 관련하여 분열의 정도가 약할수록, 개인의 정신건강의 예후가 좋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와 반대로 그러한 원초적 대상들은 분열되어야만 하고 이러한 분열에 실패했을 때 정신병적 장애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모순점은 이상적인 자아 통합의 상태는 결코 성취될 수 없으며, 원초적 박해 대상은 통합된 부문과 남아 있는 편집-분열적 대상간의 상대적인 힘의 문제이다.⁷³

클라인은 자신의 구조 이론에서, 내적 대상들이 어떻게 발생하며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분명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내적 대상의 개념은 그녀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프로이트는 정신 구조 안에 있는 내적 대상인 초자아를 내사된 부모상이라고 설명했고, 클라인은 이 개념을 확장시켜, ‘아이가 동일시하지 않는 모든 내적 대상들’을 초자아라고 불렀다. 초기 논문들에서 클라인은 내적 대상이 초자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내면화된 대상은 즉시 초자아의 기능을 떠맡는다. 따라서 초자아는 ‘내면화된 대상의 집합’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1946년 이후 클라인은 내적 대상과 갖는 관계의 복잡성을 알고 나서 “초자아’를 단지 대상의 징별적인 측면에 대한 용어로 남겨둔 채, 내적 대상과 그것이 갖는 특징 및 기능에 대해 자주 언급하였다.⁷⁴

클라인은 내적 대상이 가지는 역할을 강조하여, ‘최초의 좋은 내적 대상은 자아의 핵심적 구성요소로 작용한다. 그것은 분열과 분산을 막아주며, 응집성과 통합에 기여하고 자아를 확립하는 도구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내적 대상들은 구성하는 것이 자아인지? 아니면 초자아인지? 또는 모두를

⁷³ Hanna Segal, 『멜라니 클라인』,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pp. 171-172

⁷⁴ Ibid, p. 71

구성하는지를 해결하기 위해 그녀는 서로 모순된 두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는 초자아는 자아가 분열됨으로써 생겨나는 후기 발달과정의 결과라고 제안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아와 초자아는 동일한 좋은 대상이 지닌 다른 측면들을 나누어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클라인이 자아와 초자아를 구별하는 것은 정신적 기구의 조절 기능과 그 조절을 돕도록 내면화한 부모의 상을 구별하기 위해서였다. 클라인에게 있어서 성격은 내적 대상과 관련된 환상에 의해서 구성된다. 그 내적 대상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동이 선협적으로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한 사랑과 증오의 감정이다. 내적 대상관계는 경험이 기본이 되는 하부구조와 성격 전체의 내용을 구성한다. 욕동과 욕동 조절기능을 자아와 초자아로 분리하는 것은 클라인의 체계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⁷⁵

(나) 페어베언(W. W. D. Fairbairn, 1889-1964)

W. Ronald D. Fairbairn⁷⁶은 인간본성을 관계모델로 규정함으로써 종교에

⁷⁵ J. R. Greenberg and S. R. Mitchell, op. cit, pp. 246-247.

⁷⁶ 1911년 에딘버러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의사가 되기 전에 철학자로서 훈련 받아 냉철하고 비판적인 태도로 냉철함과 논리적인 사고체계로 정신분석이론을 지적인 토대에서 수정하였다. 이후 목회자가 되기 위해 런던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였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에 참전 후 의대에 진학하여 정신의학을 공부하여 정신과 의사와 정신분석가가 되었다. 그는 프로이트 이론의 일관성 없음에 대하여 반대 견해를 표명하면서, '대상관계'라는 용어를 심리내적 상태에 대한 새로운 이론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페어베언은 의학수련을 받았고 신체 증상에 관해 관심을 가졌으며, 철학, 헬레니즘 연구, 신학 -특히 자기와 타자, 정신과 욕망에 대한 헤겔(1807)의 글의 영향을 받았으며, 유아와 타인에 대한 유아의 욕망, 성숙하려는 유아의 욕구에 대한 철학적인 관점을 취하였다. 그의 주된 관심을 새로운 임상적 치료법에 있지 않고, 프로이트의 리비도 이론과 심리성적 발달 이론의 원리에 도전하였다. J. R. Greenberg and S. R. Mitchell, op. cit, p. 249

대한 정신분석의 관점을 전환시킨 이론가로 인정받는다.

페어베언의 연구의 핵심은 프로이트의 욕동이론의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기초 과학의 원리를 토대로 프로이트의 이론을 재해석한 데에 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개념이 대상추구적 리비도와 내적 대상관계이다. 그는 리비도 에너지가 대상을 추구하고, 쾌락은 충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에너지와 구조를 분리할 수 없다고 보아 초자아와 자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대리자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대상추구적 리비도’의 개념이 되었고, ‘내적대상관계’는 타자와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보상적인 내적 대상들이 발생하여 자아의 분열을 야기 시킨다는 그의 생각이 담겨있다.⁷⁷

페어베언이 클라인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그는 1941년의 논문인 “A Revised Psychopathology of the Psychoses and Psychoneuroses(정신병과 정신 신경증에 관한 새로운 병리학)”을 발표하면서 고전적 리비도 이론과 결별한다. 그는 이 논문에서 인간이 쾌락이라는 생물학적 본능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보다는 대상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주장함으로써 대상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런 점에서 학자들은 페어베언을 순수한 의미에서 대상관계이론의 선두 주자로 인정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초기 구강기에 해당하는 첫 6개월 사이에 발생하는 근원적인 심리적 상처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정신 병리의 이해에 크게 기여하였다.

페어베언의 성격발달단계는 초기 유아적 의존 단계, 과도기적인 중간

⁷⁷ J. R. Greenberg and S. R. Mitchell, op. cit, pp. 201-203.

단계, 성숙한 의존 단계를 거친다.⁷⁸

① 초기 유아적 의존 단계

어머니의 자궁에 있던 유아는 출생과 더불어 어머니와 분리된다. 유아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태어나서 초기 몇 개월 동안의 심리상태는 어머니와 전적으로 융합되었던 출생 이전의 정신상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 이때의 유아는 자신의 환경 자체이자 경험의 세계인 어머니의 신체로부터 자신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한다. 유아가 이 시기 동안에 타자들과 접촉하는 관계의 방식을 ‘일차적 동일시’로 ‘주체와 분리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리비도 집중’이라고 정의한다. 유아는 어머니의 존재와 돌봄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데, 유아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주요한 관계 방식들, 즉 빨기(Sucking), 취하기, 흡입하기 등을 통하여 어머니와 하나가 되려고 애쓴다. 이 시기는 유아가 어머니와 전적으로 융합된 상태 즉 ‘대상과 동일시된 상태’에 있다.

② 과도기적인 중간 단계⁷⁹

첫 단계와 세 번째 단계를 교량적 역할을 하는 단계로 핵심적인 요소는 분리 과정이다. 이 단계는 분리와 교환을 기초로 한 관계를 받아 들이기 위해 일차적 동일시를 포기하고 융합한 대상들에 대한 강박적인 애착을 포기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 가장 큰 공포는 대상으로부터 분리되는

⁷⁸ J. R. Greenberg and S. R. Mitchell, op. cit, pp. 261-265.

⁷⁹ 유아적 의존과 성숙한 의존 사이의 과도 단계 또는 준 의존 단계라고도 한다. 이 단계는 말러의 분리개별화(Separation- Individuation)단계의 견해와 가깝고, 위니콧도 이 시기에 중간영역을 설정하여 환상의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여 내적 대상의 유용성을 인정하였다.

것과 대상을 상실하는 것이다. 대상을 추구하는 리비도적 특징들을 가진 자아는 대상들의 현존을 필요로 하는데 성숙에 도달하기 위해서, 아동은 실제 부모에 대한 관계와 내적 대상들에 대한 강렬한 애착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내적 대상들은 아동에게 부모와의 현실적 관계에서 결핍된 안전감과 지속성을 제공해주므로 아동이 내적 대상들을 포기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런 분리와 포기과정이 일어나기 위해, 아동은 고유한 권리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 사랑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또 자신의 사랑이 환영 받을 만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아동이 유아적인 내적 대상들을 포기하면, 자아의 분열은 사라지고 자아의 본 모습인 온전성과 너그러움이 나타난다. 이 단계는 매우 힘든 발달과정으로 아동의 중간단계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③ 성숙한 의존 단계⁸⁰

페어베언은 정서적으로 완전한 발달을 이룬 건강한 상태를 ‘성숙한 의존단계라고 불렀다,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유아와는 달리, 건강한 성인은 정서적으로 상호의존적이다. 유아가 그의 유일한 대상인 부모에게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것과 달리, 어머니와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는다. 성숙한 의존은 항상 다른 대상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조건부 의존이다. 성숙한 의존은 ‘분화된 개인은 분화된 대상들과의 협력적인 관계들을 맺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계의 강조점이 받는 것(Taking)에서 주는 것(Giving)과 교환하는 것(Exchange)으로 바뀐다.

⁸⁰ 주는(Giving) 태도가 주된 특징이 되는 성숙한 의존 단계라고도 할 수 있다.

④ 페어베언과 수퍼에고

프로이트는 「자아와 원본능」에서 자아의 억압적 기능에 대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아가 초자아의 명령에 따라 억압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초자아가 ‘원본능이 최초의 대상-선택을 위해 사용하고 남은 잔여물’을 나타낸다면, 심리내적 구조는 본질적으로 자아가 관계하는 내재화된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프로이트가 지적한 대로 동일시 과정에 기초해 있다. 자아의 초자아와의 동일시는 물론 결코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억압이란 그것이 존재하는 한 자아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인 내재화된 대상과 갖는 관계의 기능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즉 초자아는 원본능이 최초의 대상을 선택한 후에 남은 잔여물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또한 그런 선택에 대한 강력한 반동형성을 나타내는 것이다.⁸¹

초자아는 대상관계를 통제하려는 수단인 동시에 대상관계의 산물이다. 그리고 초자아는 그 자체로서 내적 대상이다. 프로이트 이론에 유일한 내적 대상은 초자아였다. 그리고 이 정신 구조에 부여된 역할은 양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내적 부모의 역할 이었다. 클라인은 이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여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 호의적인 대상과 박해적인 대상 그리고 전체 대상과 부분대상이 존재하며, 이런 다양한 대상들이 내사되는 것은 구강기 동안 발생하는 구강적 함입의 결과로 간주된다. 죄책감이나 개인적인 도덕적 나쁨의 느낌은 대상이 지닌 나쁨에 대한 느낌보다 이차적인 것이다. 그리고 죄책감은 자아가 좋은 것으로 간주되는 내적 대상으로서의 초자아와 갖는

⁸¹ Fairbairn, W. Ronald D, 「성격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3), p. 82

관계 그리고 나쁜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내적 대상들과의 관계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긴장의 산물로 보인다. 따라서 죄책감은 나쁜 대상들과의
관계에 대한 방어로 볼 수 있다.⁸²

프로이트는 억압의 촉발자로서 초자아는 억압된 내용 그 자체만큼이나
무의식적이라고 하였지만 왜 초자아가 무의식 안에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페어베언은 초자아 자체가
억압되었다고 한다. 초자아는 내재화된 나쁜 대상의 분열에 기초해 있어
나쁜 대상의 억압⁸³은 그 대상과 리비도에 묶여있는 자아의 한 부분의
억압을 수반한다. 내재화된 나쁜 대상은 흥분시키는 측면과 거절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흥분시키는 대상의 억압은 자아의 분열과 그 분열된 자아의
부분에 대한 억압을 가져오는데 이것을 리비도적 자아로 불렀다. 또한
거절하는 대상의 억압 또한 자아의 분열과 그 분열된 부분에 대한 억압은
내적 파괴자로 초자아와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아의 이 부분은
거절하는 대상과 동맹을 맺음으로 리비도적 자아와 적대적이 되며, 이
적대감은 ‘간접적인 억압’으로 중심적 자아가 리비도적 자아를 억압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용하며, 프로이트가 억압이론의 기초로 삼은 것과
같은 것이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원본능은 구조 없는 에너지의 원천이며,
자아와 초자아는 원본능으로부터만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에너지 없는

⁸² Fairbairn, W. Ronald D, op. cit, pp. 204-205..

⁸³ 발달하는 자아가 내재화된 나쁜 대상을 다루려는 필사적인 시도에서 사용하는 가장 초기 형태의
방어형태가 억압이다. 억압이 내재화된 나쁜 대상에 대한 적절한 방어를 제공하지 못할 때 공포증,
강박증, 히스테리, 편집증적 방어가 작동한다. 그리고 또다른 형태의 ‘초자아 방어’, ‘죄책감
방어’, ‘도덕적 방어’가 나타난다.

구조이다. 초자아는 유사-자아에 해당하는 지위를 획득한 내재화된 대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원본능이 근본적으로 대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간주함으로써, 프로이트는 초자아의 내재화 과정을 일관성 있게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페어베언은 대상의 내재화는 초기 대상관계의 변천에 직면한 최초 자아의 리비도적 욕구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로 설명하고 있다.

84

페어베언은 어린아이들이 고통을 주고 벌을 주는 대상을 통제하기 위하여 그 대상들을 내면화하는데, 이러한 대상과 연합된 고통과 슬픔, 즉 나쁜 상태(Badness)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아이는 외부 대상을 “좋은”(Good) 대상으로 간주한다. “아이의 대상이 나쁘다고 하기 보다는 자기 자신이 나쁘다고 한다 ... 자신이 나쁘다고 하는 동기 중 하나는 대상을 좋은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아이의 좋은 대상들로 채워진 환경이 특징적으로 제공해주는 안전감이라는 보상을 받는다.”⁸⁵

자기(Self)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신과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자기(Self)의 자기대상(Self Object)관계의 본질이 변함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변하게 된다.

(다) 위니캣(Donald W. Winnicott, 1896-1971)

Winnicott은 1896년 영국 서해안 Plymouth에서 영국 국교회 분위기와는 조금 다른 개혁신교회에 다녔으며, 교육에도 교리 추종에 일관되지 않고 자유로운 집안에서, 위로부터 세 번째로 태어나 외아들로 사랑 받는

⁸⁴ Fairbairn, W. Ronald D, op. cit. pp. 207-210.

⁸⁵ Fairbairn, W. Ronald D, op.cit, p. 87.

아이였고, 아버지 프레데릭 경은 두 번이나 이 도시의 시장을 역임한 귀족인 부유한 상인이었다.

그는 자기 저택의 이웃에 살고 있는 5명의 젊은 사촌이자 놀이 친구에 둘러 싸인 채 여자의 존재가 두드러지게 부각되었던 분위기에서 성장하였다. 어머니와 할머니, 유모, 가정교사 그리고 두 명의 누이는 그의 교육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지만 아버지는 사업과 여러 행정적인 일에 얽매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게 쏟을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자리는 늘 비어있었다.

13살에 되었을 때 캠브리지로 가서 기숙학교 학생이 되었으며, 다윈의 생물학에 열중하던 차에 빗장뼈가 부러진 이후 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생물학을 공부하기 위하여 Jesus College에 입학했고,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구축함에서 외과 레지던트로 복무했다.⁸⁶

20대 중반에 소아과 의사로 출발했던 그는 차츰 어린이 심리치료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어, 어린이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그림을 그리며 그들의 꿈을 들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를 가졌다. 소아과 의사가 된 후 우연히 접한 프로이트의 책을 통하여 정신 분석학에 열중하게 되어 마침내 대상관계이론의 영국학과 형성에 지대하게 공헌하여 대상관계 정신분석학의 대가가 되었다.

1923년에 정신분석 훈련을 시작하여 정신분석가로 활동하면서도, 런던의 패딩턴 그린 소아병원(Paddington Green Children's Hospital)에서 소아과 의사로 계속 일하였다. 그 자리에서 40년 동안 6만 환자의 사례를 치료하였다. 이러한 현장 경험이 아동과 어머니를 잘 이해하게 해주었다.

⁸⁶ 이유섭, 「정신건강과 정신분석」, (서울: 무지개사, 2008), pp. 202-203.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아동과 어머니의 초기 관계로부터 발달해 나오는 자기(Self)에 대한 혁신적인 이론을 만들 수 있었다.

소아과 의사로서의 오랫동안 아이들과 어머니들을 지켜본 경험을 토대로 프로이트의 욕동이론보다는 내적인 대상관계에 관심을 더욱 가졌다.

‘어머니와 아기 사이의 관계의 경험’이라는 글에서 성격과 정신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들을 발전시켜 ‘충분히 좋은 엄마(Good-enough mothering), 안아주기(Holding and Handling) 등 독특한 개념을 만들어, 자신의 방식으로 인간발달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놀이와 현실」이 출판된 1971년 74세의 나이로 타계했다.

① 자기(Self)의 개념

위니콧의 자기 개념은 프로이트의 이드(Id)에서 오는 성적 흥분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그는 인격의 초기상태를 나타내는데 자아(Ego)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1962년에 발표한 “어린이 발달에서의 자아통합”이라는 글에서, 아기가 자기의식의 출현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느끼고, 듣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몸의 접촉을 통한 인식을 위하여 지능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 “자기”라는 말은 적절한 것이 된다⁸⁷고 하였다.

아동은 어머니와의 특별한 관계를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자기(self)를 형성한다. 어머니가 제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돌봄의 요소는 아기를 ‘안아주고’, 그의 몸짓에 반응해주고 그의 공격성을 참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아기의 욕동을 만족시켜 주었다고 해서 어머니가 좋은 대상이

⁸⁷ Donald W. Winnicott,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p. 80.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아기의 욕동을 좌절시켰다고 해서 어머니가 나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위니콧(Winnicott)에게 있어서 어머니가 아기를 돌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녀가 아기의 본능적 욕구를 만족시켜준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단지 아기의 본능적 욕구를 만족시켜줌으로써 자신이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출 수 있으며 있으며 유아 역시 만족스러운 수유를 통해 자신이 사랑 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아기에게 충분한 젖을 주어 아기의 구강기적 욕동을 충족시켜준다고 해도 그녀가 아기의 자아 기능을 침범한다면 아기는 자신의 인격의 핵인 자기(self)를 방어하게 된다. 유아의 자아 기능이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족되는 구강기적 욕동은 그 자체로서 유혹이 될 수 있고 외상이 될 수도 있다.⁸⁸

② 자아(Ego)

자아라는 용어는 적절한 조건하에서 하나의 단위로 통합되는 경향이 있는 성격의 부분을 묘사하는데 사용된다.

유아기의 자아는 처음 몇 주와 몇 달 사이에 유아의 정서적 성장과정에서 발달하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로, 자아의 통합, 신체와 정신의 통전, 대상관계이다. 유아의 자아는 매우 강하다. 그러나 그것은 충분히 좋은 어머니에 의해 자아 지원이 제공되는 한에서 그렇다. 이 충분히 좋은 어머니는 유아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헌신할 수 있고, 유아가 점차 어머니와 거리를 유지하려고 할 때 유아로부터 철수할 수도 있는 그런 어머니이다. 이런 자아 지원이 없다면 유아의 자아는 형성될 수

⁸⁸ Jay R. Greenberg and Stephen R. Mitchell, op. cit. p. 320.

없으며, 형성된다고 해도 성숙과정의 흐름에 맞추어 성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붕괴될 가능성이 많은 약한 자아가 된다.⁸⁹

③ 충분히 좋은 엄마

위니캣의 유아 정서발달 이론을 체계화 하는 독특한 이론이 ‘충분히 좋은 엄마’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의존적인데, 그것은 생애 초기에 신체적인 무능함에서 비롯된다. 생애 초기의 절대 의존적 욕구는 헌신적인 모성, 곧 충분히 좋은 엄마의 안아주는 환경이 필수적이다. 즉 어머니의 모성적 돌봄, 유아의 욕구에 적응해 주고, 유아를 편안히 안아 주는 어머니의 돌봄과 안아주는 환경의 제공을 통해, 유아에게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도움으로 유아는 개인적 성숙을 이루어 간다. 그러므로 성인이 되어서 고독을 즐길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믿음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충분히 좋은 엄마는 초기에는 유아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응하지만 유아의 발달에 따라 점진적으로 물러날 줄 아는 역할을 적절히 하는 어머니이다. 유아가 유아-어머니 관계의 모체로부터 하나의 존재로 출현하게 될 때 유아로 하여금 짧은 기간의 전능경험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어머니이다. (유아정서 66)

충분히 좋은 엄마는 유아의 전능성에 응해 주며 어느 정도 그것을 의미 있게 해주는 엄마이다. 아동의 정신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충분히 좋은 돌봄이 필요하다. 부모의

⁸⁹ Donald W. Winnicott,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pp. 343-344.

성격은 아동의 발달에 지극히 큰 영향을 끼치며 유아가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부모의 병리 때문이라는 것이다. 부모의 병리는 아동의 병리에서 그대로 나타난다. 아동에게 있어서 퇴행은, 환경이 아동을 저버린 그 지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가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정서적 성장에 필수적이다. 부모가 적절한 환경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아동은 잠시 발달을 멈추며, 그 이후에 아동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좌절된 발달 욕구이다. 아동의 발달하고자 하는 욕구는 욕동에서 발생한 원망들과는 전혀 다르다.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욕구는 정서발달의 필수적인 요소이며,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욕구가 충족되기 전까지 아동은 성장할 수 없다.⁹⁰

성장하는 아동의 개인적인 자기는 그 자신만의 것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제공되느냐에 따라 그 형태가 결정된다.

위니콧은 모든 개인에게 촉진적 환경이 주어지면 본래적으로 신체적 성숙뿐 아니라 정서적 성숙을 향해, 그리고 사회에 긍정적으로 공헌하는 방향으로 성장한다고 믿었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타고난 잠재력은 “합리적으로 좋고 튼튼한 환경이 주어지면 다루기 힘든 증상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삶의 방식을 발달시키며, 결과적으로 대체로 세상에서 필요하며 환영 받는 전인적 인간이 되는 능력”⁹¹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⁹⁰ Jay R. Greenberg and Stephen R. Mitchell, *Object Relations in Psychoanalytic Theory*, 이재훈 역, 『정신분석학적 대상관계 이론』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9), p321.

⁹¹ Madeleine. Davis and David Wallbridge, 「울타리와 공간」,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p. 35.

④ 의존의 3단계

㉞ 절대적 의존(Absolute Dependence)(0-6 개월)

이 상태에서 유아는 대체로 모성적 돌봄에 대해 결코 알지 못한다. 유아는 모성적 돌봄을 통제할 수 없으며, 다만 그것에 의해 이익을 얻거나 방해받을 뿐이다.

위니콧은 여성은 자신의 탁월한 ‘여성적 요소의 잠재성’ 때문에 가장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 이런 여성적 요소의 잠재성은 자신의 아기에게 있는 여성적 요소와 동일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킨다. 이런 능력은 원초적 모성 몰두(primary maternal preoccupation)를 발달시키는 과정의 일부이며, 생의 아주 초기에 ‘안아줄 수 있고’ 자아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의 밑바탕이 된다.⁹² 원초적 모성 몰두는 임신 기간 동안 점차로 발달하여 특히 임신 말기에 고도로 민감한 상태가 된다. 그것은 아이를 출산한 몇 주 동안 지속된다. 엄마들은 일단 그 상태에서 회복되면 그것을 쉽게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상태에서 엄마의 기억은 억압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⁹³

위니콧은 이 적절한 돌봄의 시기에 강조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안아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을 마련하는 것이다. 안아줌이란 아기를 육체적으로 안아주는 행위만이 아니라 함께 사는 환경적 제공 전부를

⁹² D.W.Winnicott, 「어린이 심리치료」,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p. 114.

⁹³ Ibid, pp. 119-120

말한다.⁹⁴

안아주는 환경의 기본적인 기능은 유아가 방어적으로 반응할 수 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개인적 존재를 멸절시키는 침범을 최소한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유아는 좋은 조건하에서 존재의 연속성을 확립하고 전능감의 경험을 통해 침범을 감당하는 세련된 전략을 발달시킨다.

안아주는 단계 지능의 발달하며, 정신(Psyche)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생각(Mind)이 시작된다. 또한 충동적 행동으로서 운동과 근육성애(Muscle erotism)에 속하는 산만한 요소들이 성감대의 절정 기능과 융합되기 시작하며, 대상관계는 주관적으로 인식된 대상과의 관계로부터 객관적으로 지각된 대상과의 관계로 변한다.⁹⁵

㉔ 상대적 의존(Relative Independence)(6개월-오이디푸스기)

상대적 의존기의 유아는 모성적 돌봄의 세부 내용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며, 점차로 그것들을 개인적인 충동과 관련시킬 수 있다. 그 후 정신분석 치료 과정 중 전이에서 그것들을 재생시킬 수 있다.

생후 6개월부터 유아는 절대적 의존 단계에서 벗어나 생후 2년까지 상대적 의존 단계에 머문다. 이 시기에 어머니는 점진적으로 적응에 실패한다. 이 단계 동안 어머니들이 유아를 돌보는 방법은 점진적으로 적응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어머니는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유아는 배워서 자신을 돌보아 주는 그런 어머니가 필요한 것이

⁹⁴ D.W.Winnicott. *The Maturation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이재훈 역,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p. 60.

⁹⁵ D.W.Winnicott. *The Maturation and The Facilitating Environment*, 이재훈 역,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p63.

아니라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보아 주는 사람이 필요로 하며, 그때에만 혼란스럽지 않은 외적 세계를 알게 된다.

첫 단계에서 유아가 연속성을 경험하고 유아의 기초를 확립하게 하여 발달과정이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 상대적 의존 단계에서는 유아가 자신이 의존되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어머니가 존재한다고 믿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면 그 순간 유아에게 불안이 나타난다. 이것이 유아의 의존의 사실을 인식한다는 첫 신호이다. 점차 실제 어머니가 필요로 하는 아이의 욕구는 맹렬해지고 지독해진다. 따라서 어머니는 이 특별한 기간 동안에 많은 희생을 함으로써 아이의 정신 안에 고통과 미움과 환멸을 만들어내는 불행을 피한다. 이 기간은 6개월에서 2년 동안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유아가 2세 경이 되면 새로운 발달이 시작되며, 아동은 차츰 대상 상실의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된다.⁹⁶

㉔ 독립을 향하는 단계- 오이디푸스기 이후

독립을 향한 움직임은 걸음마 시기에 시작해서 사춘기와 청소년기에 혹은 개인에 따라서는 성인기에도 가능한데 유아는 정신적 기제와 인지적 이해를 발달시키고 사회적 관여를 한다. 위니콧은 이 시기에 불만족과 욕구 충족의 지연이 정서적 성숙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객관적 대상의 출현과 이들 대상과의 관계 경험은 유아로 하여금 자기 아닌 다른 세상의 존재를 교육시키고 독립을 촉진시킨다. 무엇보다도 유아의 홀로서기는 그 유아의 심리적 현실에 좋은 대상이 존재해야만 가능하다. 즉, 성숙과 홀로 설 수 있는 능력은 세상이 좋은 곳이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는 충분히 좋은

⁹⁶ Ibid. pp.124-126.

모성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⁹⁷

이 시기의 유아는 실제로 돌봄 없이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발달시킨다. 이것은 환경을 신뢰할 수 있게 되면서 돌봄 받은 기억들, 개인적 욕구의 투사와 돌봄 받은 내용의 내사가 축적됨으로써 이루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지적 이해의 요소가 첨가된다.

건강한 경우, 일단 이런 것들이 형성되면 아동은 자신의 자기(Self)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됨으로써 점차 복잡한 세상과 만나게 된다. 보다 넓은 사회생활의 범위 안에서 아동은 사회와 동일시된다. 독립성을 발달시킴으로써 아동은 사회의 일과 관련하여 만족스러운 개인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독립을 향해서’라는 표어는 걸음마 아기가 사춘기 청소년 모두의 추구를 묘사하는 말이다.⁹⁸

세 번째 단계는 성숙의 과정으로써 유아는 성숙한 의존을 할 수 있게 된다. 건강한 개인은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적인 방식으로 환경과 관계를 맺게 된다.⁹⁹

⑤ 위니콧과 수퍼에고

(라) 코헛(Heinz Kohut, 1913-1981)

코헛은 1971년에 출판한 「자기의 분석」(The Analysis of the Self)에서

⁹⁷ Ibid. p. 130.

⁹⁸ Ibid. pp. 130-131.

⁹⁹ Madeleine. Davis and David Wallbridge. *Boundary and Space*, 이재훈 역, 「울타리와 공간」(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p. 49.

정신분석에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자기애적 성격장애¹⁰⁰ 환자의 증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자신의 이론을 구축하고, 정신병리와 발달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갈등에 대한 모델에 대한 대안으로 자기 심리학(Self Psychology)을 제시하여 정신분석을 통해서도 환자들이 치료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고전적 전통 모델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다.¹⁰¹

고전적인 정신분석이 어른의 심오함 속에서 아이의 절망을 발견하였다면, 자기심리학은 아이의 심오함 속에서 어른의 절망을 발견한 것이다.

① 자기(Self)의 개념

정신분석학의 한 개념이었던 자기는 코헛이 자기애와 자기 구조의 형성과 관련시켜 인간 발달의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이전의 정신분석학과 대상관계이론을 모두 받아들여 자신만의 개념인 자기를 만들었다.

코헛이 초기 이론을 제시한 「자기의 분석」(The Analysis of the Self; 1971)은 이론적으로 프로이트가 욕동 모델과 연속성을 갖고 있으며, 자기애적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과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코헛의

¹⁰⁰ 자기애적 성격장애를 미정신의학회 DSM-IV 편람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된 자존감이 있는 경우- 자신의 성취나 재능을 과장함, 뒷받침될 만한 성취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뛰어난을 인정받고자 함. ②끝없는 성공, 권력, 탁월성, 아름다움 또는 이상적인 사랑에 대한 공상에 빠진다. ③자신을 특별하고 독특해서 다른 특별하거나 상류층 사람들만이 자신을 이해할 수 있거나,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려야 한다고 믿는 경우. ④과도한 찬사를 요구하는 경우. ⑤특권의식. 즉 특별대우를 받을 것에 대한 불합리한 기대감이나 그럴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특별한 대우나 복종을 바라는 불합리한 기대감을 가진다. ⑥대인관계가 착취적이다. 즉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한다. ⑦ 공감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서 타인들의 감정이나 요구를 인정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 ⑧ 자주 타인들을 질투하거나 타인들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믿는다. ⑨ 거만하고 방자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인다. 「DSM-IV-TR」, 강진령 역(서울; 학지사, 2008), pp. 331-332.

¹⁰¹ J. R. Greenberg and S. R. Mitchell, op. cit, p. 547.

치료법과 이론은 하트만의 자아심리학의 확장이었다.

그러나 1977년 「자기의 회복」(The Restoration of the Self)에서, 욕동 모델의 틀을 가지고는 자기에적 환자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음을 말하였다. 그는 「자기의 분석」에서 제시한 접근법을 자기심리학이라고 하면서 이 접근법은 고전적 이론을 수정한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이론 체계라고 주장하였다.¹⁰²

자기 심리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자기(Self)라는 개념이다. 자기(Self)는 “주도권의 중심이며 심리적 인상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주체”로¹⁰³ 마음속에 존재하는 정신구조, 또는 직접적인 경험에 가까운 정신내용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또한 자기는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자극을 주고받는 주체로서 하나의 응집된 단위이며 객체로서 단독으로 존재하기보다 자기대상과의 관계의 틀 안에서 존재한다. 이 “응집적 자기”(Cohesive Self)는 한 개인에게 건강한 자기 인식을 주고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공감의 능력을 주며 동시에 그가 속한 세계 안에서 창의력을 계발하며 살아 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준다.¹⁰⁴

자기는 “자기대상”과의 관계적 모체 안에서 형성되는 관계적 산물로 여기에서 자기 대상은 어린 자기가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해주는 대상으로 유아에게 최초의 자기 대상은 모성적 돌봄을 제공하는

¹⁰² Heinz Kohut, 「자기의 분석」,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5), p. 9

¹⁰³ J. R. Greenberg and S. R. Mitchell, op. cit p. 547.

¹⁰⁴ Heinz Kohut, 「자기의 회복」,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6), pp. 99-100

어머니이다.¹⁰⁵

아이가 자기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상태가 아직 응집적이고, 연속되는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이의 심리적 상태를 알고 그 상태에 맞추어 반응해주는 자기대상, 즉 양육자의 돌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¹⁰⁶

따라서 자기는 인간의 정신적 영역 안에서 정신의 기능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태로 존재하며 경험의 내용들에 따라 구조적 방식이 결정되는 심리적 구조라고 할 수 있다.

② 자기 대상(Self Object)

자기대상이란 어린 자기가 스스로는 수행할 수 없는 심리적으로 삶을 지탱해주는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해주는 대상을 지칭한다.¹⁰⁷

코헛(Heinz Kohut)은 「자기의 분석」(1971)에서 아동은 생존을 위해서 타자를 필요로 하는데 이 때 타자는 아동의 취약함을 떠맡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대상을 자기 대상(Self Object)라고 하였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대상의 경험이 없이는 한 인간의 정서적 발달은 찾아 볼 수 없으며, 동시에 한 인간의 치유와 변화의 과정은

¹⁰⁵ Frank Summers, 이재훈 역, 「대상관계 이론과 정신병리학」,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4), p. 356. 자기는 아이가 초기 자기 대상의 경험과 함께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인 용인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자기는 주도성의 중심이며, 자기의 타고난 특정행동을 실현하고자 한다. 자신의 정서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한다.

¹⁰⁶ Allen M, Siegel, 「하인즈 코헛과 자기 심리학」, 권명수 옮김,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p. 176.

¹⁰⁷ Frank Summers, 이재훈 역, 「대상관계 이론과 정신병리학」,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4), p. 356.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동은 자기의 응집력이 형성되기 위해서 자기 대상과 융합이 필요하며, 자기대상이 되어준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완전한 인격의 발달은 어린 시절에 결정되고 그 결정된 객관적 실체가 남은 인생의 내용을 결정한다고 믿었다.

또한 코헛이 강조하는 자기대상이란 단순히 사람뿐만이 아니라 사물과도 관련된 인간의 대상 경험을 말한다. 즉 기능적 측면을 지닌 “자기와 연관되어 경험되는 대상으로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구조를 강화하거나 자기 느낌을 계속하게 해주는 모든 자기대상과의 관계경험”을 말한다. 그럼으로 자기와 자기대상과의 관계는 단지 자기와 대상과의 대인관계만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경험하는 심리 내적 역동의 관계경험인 것이다. 즉 자기대상과 내적 이미지와의 관계를 주체인 자기가 경험하는 것을 말한다.¹⁰⁸

③ 전이(Transference)

프로이트가 시도했던 본래의 개념은 무의식이 전의식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후에 이 개념은 많은 부가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전이’의 개념은 아동기 대상과의 관계 경험에 유래하는 영향을 받고 있는 현재의 관계 경험을 기술하는데 사용된다.

상담과정에서 전이현상은 분석가에 대한 환자의 감정반응으로 어린 시절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특히 부모와의 사이에 있었던 감정(Unconscious Emotional Attitude)이 분석상황에서 분석가에게로

¹⁰⁸ Heinz Kohut,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7), pp. 265-267.

이동하고, 분석을 받는 현재생활에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환자는 분석가를 마치 유년기의 중요한 사람을 대하듯 하지만 환자 자신은 이런 감정을 모르고 있다.

㉞ 이상화 전이(Idealizing Transference)

이상화전이란 어린 시절 부모에게 받고 싶었던 것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즉 어린 시절의 결핍을 상담가나 다른 대상에게서 받고자 하는 것이다.

코헛은 이상화전이에 대해서 “초기의 정신발달단계에서 일차적인 자기애가 필요로 하는 심리적 평정이 방해 받은 후에, 정신이 상실한 자기애적 우주적 완전함의 경험을 원초적으로 이상화된 자기대상에게 부과함으로써, 자기애적 완전함에 대한 경험의 일부를 남겨 놓고자 하는 데서 기인하는 현상이다¹⁰⁹라고 주장하였다.

발달장애가 발생하는 결정적인 기간에 대한 기억을 이에 유사한 후기 경험의 기억들로 덮어씌운다. 실망하여 상처 입은 부분이 전 오이디푸스 시기와 오이디푸스시기 또는 잠재기 초기의 이상화된 대상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리고 부분적으로 새로 내면화된 이상적인 대상과 짝을 이루는 실제 대상이 외상적으로 파괴된다면, 그때 초자아는 불완전하게 이상화된다. 그 사람은 비록 자신 안에 가치와 가치에 대한 기준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외적인 이상적 대상과의 융합을 끊임없이 추구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이상화되지 못한 자신의 초자아가 제공해 줄 수 없는 긍정과 지도력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¹¹⁰

¹⁰⁹ Heinz Kohut, 「자기의 분석」,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5), p. 64.

¹¹⁰ Ibid, pp. 56-65.

㉔ 거울 전이(Mirror Transference)

거울에 비춰볼 때 자기의 훌륭한 모습을 비춰 주듯이 자기를 받아 주고 위로해 주는 대상으로 분석가를 보는 것이 거울 전이(Mirroring Transference)이다. 어린이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받지 못해 결핍된 것을 다른 대상에게서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코헛은 “과대 자기는 자기 안에 완전하다는 느낌을 창조함으로써 잃어버린 행복한 상태를 회복하려는 아이의 두 번째 노력의 산물이다. 아이는 이런 노력을 통해 모든 불안전함을 외부 세계로 돌린다. 곧 이상화된 부모 원상(Idealized Parental Imago)과 과대 자기(Grandiose Self)¹¹¹는 자기에의 발달 과정에서 동등한 비중을 가지며, 동시에 생성되고 성숙해 가는 것이다. 전능감, 과대주의 그리고 과시주의적 자기에는 과대 자기의 두드러진 모습이다. 아이가 과대주의와 전능감을 드러내며 그러한 자신을 반영해줄기를 요구할 때, 부모가 그 요구에 호의적 반응을 보인다면, 그 아이는 결국 버릇없는 과시적 요구와 과대적 환상을 철회하고, 자기 현실의 한계를 인정하게 되며, 그의 과대 자기의 요란한 요구들은 현실적인 기능과

¹¹¹ 이상화된 부모 원상(Idealized Parental Imago)은 붕괴된 일차적 자기에의 행복한 상태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스스로 온전함, 안전감, 강건함을 느끼려는 개인의 노력으로서 애착 가능한 전능한 대상을 갈망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과대 자기(Grandiose Self)란 과시주의, 자기확장, 전능감으로 특징지어지며, 이러한 무의식적인 형태가 정상적 발달 과정을 변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포부의 축을 세우는 에너지를 제공한다.

현실적인 지존감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으로 대치된다” 고 하였다.¹¹²

건강하게 발달된 과시주의적 자기에는 자아를 강화시키고 안전함과 행복을 느끼게 하여 창의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원초적으로 과편화된 과대 자기는 만성적인 자기애적 고갈을 가져오게 되므로, 자기는 이런 느낌을 피하고자 과대적으로 노출된 자기에 집착하게 되어,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일하게 됨으로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 일체적 자기대상(Twinship Selfobject)-쌍둥이 전이

코헛의 자기 심리학은 거울 전이와 이상화 전이에다 쌍둥이(제2전이) 전이를 추가함으로써 세 가지 주요 자기대상 전이를 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쌍둥이 전이 개념을 처음에는 거울 전이의 범주 아래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후에 그가 자기애적 전이라는 용어를 자기대상전이라는 용어로 바꾸면서 보다 확장된 사고로 전이의 영역을 바라보기 시작하였고 쌍둥이 전이를 독자적인 전이의 형태로 구분하였다.¹¹³

쌍둥이 전이는 거울 전이보다 좀더 성숙한 발달단계에서 외상을 경험했을 경우에 나타난다. 환자는 분석가를 자기와 비슷하거나 거의 같은 존재로 경험한다.

쌍둥이 전이는 아동기 후반(4-10세)에 쉽게 경험하게 되는 전이의 형태이다. 제2자아라고 할 수 있는 자신과 닮은 또 다른 형태의 자기 대상을

¹¹² Allen M, Siegel, 「하인즈 코헛과 자기 심리학」, 권명수 옮김,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pp. 139-140.

¹¹³ Heinz Kohut,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7), p. 278

경험하는 전이이다. 특히 이상화된 대상으로부터의 분리되는 느낌을 받거나 지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은 쌍둥이 전이를 활성화시킨다.¹¹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지지나 긍정적인 반응은 필수적이지만, 부모로부터 그러한 감정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발생하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자기에게 대신 부모의 지지를 보내주는 존재의 역할을 쌍둥이 전이라고 보았다. 이런 역할을 하는 쌍둥이 전이로서 제2자아의 역할은 대상과의 융합됨이 없이 또 다른 나의 자아에 의해 지지되는 것을 말한다.

④ 코헛과 수퍼에고

코헛은 연구는 관계를 강조하는 대상관계이론으로 프로디안의 욕동모델로부터 후퇴하였다. 욕동모델의 후퇴는 자기(Self)에 대해 전통적인 학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지만 코헛은 자기(Self)에 대한 그의 생각들을 오랜 기간 동안 발달시켰고 계속 그 이론을 수정하였다. 1977년에 이르러 그는 더 이상 리비도에 대하여 말하지 않고 단지 드물게 자아와 초자아를 언급하였다.

초자아(Superego)는 정신 기구에 속한 대리자의 하나로 성격을 안내하는 내면적인 도덕적 금기, 태도, 사고의 표준들을 기술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부모의 태도나 행동을 내재화함으로써 형성된다.

정신분석학은 욕동을 처리하는 정신기구로 인간을 설명하면서 치료시에 주로 심리적 거시구조(원본능, 자아, 초자아)사이의 불완전한 갈등해결에 초점을 맞추지만, 정신분석적 자기심리학은 자기대상환경에 의해 지탱되는

¹¹⁴ Ibid, pp. 279-280.

자기의 측면에서 인간을 설명하면서 치료 중에 결함 있는 자기 구조의 불완전한 기능적 결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자기 심리학은 심리적 갈등을 무시하지 않고 전이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분석한다. 본질적으로 자기대상 전이의 분석을 통해 자기 구조의 결함을 역동적 및 발생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¹¹⁵

코헛은 건강한 자기가 형성되는 것은 첫째는 자기와 자기대상 사이의 기본적인 조율(Basic attunement)의 경험과 양육자에 대한 이상화가 점진적으로 철회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상화의 철회는 아이의 실망이 점진적이고 스스로 철회할 수 있는 정도로 발생함으로 이루어지며 이런 점차적 환멸을 ‘최적의 좌절(Optimal Frustration)’이라 불렀다.¹¹⁶

초자아는 아동이 좌절 경험을 주는 중요한 사람의 도덕적 측면을 내사(Introjection) 또는 받아들임(Taking in)으로 형성한다. 자아-이상은 ‘부모를 통한 경로(Passage through the Parents)’라는 특별한 방식을 따라 수정된 자기애라고 말할 수 있다. 독립화된 초자아 구조의 발달은 아이의 자기애가 부모를 통한 경로를 거치는데 달려 있다. 만약 부모의 요구가 타당하다면, 아이가 자신의 자기애를 재-내사할 때 그

¹¹⁵ Ibid. p. 71.

¹¹⁶ 최적의 좌절(Optimal Frustration)은 외부 대상이 주는 상실감이나 실망감의 강도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 능력에 비추어 압도당하지 않을 만큼 안전하게 체험할 수 있는 정도로 주어지는 좌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형적 내재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내면 구조를 창조하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 같은 새로운 내면 구조는 자기로 하여금 이상화 대상, 반영해주는 대상, 그리고 제 2 자아 대상과 융합하고 싶은 욕구로부터 성인 자기대상과의 공감적인 반향에의 욕구로 이동할 수 있게 한다. 이때 자존감의 기능은 예전에는 어린시절의 융합된 자기대상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이제는 점차 가족, 친구, 일과 문화 등의 성인 세계의 자기대향 환경에 의해 제공되게 된다. 앨런 시걸, 「하인즈 코헛과 자기 심리학」, 권명수 옮김,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pp. 265-266.

자기애는 전보다 더 중립화되어 되돌아올 것이다. 만약 부모의 자아-이상 이상이 대체로 중립화되지 못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면 부모를 통한 경로를 거치면서 아이의 자기애가 중립화되지 못할 것이며, 수정되지 않은 형태로 재-내사될 것이다. 이 수정되지 않은 자아-이상은 통제할 수 없는 구강기적 욕구를 드러내고, 타협을 모르는 완벽주의적 태도를 갖게 된다(1960)고 주장하였다.¹¹⁷

변형적 내재화는 프로이트의 “애도와 우울” (1917)에서 서술하였다. 리비도 대상이 지닌 특질은 그 대상의 상실에 이어 내재화 된다는 가설로, 코헛은 대상을 이상화하는 자기 대상의 기능에 실패할 때 이상화의 강도가 재 내재화된다. 최적의 좌절 이후 발생하는 변형적 내재화는 새로운 구조를 만든다. 아이는 대상을 통한 경로(Passage through the Object)를 통과하면서 마음을 달래주는 갈들이 없는 부모의 정서적 태도와 반응들에 기초한 특질들을 내재화하게 된다. 이 용어는 코헛이 1963년에 발표한 ‘정신분석학의 개념과 이론’이라는 논문에는 ‘변형적 내재화(Transmuting Internalization)’란 개념의 기초가 된다.

적절한 좌절에 해당하는 미세한 상실은 변형적 내재화 과정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다. 아이가 자전거를 배울 때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두려움과 즐거움을 동시에 경험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아이는 자전거를 배울 수 없을 것이다.

아동의 결정적인 발달단계에서 부모의 역할은 부모의 행동이 아니라 부모의 성격이다. 아이는 지나친 친절이나 다정함을 숨이 막히는 잔인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아니면 단순히 거리를 둔 냉담한 무관심으로 받아들일

¹¹⁷ Allen M, Siegel, op. cit. pp. 72-73.

수도 있다. 부모의 엄격함은 아이의 발달에 외상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건강한 환경이 될 것인가 라는 중대한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취하는 행동의 내용이 아닌 형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¹¹⁸

예컨대 가부장적인 집단에서 오이디푸스기 소년에 대한 부모의 태도들은 소년이 오이디푸스 경험들을 거치는 과정에서 견고한 초자아와 강한 남성적 이상들로 특징지어지는 정신 기구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이 유형의 정신 기구를 획득한 개인들은 남성적 이상들이 높이 평가되는 소위 프론티어적인 사회의 과제들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다. 성차별이 거의 없는 집단에서 부모가 보이는 태도는 오이디푸스기의 아이에게 다르게 반응한 결과, 가부장적인 집단의 소년들에게서 보통 발견되는 것보다 더 견고한 초자아와 더 높은 이상들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소녀들이 더 이상 팽창하지 않는 안정된 사회의 과제들에 더 잘 적응할 것이다.¹¹⁹

오이디푸스기 아이의 부모들이 보이는 반응들은 아이들에게 있어서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만약 소년의 아버지가 소년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신이 아버지와 그이 성인다운 위대함과 융합하도록 허락 받았다고 느낀다면, 오이디푸스 단계는 통합된 남성다움의 형태를 확립하는 것을 포함하여 자기 패턴의 견고화로 나아가게 된다.

오이디푸스기와 잠재기(3-7세) 때의 상처는 이상화가 결핍된 초자아를 야기한다. 이 때에 상처를 경험한 성인은 나름대로 가치와 기준을 갖고 있는 초자아를 지니게 되어 ‘외부의 이상적인 대상을 끊임없이 추구할 것이며 이

¹¹⁸ Heinz Kohut,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7), pp. 34-35.

¹¹⁹ Heinz Kohut, 「자기의 회복」,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6), pp. 227-228.

외부 대상에게서 자신의 초자아가 제공해 줄 수 없는 인정(Approval)과 지도력을 얻고자 할 것이다’ .¹²⁰

부모의 가치는 처음에는 반쯤 외적인 것이었다가, 결국 완전히 내재화되어 초자아의 일부를 형성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내재화된 가치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초자아에서 자아로 바뀔 수 있다. 가치들이 서서히 자아 기능으로 전환될 때 그것들은 가치로서의 기능을 상실한다.¹²¹

(4) 대상관계이론의 중요개념

(가) 대상

대상관계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인 대상(Object)이란 주체와 관계를 맺는 어떤 것을 의미한다.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외부세계 사람들과, 내적으로 형성된 그들의 이미지들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양육자의 이미지와 어머니가 만들어 준 아이의 이미지가 무의식의 세계에서 상호 하는 것을 칭하는 개념으로서 아이가 갖는 다른 사람과의 결정하는 작용 준거가 될 수 있다.

대상관계 단위는 자기표상과 내적 대상이 어떤 욕동이나 정서로 연결된 것으로 자기와 대상과의 관계가 모호해질 때 자기-대상이라고 부른다

① 외적대상(External Object)과 내적대상(Internal Object)

¹²⁰ Allen M, Siegel, op. cit, pp. 119-120

¹²¹ Heinz Kohut,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7), p. 329.

외적 대상(External Object)은 정서적인 에너지가 부여되는 사람이나 장소, 또는 물건이다. 성장 초기, 현재, 주체의 주변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중요한 타자를 의미한다. 외적 대상은 내적 대상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내적 대상(Internal Object)은 사람이나 장소, 또는 물건과 연관이 되는 생각이나 환상, 또는 기억으로 개인이 성장초기에 자신을 돌보아준 중요한 의미 있는 사람과의 경험으로부터 형성된 심리적인 구조의 한 부분이다..

내부대상은 외부대상과의 경험의 결과 남은 흔적으로 형성된다.

② 부분대상(Part-Object)과 전체대상(Whole Object)

개인의 특정한 부분이 개체의 대상이 될 때 그것을 부분 대상(Part Object)라고 한다. 각 부분 대상들이 전체대상(엄마)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부분대상을 전체 대상으로 통합하여 이해하게 되는 것은 성격과 인격 발달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부분대상은 환상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라기 보다는 관계하는 하나의 양식이다. 유아가 형성하는 최초의 대상표상은 부분대상들이다. 유아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한번에 전체 사람을 인식하기 보다는 부분에 집중하여 처음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대상을 부분대상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유아는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엄마의 젖가슴과 자신의 잘못된 버릇을 고치려고 훈육하는 엄마의 손을 엄마라는 전체 대상의 일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분리하여 인식한다. 그러나 유아가 성장 발달하면 엄마는 자신에게 만족감을 주는 젖가슴과 좌절감을 주는 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전체대상(Whole Object)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③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과 중간현상(Transitional phenomena)

위니콧은 유아가 절대적 의존기에서 상대적 의존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안을 도와주는 기능을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유아가 독립하게 될 때 분리불안을 낳게 되는데 이때 대처하는 방법으로 유아는 중간대상을 창조한다. 다시 말하면 엄마의 대리물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은 내부대상이나 주관적 대상이 아니면서, 단순히 외부에 실재하는 대상도 아니다. 이것은 외부 대상과 내부 대상의 중간 영역에 위치하면서 유아와 애착관계를 형성한다. 유아는 엄마라는 실제대상이 없이도 곰 인형, 담요, 이불 옆에 있을 때 심리적 안정을 가지며 잠을 청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다. 곰 인형, 담요, 이불 같은 대상들에 유아가 습관적으로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이 애착관계 때문에 유아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또 강한 정서를 느낀다고 한다. 아이들이 외로운 시간, 우울해질 때, 잠자는 시간에 중간대상에게서 애착 느낌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¹²²

아이의 관점에서 중간대상은 환상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제3의 영역으로, 가장 살만하다고 느껴지는, 살아있는 지속적인 대상으로, 아이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다. 이런 중간대상을 창조하는 힘은 유아기 초기에 보여준 엄마의 거울경험을 통해서이다. 이런 초기 경험이 잘못되면 중간대상을 만들 수가 없게 된다. 이 중간대상의 경험은 성인이 된 후에 문화, 종교,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본 토대를 형성하는 능력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제3의 영역을 갖은 사람은 현실을 극복하고, 창조하는 힘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가 성장해 감에 따라 중간적 관계성(Transitional Relatedness)은 발전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이것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는다.

¹²² D. w. winnicott, 이재훈 역, 「놀이와 현실」,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pp.13-20.

이 중간 대상들은 어머니의 부재가 아이에게 가져다 주는 고통과 아픔을 달래기 위한 아이의 창조물로 중간대상들을 통하여 아이는 어머니의 부재를 극복할 수 있는 상상적인 유대감을 유지한다. 중간대상을 통해서 인간의 심리내면의 상상력과 인식의 경험을 토대로 한 현실과 환상의 영역, '중간공간(Transitional Space)을 발견하게 된다.

위니콧이 인간 본성의 연구에서 가장 독창적으로 공헌한 것은 환상의 영역 또는 잠재적 공간이다. 중간현상(Transitional phenomena)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기는 유아에 따라 4-6개월부터 8-12개월 정도에서 시작한다. 중간현상은 유아에게 있어서 최초의 나 아닌 소유와 관련된 것으로 놀이의 원초적인 형태와 관련되어 있다. 즉 엄지 손가락 빨기, 천이나 담요의 한 부분을 입으로 가져가거나 천조각을 손에 쥐고 빨거나 입에 넣은 일, 맘 맘 소리를 내는 웅알거림 등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중간현상이라고 부른다. 즉 이러한 것들은 유아가 잠들려고 할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나) 자기표상과 타인표상 /대상표상과 하나님(신) 표상

대상관계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의 초기 관계가 사람들이 자신을 경험하고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인물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표상이란 어떤 대상에 대해 자기가 갖는 어떤 정신적인 상을 말한다.

① 자기표상(Self Representation)과 타인표상(other Representation)

자기표상(Self Representation)은 개인의 내면 세계에는 대상에 대한 표상뿐 아니라 대상에 반응하고 행동하는 표상이 존재한다. 즉 주요 타자와의 대인관계 경험을 바탕으로 내면화된 자신의 생각 느낌, 감각, 기억 등을 을 통하여 자기에 대해 갖게 되는 정신적 표상을 자기표상이라고 한다. 또한 타인표상(other Representation)이란 주요 타자들과의 경험을 통해

내면화된 타인들에 대한 생각, 느낌, 감각, 기억, 의미를 말한다.

② 대상표상과 하나님 표상(신표상)

자기표상과 자기표상 아래 대상과의 경험은 그 경험에 수반하는 정서상태까지 내면화하여 대상표상을 형성한다. 대상표상(Object Representation)이란 한 개인이 특정한 타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갖게 되는 도식으로, 지속적인 기억과 비슷하며, 그 타인에 대한 다면적인 경험과 인상, 이미지로 형성된다. 프로이트는 대상표상을 아이의 발달시기에 발생한 기억의 흔적들로 생애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모든 남자는 ‘원초적 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흔적을 가지고 태어나며, 모든 여자는 ‘교차적 유전’에 의한 기억 흔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한다. 남자의 경우 하나님 표상은 모성적 표상에 더 연결되고, 여자의 경우는 아버지의 이미지에 더 연결되어 애정적 교차가 뚜렷이 나타난다.

인간이 어떤 사람과 사귄 때 과거의 감정적인 면에서 벗어나기 힘든 이유는 유아의 전 생애의 발달시기에 남게 된 기억의 흔적인 원상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특히 유아기에 가장 가까운 대상인 부모나 형제자매와의 관계형성에서 고착된다. 이런 대상표상들은 그것들 자체에 어떤 힘을 가지며, 어린 시절 이후에 갖게 되는 모든 대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며, 적어도 그것을 채색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상 없이는 표상이 존재하지 않으며, 표상 없이는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¹²³

하나님 표상은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실재(實在)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신자들의 삶을 역동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123 Ana Maria Rizzuto, 「살아있는 탄생」, 이재훈 외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pp. 164-165.

심리내적인 표상으로, 오이디푸스 시기 이전의 초기 시절에 중요한 사람 또는 몇몇의 중요한 인물들과 정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동안에 발생하는 이미지 형성과정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으로 마음 속에 경험되고 존재하는 하나님 이미지를 말한다.

하나님 표상은 어머니와 유아가 상호작용하는 공간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며, 이것은 잠재적인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것의 기본은 충분한 기간 동안 경험한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신뢰의 감정에 의하여 발생한다. 유아는 충분히 좋은 돌봄을 받게 되면 인생을 의존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신뢰하게 되며, 유아의 발달은 방해 받지 않게 되고, 개인적인 자신의 세계를 넘어 모험할 수 있게 된다.¹²⁴

부모와의 관계 경험은 하나님 표상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 특히 3세 후반에서 6세까지의 아동은 개인으로서 응집적 자기를 공고화하는 시기로 좋은 자기 이미지들과 나쁜 자기 이미지들은 전체 자기 체계 안으로 통합되므로, 좋은 성질과 나쁜 성질을 모두 가지는 보다 전체 인격으로서의 어머니 표상을 갖게 된다. 이 때 아동은 부모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상상하게 된다. 이 시기에 유아의 하나님 표상은 처음에는 양쪽 부모 모두의 특징들을 포함하지만 점차로 아버지의 특징들을 더 많이 포함한다. 만약 아버지가 공격적이면 하나님은 엄격하고 무서운 하나님 표상을 갖게 된다.

하나님 표상은 부모의 표상으로 만들어지는데, 어머니 표상보다는 아버지의 표상에 더 가깝게 형성된다.

(다) 대상항상성(Object Constancy)

¹²⁴ Jay R Greenberg and Stephen R. Mitchell, op. cit. p. 313.

마가렛 말리(Margaret S. Mahler, 1897-1985)가 주창한 개념으로 분리-개별화 과정의 네 번째 단계의 주요 과제는 일생 동안 지속되는 명확한 개성화의 성취와 평생 동안 필요한 대상항상성을 성취하는 일이다. 유아는 타인에 대한 감정을 긍정적으로 자기 자신 안에 고착시킴으로 다른 사람의 부재시 적절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취하는 일이다.

말리는 「유아의 심리적 탄생」(*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에서 초기단계 동안 어머니의 최적의 돌봄(Optimal Mothering)을 받은 유아들은 기본적인 신뢰, 어머니와 타인에 대한 믿음, 바람직한 자존감과 함께 건전한 이차적 자기에, 그리고 이차적인 자율적 자아기능에서도 그 또래의 다른 아이들보다도 확실히 진전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¹²⁵

긍정적인 정서가 부여된 내적 존재로서의 타자에 대한 일관된 지각, 대상항상성은 생후 24-36개월 사이에 형성되기 시작한다. 어머니에 대한 내면화된 긍정적인 상이 존재함으로 인해 아이는 어머니가 없는 동안 심리적인 위안을 받고 또한 한동안 어머니와 떨어져 기능할 수 있다.

대상항상성이 있음으로써 타인에 대한 지각과 경험이 극단적이거나 부분적이 되지 않고 타인에 해해 부정적인 감정이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측면과 관련된 지지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발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대상항상성을 성취할 경우에 비로서 일시적인 분리의 시간이 연장될 수 있고 아동이 분리를 견딜 수 있게 된다.

¹²⁵ Margaret S. Mahler, 「유아의 심리적 탄생」,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p.177.

대상항상성과 개별성이 발달하는 과정은 생애 초기에 끝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개인으로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배우는 과정은 이후 중요한 오이디푸스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한다. 잠복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특히 성인기 초기 집을 떠나 독립할 때도 이런 재작업이 필요하다.¹²⁶

자아는 궁극적으로 자기표상의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 대상표상의 좋은 측면과 나쁜 측면을 통합한다. 전적으로 좋은 대상이미지와 전적으로 나쁜 대상이미지가 합쳐지면 이를 대상항상성이 발달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안아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출산 후 몇 개월 동안 생리적으로 엄마는 아이를 위한 집중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헌신적인 시기이다. 이 시기에 아기와 관계하는 어머니의 특별한 상태를 ‘원초적 모성물두’ 라고 부른다. 어머니의 일차적 모성물두는 유아로 하여금 연속성을 경험하게 하고 이 연속성이 왜곡되지 않는 유아의 기초를 확립하게 된다.

유아의 첫 1개월은 절대적 의존의 시기로, 유아의 실제적인 신체의 무능은 유아의 신체적, 정서적 성장의 필수 요건인 “촉진적 환경” 또는 “유아와 함께 단일체를 이루는 모성적 돌봄”에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핵심에 놓여있던 타고난 잠재력은 적절한 환경이 없으면 실현될 수

¹²⁶ N. Gregory Hamilton, 「대상관계 이론과 실제」, 김진숙 외 2인 역, (서울: 학지사, 2007), p. 88.

없다.¹²⁷

어머니는 아이를 위하여 자신의 욕구나 바람을 충족시키기보다는 자신의 존재의 모든 활동을 아기의 욕구와 바람에 맞추어 줌으로 그 아이가 경험하는 삶의 질을 만들어 낸다. 위니캣의 유명한 경구인, "돌보아 주는 존재(엄마)가 없는 어린 아이는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baby without nursing couple)는 말은 엄마의 충실한 돌봄을 누리는 어린 아기가 자아의 확실한 기반을 형성하여 건강하고 진실된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신체적인 돌봄과 안아주기를 통해서 ‘안아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는 단순한 신체적인 교류 이상의 복잡하고 상호적인 정서적 교류로 구성된다.¹²⁸

안아주기는 참 자기를 경험하는 존재가 되기 위한 기초이다. 통합의 성립과 자아-관계성 발달은 충분히 좋은 안아주기에 달려 있다. 더불어 안아주기는 유아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독립된 사람이 되기 이전의, 전체적인 환경 제공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비록 위니캣(Winnicott)의 이론에서 안아주는 시기가 융합 단계, 혹은 절대적 의존 단계와 같은 시기라 할지라도, 자아 지원은 성장하는 아이, 청소년과 성인의 시기에서도 혼란이나 해체의 위협을 당하는 긴장이 있을 때면 언제든지 필요하다.¹²⁹

¹²⁷ Madeleine Davis and David Wallbridge, 「울타리와 공간」,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pp.77-78.

¹²⁸ Ibid. pp.111-112.

¹²⁹ Ibid. 124-127.

안아주기는 유아에게 어머니의 촉감에 대한 피부감각, 어머니의 체온, 목소리, 얼굴 모습 등의 감각과 떨어지는 느낌들을 제공하며, 안아주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행해지는 전반적인 일상적 돌봄을 포함하며, 안아주기는 어머니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특별한 형태의 사랑이며 유일한 방법이다. 이 모든 것은 유아로 하여금 첫 대상관계를 확립하게 하고 본능 만족의 첫 경험에 이르게 한다.¹³⁰

성숙과정은 촉진적 환경에 의해 발달해 나가는데 환경이 아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동은 그 환경의 도움으로 타고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을 뿐이다. 유아는 촉진적 환경이 필요로 하며 그 촉진적 환경은 처음에는 어머니 자신이며, 어머니는 아동의 아버지(남편), 어머니, 그리고 가족들과 가까운 사회환경으로부터 지원 받아야 한다.

(마) 충분히 좋은 엄마(보충해야 함)

유아기의 성장과정은 유아가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인 경향성들을 표현하며 여기에는 성숙과정이 포함된다. 성숙과정은 오로지 촉진적 환경이 있는 곳에서만 전개된다. 성숙과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통합을 향해 나아가 하는 욕동이며, 이것은 유아가 성장함에 따라 더욱 더 복잡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촉진적 환경의 특성은 적응이며, 이 적응은 처음에는 거의 백퍼센트에 가깝게 환경에 의존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독립을 향해 점진적으로 발달해 가는 과정에 맞추어, 거의 완벽한 적응으로 시작해서

¹³⁰ D.W.Winnicott.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 이재훈 역, (서울: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pp. 68-69.

차츰 적응에서 벗어나는 경로를 거친다.¹³¹

위니콧의 “충분히 좋은 어머니는 유아의 욕구에 거의 완전하게 적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실패를 다룰 수 있는 유아의 능력이 성장 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덜 완전하게 적응해 가는 어머니이다.”¹³²

다. 사무엘의 아동기와 발달과업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부모다.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기본적 인격을 형성하게 해주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쳐 준다. 부모는 아동의 초기성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아동이 경험하는 경험내용과 성격 형태를 크게 결정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위세도 어느 정도 부모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측면에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매우 소중한 존재이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최고의 자녀로 양육한다는 측면에서 자녀 양육은 부모가 갖는 특권이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이다.

특히 목회자 가정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 길러야 한다. 어느 부모든지 자녀를 가장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시대가 필요한 인물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랄 것이다. 그러나 교육에 있어서 목회의 현장이 부모인 목회자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가운데 목회자 자녀는 일반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다.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¹³¹ Ibid, pp. 351-352.

¹³² D. w. winnicott, 「놀이와 현실」,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pp. 26-27.

있지만 불편한 점이 공존한다.

첫째로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좋은 점¹³³

목회자 부모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모습을 보며 자란다. 항상 기도하고 공부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 지혜롭고 우수하게 성장한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에 리더로서 성장하는 경우 종종 있다. 성도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는 등의 좋은 점이 있다.

둘째로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

¹³³ “목회자의 자녀 (목사의 자녀 혹은 피케이, PK: Pastor's Kids)란 누구인가 ” 라는 질문에 목회자 자녀와 그들의 상황에 대한 연민의 시각의 견지에서 구체적으로 대답하고 있는 카메론 리 (Cameron Lee)의 책 「PK」9와 카메론 리와 볼스윅(Balswick Jack)의 책 Life in a Glass House 에는 설문조사와 분석을 근거로 한 목회자 가정의 장단점에 관해 제시되어 있다 .

먼저, 장점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자신이 받은 영적인 은사들을 목회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 교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장하도록 돕는 동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회사역의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부여된다. 교회로부터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목회자 가정은 이러한 장점을 가지는 반면, 목회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많은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목회자와 그 가족들이 교회생활과 인간관계,

그리고 가정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하다.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 목회자라는 신분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친한 친구를 만들 수 없다. 많은 주위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높은 기대감을 갖는다. 교인들로부터 비판 받기 쉽다. 교인들이 가정에 자주 드나들기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 받는다. 사고 싶은 물건을 마음대로 살 수 없다. 한교인과 특별히 친해지면 다른 교인이 시기한다.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가 결여된다. 교인들이 사모나 자녀들을 비판한다. 임향진, “목회자 자녀의 기독교적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한 기독교교육 방향 고찰”, (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2008), pp. 8-9.

목회자 가족의 일거수일투족이 교인들에 의해 주시되어 사생활이 존중받지 못한다.

목회자 자녀들은 모범이 될 것이라는 교인들의 기대와 부모들의 기대는 부모인 목회자일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상처가 된다. 목회자 부모는 자녀에게 더욱 완벽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자라주기를 바란다. 또한 자녀들은 목회자인 아버지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걱정에 늘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 목회자의 자녀의 경우 교인들의 자녀들과 갈등과 분쟁을 겪을 때에는 언제나 저야 하고, 화를 내거나 싸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교회 친구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빈약한 대화로 인해 외로움을 느끼며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를 부모에게 자유롭게 이야기 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낀다.

가정에서 목회자로서의 아버지는 권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고 신앙에 부정적인 형태를 보인다.

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목사의 자녀들을 부모와 분리된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지 못한다. 또한 성도들은 목회자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헌신하고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보지 못하거나 보지 않으려 한다. 한편으론 사람들은 목사의 자녀들이 모범적인 기독교인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한다.¹³⁴

그러므로 목회자 자녀들이 갖게 되는 심적 스트레스는 어느 성도의 가정의 자녀들보다도 월등하여 가정과 교회, 학교,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자녀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며, 부모가 원하는 대로

¹³⁴ Lee, Cameron, 「사역자 자녀상담」, 이관직, 윤지선 역(서울: 대서, 2007), pp. 44-45.

자라주지도 않는다.

(1) 프로이트 입장에서 본 사무엘의 발달장애

프로이트는 인간이 무의식의 세계를 발견한 최초의 심리학자로 인간의 정신에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는 점을 밝혀주어, 정신분석을 통해 인간 안에 존재하는 신적인 모습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프로이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의 무의식 분석은 인간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강력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였다.

프로이트의 성격발달 이론은 많은 임상 경험을 통해서 성인기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증상 등 정신질환들이 유아기에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성인의 경험은 유아기의 서로 다른 경험들에서 시작되는데 이런 각각의 경험들이 뒤섞이고 위장되어 성인의 성격을 형성한다.

인간은 유일한 주체성을 지닌 특수한 존재로서 타인과 구별되는 행동특성, 즉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속성, 욕구, 지능, 신념, 욕망, 적응방식들을 가지고 있다. 성격은 각 개개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발달하며, 유전적, 환경적, 사회적, 정서적인 복합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성장하고 발달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통하나 항상 일관을 갖고 있다. 성격은 출생에서 죽음에 이르기 까지 항상 변화하며 발달해 간다. 그러나 어린 유아기의 생활에서 첫 5년 동안에 주된 성격이 발달한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의 생활의 경험이 미래의 행동에 기초가 될 뿐 아니라 일생을

살아가는데 주요한 생활양식이 되는 것이다.¹³⁵

성격은 각 단계에서 아이가 어떤 사회적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프로이트는 ‘각 단계마다 유아가 추구하는 만족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야 다음 단계로의 이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만일 충분한 만족을 얻지 못해 욕구불만이 생기던가, 혹은 그 시기에 유아가 느낀 쾌감에 지나치게 몰두하게 되면, 다음 발달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그 시기에 고착된다’ 고 한다.¹³⁶

양육자의 양육행위에 의해 불만족 혹은 과잉 충족하게 되면 그 단계에 고착이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그 단계 특유의 성격적 특징을 보이거나 스트레스에 직면하였을 때 과거 단계의 사고와 행동으로 돌아가는 퇴행을 보이게 된다.¹³⁷

프로이트는 성격발달의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단계는 처음 3단계로 생후 초기 5년까지로 본다. 즉 성욕의 다양한 요소들이 5-6세 경에 생식기적 본능으로 수렴되고, 그 이전의 구강기와 항문기적 본능들은 생식기 밑으로 포괄된다. 아동의 모든 욕망의 목표는 반대 성의 부모와 성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성의 부모는 위협하고 두려운 경쟁자가 된다. 아동의 모든 욕망의 목표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처럼 반대의 성의 부모와 성기적으로 결합하게 된다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론이 나오게 된

¹³⁵ 김규수, 「인간행동발달에 있어서 정신분석학적 이론(II)」, 사회복지연구, Vol. 9, 1981, pp. 143-144.

¹³⁶ Calvin S. Hall, 「프로이트 심리학 입문」, 지경자 역, 서울: 홍신문화사, 1994. p.130.

¹³⁷ Lawrence A. Pervin, 정영숙 외 2인역, 「성격심리학」, (서울: 박학사, 2005), p. 222.

것이다. 프로이트는 처음에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거세불안의 위협을 받으면 해결된다고 믿었는데, 1923년 이후 구조적 모델 이론을 주장하게 되면서 자아-이상(Ego-Ideal)의 중심 요소인 초자아(Super Ego)라는 개념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대신하게 된다. 초자아는 부모의 가치관을 내면화함으로써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적 갈등을 해결하고 유아적 성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후계자 할 수 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성질은 체질적 그리고 경험적인 요인들에 좌우되며 개인에 따라 다르지만 아동기 성의 중심적인 테마를 형성한다고 믿었다.¹³⁸

프로이트는 종교적 도덕성은 전적으로 가혹하고 비현실적이며 그래서 신경증적인 요구를 하는 초자아(Superego)의 기능에 속하는 것이다.

종교에 대하여 프로이트는 종교를 사람들이 성숙함에 따라 포기해야만 하는 미성숙한 형태의 신경증으로 치부하여, 종교는 환상이며, 일종의 소망 충족으로서 성인의 합리적인 과학적 세계 안에는 설 자리가 없는 유아적 욕구들의 압력 아래서 만들어진 인간 정신의 창조물¹³⁹로 보면서, 종교를 아버지 신을 중심으로 세워진 법과 죄책감(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죄의식)의 종교 즉 ‘가부장적 종교’이며, 반복적인 죄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것을 종교라 진단하였다.¹⁴⁰

¹³⁸ Stephen. A. Mitchell, Margaret. J. Black, 「프로이트 이후- 현대정신분석학」, 이재훈, 이해리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pp. 42-51.

¹³⁹ Michael St. Clair, 「인간의 관계경험과 하나님 경험」, 이재훈 옮김,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p. 14.

¹⁴⁰ S. Freud, 「토템과 타부」, 김종업 역, (서울: 문예마당, 1995), pp. 187-211.

이렇게 종교에 대해 부정인 견해를 갖은 프로이트는 「일상생활의 정신병리학」(The Psychopathology of Everyday Life)에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창세기 본문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라는 구절을 “인간이 자신 안에서 신을 창조했다” 로 바꾸어 “신(Deity)의 위치를 인간의 창조물로 떨어뜨리는 이 문장이 화면-연상(screen-association)을 제공했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또한 그는 인류학 계통의 주 저서인 「토텐과 타부」¹⁴¹ (*Totem and Taboo*)(1913), 「모세와 유일신」(*Moses and monotheism*)(1939)에서 개인 안에 내재하는 신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또한 「환상의 미래」(*Future of an Illusion*)(1927)에서 신을 인간이 창조해낸 환상이라고 보고, 자신이 창조한 신이 얼마나 환상적인가를 상기시켜 주었다.¹⁴²

프로이트는 아이의 신 이미지 형성에 아버지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아버지와의 실제적인 관계가 신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에 대해서 서술하면서 실제 아버지 대상의 출현은 신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고, 심지어는 사라지게도 한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린아이의 정신의 일부가 되면서 아이는 신으로 승화된 원상에 관해 잊어버리게 된다. 또한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신에 대한 애착과 마찬가지로 존속되며, 하나가 감소될 때 다른 것도 감소

¹⁴¹ 프로이트는 「토텐과 타부」 (*Totem and Taboo*)(1913) 에서 종교의 기원을 족장인 아버지가 씨족의 여인들과 성적인 관계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를 살해한 원시 유목집단의 아들들의 역사에 두고 있다. 이것이 인류의 어린 시절에 재연된 오이디푸스의 드라마이다. 악한 행위는 억압되지만, 죄책감으로 다시 나타난다. 살해된 족장과 화해를 통하여 이 죄를 극복하려고 하는 욕망이 처음에는 토텐 동물에게 투사되며, 나중에는 하늘의 아버지에게 투사된다. James W. Jones, 「현대정신분석학과 종교」, 유영권 옮김,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pp. 57-58.

¹⁴² Ana Maria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이재훈 외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pp. 34-35.

된다.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신에 대한 관계를 끊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는 신 표상이 변화되지 않도록 보존한다고 보았다.¹⁴³

그는 개인의 신 개념 형성이 아버지와 관계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아버지의 고양된 신은 어떤 방향으로 발달시키고 변형시킬 수는 있지만, 신의 표상을 제거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프로이트가 말하는 신은 아이 혼자 창조한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며, 초기의 아버지와 관계의 질이 아이의 신 표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신을 지지해줄 대상을 갈망한다. 인간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인간은 어떤 모습을 지녔는지 심리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게 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가정 안에서 특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오이디푸스 시기 이전에 형성된다.

**프로이트의 입장에서 본 사무엘의 발달 장애와 관련된 내용이 좀 부족,
사무엘이 어떤 면이 관련이 있는 것인지가 보장필요.**

(2) 에릭슨의 입장에서 본 사무엘의 발달장애

에릭슨은 프로이드와는 달리 인성의 중심을 원본능(Id)에서 자아(Ego)로 옮기고 인간의 사람에서 자아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자아 심리학에 기초하여 이론을 발전시켰다.

아동들은 생애 처음단계에서부터 부모 특히 엄마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아동초기의 엄마와의 신뢰와 믿음은 아동에게는 결정적 가치를 지닌다.

¹⁴³ Ibid. p. 73.

아동은 태어나면서부터 잠재적인 두려움을 주는 세상에 대해 신뢰감을 제공하는 대상인 엄마를 통하여 그 두려움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만약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쪽이 아직 부모에 의존적인 자녀의 미성숙한 정체성을 지지하고 성장도움을 주는데 있어서 자녀로 하여금 너무 강한 부모 의존성을 형성케 한다면 그 아이의 정상적 정체성 형성은 방해받게 된다.

에릭슨의 이론의 주요개념인 자아정체감은 자율적 신앙의 기초가 되는 ‘자기이해’와 관련된다. 1단계에서 부모가 기본적인 욕구를 일관되게 충족시켜주었을 때 아동은 적절하게 신뢰감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에 대한 확고부동함과 개인에 대한 신뢰, 가치감을 형성하며 종교생활의 가능성도 갖게 된다. 반대로 부모가 일관되게 돌보지 못한다면 유아는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으며 믿음의 대상으로서 신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 1단계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유아가 두 번째 단계에서도 ‘자율성 대 수치심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크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신뢰를 경험한 유아는 유아가 갖게 되는 확고부동함으로’ 기본적인 믿음 ‘이 외부의 강렬한 요구에 위협받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을 보호한다. 그러나 1단계에서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하거나 2단계에 와서 너무 억제를 받으면 유아는 유아적 신경증을 발달시킨다. 이러한 유아는 점차 의심을 발달시키게 되는데 그는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없으며 자기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 못하며 생을 생생하고 의미 있게 살아가지 못한다. 에릭슨의 이론은 결국 생애 초기 1,2 단계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즉 부모의 초기 돌봄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며 그때에만 의미

있고 생생한 느낌을 받으며 종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지지해준다.¹⁴⁴

에릭슨은 종교를 인간의 실존에 필수적인 신뢰감을 유지하고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며 더 나아가 더욱 성숙하고 창조적인 삶을 지속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의 관점이 프로이트의 오이디푸스 갈등구조에 근거를 둔 종교론을 극복하고 있고, 또 다른 차원은 그가 종교를 모성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즉 권위적인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과 적대감, 억압과 심판 등과 같은 심리적 현상들과 관련된 부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양육과 사랑, 친밀과 신뢰와 같은 정적인 심리적 경험들이 개인을 안정되고 성숙한 자기통합과 창조적인 삶으로 이끄는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¹⁴⁵

사미자는 “종교의 정신분석적 접근에 관한 연구에서” 종교를 이해하는 관점에서 에릭슨은 종교심의 기원을 어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근본적인 신뢰가 형성되는 생의 첫 단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런 의미에서 인간이 소유한 종교적 차원이 유아와 어머니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의 관계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뿐 아니라 종교가 자아정체성이나 생의 통전성과 같은 생의 발달 과제들의 해결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이념이나 신념 체계로서도 이해하고 있다. 나아가 종교를 인간의 향수 형태로 인식하고 있는데. 신뢰감의 원천으로서 어머니와 일체감에 대한 바람과 이성과 양심을 인도하는 아버지의 음성에 대한 바람 그리고 그

¹⁴⁴ 조희선, “자율적 신앙과 자율적 신앙의 양육을 위한 목회상담가의 역할”,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대학원, 2006), pp. 59-60.

¹⁴⁵ 이은옥, “초기유아의 신앙형성에 끼치는 어머니의 영향”, (서울: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96), p. 42.

부모의 지배로부터 독립하여 갖게 되는 순수한 자아 그 자체에 대한 그리움이 포함된다.

계속해서 사미자는

에릭슨에게 있어서 신뢰감을 형성하는 첫 단계는 건강한 자아의 발달에 기초가 되기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종교성은 인생의 최초의 단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본래의 바람에서 생겨나므로 인간이 소유한 종교적 차원은 유아의 어머니 사이에 존재하는 신뢰의 관계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인의 종교적 표현은 최초의 내적인 경험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⁴⁶

기본적 신뢰감이 하는 일은 살아가는 동안 박탈감이나 분리감, 그리고 배척당하는 느낌과 같은 강력하게 결합된 감정에 대항하는 것이다. 신생아에게 신뢰감이 나타나도록 지원해주는 ‘부모의 믿음’은 역사를 통해 조직적인 종교 안에서 ‘제도적 보호 장치’로 추구되어왔다. 사실상 보살핌에서 생기는 신뢰는 어느 특정한 주어진 종교의 실현 여부에 대한 시금석이 된다.¹⁴⁷

출생 후 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유아의 인격발달의 각 단계마다 순서와 특수한 요구나 문제들이 있는데 만일 전 단계에서 해결되지 못한 잔재는 다음 단계에서 인격적인 미숙함이나 인지적 사회적 기능에 비적응적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의 경험은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후의 인격발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¹⁴⁶ 사미자,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2), p. 227.

¹⁴⁷ E. H. Erikson, Child and society, 윤진, 김인경 역, 「아동기와 사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1992), pp. 285-90.

이 단계에서 더 이상 발달하지 못하는 부모는 자신들의 아동기가 너무 공허하고 좌절적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더 잘해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너무 독립적이고 성취를 강조할 경우 배타적이 되어 자신의 성공에만 열중하게 되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책임에 대해 경시하게 된다.

(3) 대상관계 입장에서 본 사무엘의 발달장애
(환상(illusion), 현실, 중간현상(transitional phenomena): 프로이트와)¹

노스웨스턴 대학교 정신의학과 행동과학 교수이고 시카고 정신분석 연구소 교수 및 슈퍼바이저 프랭크 서머즈(Frank L. Summers)는 “대상관계 이론과 정신병리학”에서 “대상관계 이론은 타자와의 관계가 내재화 되는 것을 토대로 인격발달과 병리를 설명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노력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¹⁴⁸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대상은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으로, 평생을 통해서 함께 살아야 할 중요한 타자의 이미지가 대상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맨 처음 대하는 대상이 어머니이며, 초기대상이 자신을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 한 개인의 인격이 내재화되어, 체계화된 방식이 성인이 되어서도 반복된다고 믿는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표상, 인식 조차도 어린 시절의 대상 어머니와의 관계에 의해 형성된다.

초기 유아기에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대상관계의 틀이 개인의

¹⁴⁸ Frank L. Summers, Ph.D, 「대상관계이론과 정신병리학」,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4), p. 12.

일생을 통하여 크게 변화되지 않는 지속성을 지닌다. 또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외부 대상과 적극적인 관계를 추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생의 초기에 유아는 어머니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 행동 반응의 양식을 결정짓고, 나아가 사회적 능력과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을 이루어나가는 대상관계적 관점은 어머니가 자신의 생의 초기에 어떠한 대상관계를 형성하였는가에 따라 유아와의 상호작용의 양태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¹⁴⁹

(가) 클라인이 본 유아의 심리발달과 부모의 역할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구강기, 항문기를 거쳐 남근기에 도달할 때 발생하는 유아기 성의 절정 현상으로 간주한 반면, 클라인은 오이디푸스적 관심들과 환상들이 훨씬 더 일찍 시작한다고 생각했다. 클라인은 그것이 생후 1년경인 이유기 즈음에 발생한다고 생각했으며, 이유와 배변 훈련을 통해 어머니와 아기의 연합 상태가 깨어질 때 유아는

¹⁴⁹ 최효진, “어머니의 대상관계수준과 아동의 대인관계 성향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6), p. 7.

인간이 가진 문제의 근원을 초기 양육과정에서의 대상관계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치료에 있어서도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의 질을 치료의 핵심으로 본다. 페어베언의 제자였던 건트립의 경우 양육(parenting)의 은유를 사용해서 치료를 재양육(reparenting)의 과정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실제로 부모가 해준 역할을 해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상담에서 내담자가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은 부모 역할에 유사한 경험들, 즉 정지된 발달적 갈망들을 재활성화 시켜주고 과거에 상실되었던 것을 지각하고 애도하는 경험들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Stephen A. Mitchell & Margaret Black, 「프로이트 이후」, 이재훈 외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p. 366.

자신의 리비도(libido)를 남근기적 환상들의 형태로 아버지에게 돌린다고 보았다. 그리고 남아는 아버지에게로 향했던 그 리비도가 구강기적 형태가 아닌 남근기적 형태로 어머니에게로 향한다는 것이다. 또한 프로이드는 아동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오이디푸스적 갈등이 해결되고 그와 더불어 초자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 반면에, 클라인은 남근기전에 이미 오이디푸스적 환상에 뒤따르는 가혹하고 비판적이며 편집-분열 자리와 우울적 자리라는 개념으로 무의식의 원시적인 층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¹⁵⁰

클라인은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안을 경험하고, 방어기제를 사용하며, 환상과 현실에서 원시적인 형태의 대상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클라인이 죽음의 본능과 욕심 그리고 질투가 어린이의 발달에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면, 초기 엄마-아기의 상호작용이 성격발달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강조한 최초의 이론가인 위니콧은 아기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다.

유아기 초기 경험은 부모로 대표될 수 있는 가족체계의 지원 속에서 제공되며 이러한 초기 경험은 이후의 성장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버지는 유아의 초기 인격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아버지의 역할이 어머니의 역할과 다르며 복합적이라는 사실을 미처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편집-분열 자리는 인격발달에 있어서 극복해야 하는 정상적이고 필요한 것이다. 좋은 대상이 나쁜 대상보다 우세할 때 유아는 안정감과 신뢰를 가지게 된다. 이 자리가 극복되기 위해서는 충분히 좋은 엄마의 돌봄이

¹⁵⁰ Jay R. Greenberg and Stephen R. Mitchell, op. cit. pp. 202-203.

필요하다. 그러할 때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며 우울적 자리로 이동하게 된다. 이 시기는 분리되었던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하나로 통합되며 사랑과 미움이 공존하는 양가감정이 생기는 시기로, 유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진정으로 사랑 받고 있으며 또 부모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용납된다는 확신이다.

우울적 자리는 출생한 유아는 사랑을 주는 좋은 대상으로서 엄마와 불편을 느끼게 하는 나쁜 대상으로서 미운 엄마로 나누어 놓고 본다. 현실감이 생기면서 사랑하던 대상으로서 엄마와 미워하던 대상이었던 엄마가 같은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사랑하는 엄마를 공격하여 파괴해 버리려고 하는 환상이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이 생긴다. 그런데 이 무렵이 젖을 뱉 무렵이어서 아이는 자신의 잘못된 파괴적 충동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자책하고 우울에 빠진다. 그렇다면 이런 우울의 입장을 아이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엄마에 대한 사랑이 미움보다 훨씬 클 때 안심하고 어머니를 의지할 수 있게 된다. 마음 놓고 엄마를 믿고 의지하게 되면서 엄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엄마의 역할을 자기 것으로 내재화하여 일생 동안 가지고 살게 된다. 좋고 능력 있는 어머니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므로 자신감 있고 행복하다. 성장 후에도 독립적이고 원만한 대인 관계를 갖고 살 수 있게 된다.¹⁵¹

(나) 페어베언이 본 유아의 심리발달과 부모의 역할

페어베언은 궁극적으로 원본능, 자아, 초자아와 같은 삼중 구조모형을 거부하면서 정신 안에 형성된 모든 부분들을 자아의 일부로 생각했다.

¹⁵¹ 이무석, 「정신분석에로의 초대」, (서울: 도서출판 이유, 2000), pp. 352-353.

이러한 자아의 발달은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바로 ‘분열적 자리’와 ‘우울적 자리’라고 불리는 단계를 거쳐 자아가 발달하며 심리구조가 형성된다고 한다. 그러나 멜라니의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페어베언은 프로이트와 결별하고, 인간의 동기에 대한 전제를 ‘욕동’에서 ‘관계’로 바꾸어 타인들과 관계를 맺는 방식의 성숙”을 기초로 타인과 “친밀한 상호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발달이론을 제시하였다.

페어베언은 인격형성의 과정을 분열의 측면에서 보고 심리내면의 구조적 역동을 설명하려고 했다. 페어베언에 따르면, 유아가 어머니와 갖는 관계는 기본적으로 만족스럽거나 불만스러운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어머니가 단순히 거절할 때보다, 어머니가 어떤 희망이나 기대감을 준 뒤 거절했을 때 유아는 더 심각하게 분열되고 어머니와의 관계는 더 불만스러운 것이 된다. 아동은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만족을 주는(gratifying) 어머니, 유혹하는(enticing) 어머니, 박탈하는(depriving) 어머니라는 서로 다른 대상들을 경험한다. 현실에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그 만족스럽지 못한 관계는 내면화된다. 페어베언은 하나의 외적 대상에서 분리되는 세 가지 내적 대상들을 각각 이상적 대상(어머니의 만족스러운 측면), 흥분시키는 대상(약속을 남발하는 어머니의 유혹적인 측면), 거절하는 대상(어머니의 박탈하고 주지 않는 측면)이라고 불렀다. 어머니의 여러 특징들이 내적 대상으로서 내면화되고 확립됨에 따라, 외부 지향적인 전체적 자아의 일부분은 분열되어 내적대상관계에 얽매이게 된다.¹⁵²

이때 흥분시키는 대상에 동일시되는 자아를 ‘리비도적 자아(libidinal

¹⁵²J. R. Greenberg and S. R. Mitchell, op. cit. p. 267.

ego)'라고 한다. 이 리비도적 자아는 유아적 의존에 대한 갈망을 포기하지 못한 희망의 저장소이다. 거절하는 대상에 동일시되는 자아는 '반리비도적 자아(antilibidinal ego)'라고 한다. 반리비도적 자아는 리비도적 갈망이 좌절된 결과 발생한 모든 증오와 파괴성의 저장소이다. 이것은 어머니의 약속이 머지않아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리비도적 자아를 증오하고 처벌한다. 페어베언은 이 반리비도적 자아를 '내면의 방해자(internal saboteur)'라고도 불렀다. 페어베언이 '중심적 자아(central ego)'라고 부른 자아의 일부는 이상적 대상 즉 어머니의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측면에 묶여있다. 중심적 자아는 외부 현실 세계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데 이용되는 자아의 일부이다.¹⁵³

정신병리는 다른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에서 생긴 것으로 정의 하였고, 엄마와의 관계를 통해서 신체적 접촉을 통한 즐거움과 다양한 다른 활동을 통한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자아는 발달되어 간다.

엄마와의 분리과정에서 감정발달이 이루어지며 유아가 초기 단계에서 엄마와 비자연적으로 분리되면 감정적인 박탈을 느껴서 나쁜 자아 이미지를 경험하고 병든 자아가 형성된다. 엄마와의 관계가 아이에게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좌절을 안겨주면 공격적이 되며 어린이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과의 현실적인 관계에서 시작하지만 이 관계에서 실망하게 되면 상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 모정의 박탈, 부적당한 양육, 어린이에게 유용하지 못한 부모관계와 접촉에 대한 좌절 관계 등은 대상이미지를 나쁘게 만든다고 보았다.

만약 이런 단계에서 대상과의 원만하지 못한 좌절된 대상관계 경험을

¹⁵³ J. R. Greenberg and S. R. Mitchell, op. cit, pp. 268-271.

하게 된다면 유아는 좌절된 나쁜 대상에 대한 원시적이고 강렬한 열망으로 인해 그러한 대상에 사로잡힌다고 한다. 애도 과정이란 바로 이러한 나쁜 대상을 떠나 보내어 진정한 ‘심리적 실제’로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을 말한다.

페어베언은 종교를 대하는 정신분석의 입장은 개인의 무의식 안에 존재하는 종교적 욕구의 근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 방법으로 다음 두 가지 역동적인 무의식의 요소들을 특별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제시한다. 첫째, 초기 아동기에 부모와 가졌던 초기의 관계 경험과 아이가 부모가 무한한 힘을 가지고 무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해줄 것이라는 환상이 깨지는 경험과 함께 인간 부모에 대해 가졌던 태도를 초월자에게 어떻게 전치되는가? 둘째, 억압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욕구가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에 따른 죄책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신앙의 대상에게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가?¹⁵⁴하는 사실을 강조한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융합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상과 분리를 경험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 대상으로부터 사랑 받고 있다는 확신과 내 사랑이 그 대상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관계이다.

(다) 도날드 위니콧이 본 유아의 심리발달과 부모의 역할

위니콧(Winnicott)은 프로이트(Freud)와 달리, 아기란 없으며 단지

¹⁵⁴ Fairbairn, W. Ronald D, 「성격에 관한 정신분석학적 연구」,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3), p. 245.

아기와 돌보는 자가 한 쌍으로 존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위니콧(Winnicott)은 어머니와 유아가 하나의 단위를 이루며, 아동의 인격발달이 아동의 내면에서 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동과 돌보는 사람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상호적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설리반과 비슷하게 위니콧(Winnicott)은 양육자인 어머니의 역할에 대한 언급 없이 아동의 초기 발달을 논하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고 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신체적인 돌봄과 안아주기를 통해서 ‘안아주는 환경(holding environment)’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어머니와 유아의 관계는 단순한 신체적인 교류 이상의 복잡하고 상호적인 정서적 교류로 구성된다.¹⁵⁵

유아의 친엄마가 반드시 유아를 가장 잘 돌보는 사람인가? 여성은 자신의 탁월한 “여성적 요소의 잠재성” 때문에 가장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 이런 여성적 요소의 잠재성은 자신의 아기에게 있는 여성적 요소와 동일시 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킨다. 위니콧은 ‘친엄마’는 자신의 삶의 흐름과 자신의 아이를 연결하고 따라서 자신의 특정한 유아와 동일시 할 수 있게 된다.¹⁵⁶

위니콧은 유아가 절대적 의존기에서 상대적 의존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불안을 도와주는 기능으로 중간대상(Transitional Object)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발견해 냈다. 중간대상은 내면세계도 아니고 외부세계도 아닌 환상의

¹⁵⁵ Jay R. Greenberg and Stephen R. Mitchell, op. cit. p. 317

¹⁵⁶ Madeleine Davis and David Wallbridge, 「울타리와 공간」,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7.), pp. 111-115

영역에 존재하지만, 중간대상은 주체도 객체도 아니다. 이 영역은 종교, 문화, 예술의 영역이다.

유아가 충분히 좋은(Good Enough)돌봄을 받게 되면 인생을 의존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신뢰하게 된다. 유아의 발달은 방해 받지 않게 되고, 개인적인 자신의 세계를 넘어 모험할 수 있게 된다. 이 잠재적인 공간은 아이 쪽에서의 신뢰의 감정에 의해서 발생한다. 즉 신뢰는 어머니라는 인물이나 환경적인 요인들에 대해 의존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과 관련된다. 또한 이 확신은 내사되고 있는 신뢰성의 증거이다.¹⁵⁷

자기가 형성되는 일차적은 환경은 가정이다. 가정환경은 아이로 하여금 자기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기를 알아가게 되고 건강한 자기로 자라도록 자양분을 공급하는 곳이다. 부모가 사랑으로 돌보아주든지 무관심하게 대하든지 아이는 그 상황 안에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 간다.

아마 두 세 살 경에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최초의 아동기 종교 경험은 어머니에 대한 실제 경험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며 뗄 수 없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 아이들은 쉽게 하나님을 상상하는데, 이 초기의 하나님 이미지들은 거의 전적으로 부모의 특성들, 즉 보호해 주고 권위를 갖는 특성들을 갖는다. 아동기에 아이가 어떤 종교 생활을 하든지, 잠잘 때 기도를 드리든지, 고개 숙여 기도하거나 교회에 가는 부모님을 눈으로 보는 것이든지, 그것들은 아이의 상상력 안에서 환상과 섞이며 융합된다. 가족은 아이에게 권위를 경험하게 하고 아이를 보호함으로써 종교 경험들에 대한 모델이 된다. 부모를 향한 양가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양가 감정에 반영된다.

¹⁵⁷ James W. Jones, 「현대정신분석학과 종교」, 유영권 옮김,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pp. 91-92.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해주고 사랑한다면, 아이는 사랑이 많고 친절한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한다. 반대로 어머니가 아이에게 벌을 주거나 무섭게 대한다면, 아이는 두려움과 회피의 이미지들을 하나님 표상에 부착시킬 것이다.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경험한 기본적 신뢰는 후에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로서 사용된다. 긍정적인 어머니 이미지들이 우세하다면, 긍정적인 종교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¹⁵⁸

엄용철¹⁵⁹은 그의 논문에서 ‘부모가 개인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는 상황이든지, 아니면 무정하고 무심하게 대하는 상황이든지 간에 바로 이 인간 상황 안에서 자기 이미지와 하나님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밝히는데 공헌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하나님의 표상을 형성해 가는 과정 안에서 부모들이 어떻게 기도하며, 그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눈으로 보는 것이 포함된다. 이것은 대부분 아이가 다섯 번째 또는 여섯 번째 생일을 맞이하기도 전에 이루어진다. 이처럼 아이는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기도, 이야기, 부모에게 하는 질문 등의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미지를 창조한다는 것이다. 또한 발달 시기 동안에 발생하는 관계들과 사건들은 개인의 종교 경험과 하나님 이미 형성과 관계에 극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상관계 이론을 통해 어린 시절의 대상관계 경험 특히 초기 양육자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의한 하나님 이미지 형성과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질 수가

¹⁵⁸ Michael St. Clair, 「인간의 관계경험과 하나님 경험」,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p. 59.

¹⁵⁹ 엄용철, “자녀의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관한 목회상담학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 계명대학교, 2004), p. 45.

있다.

(라) 코헛이 본 유아의 심리발달과 부모의 역할

코헛은 생애 초기에 아이를 반영해주고, 아이의 이상화를 담아줄 수 있는 환경의 제공을 통해 핵심적인 자아가 형성되는데 만약 자기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자기는 평생 자기 대상을 찾아 헤매거나 엷매이는 삶을 살게 된다. 따라서 생의 초기에 공감적인 환경을 제공해 주는 부모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유아에게 있어서 가정 환경은 매우 중요하며, 처음 접하는 가정 환경 속에서 부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며, 그 중에서도 어머니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유아와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만큼 어머니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며, 성장하게 된다. 인간이 생의 초기부터 맺게 되는 양육자와의 관계가 성인기의 삶뿐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갓 태어난 아이가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자신 안의 신체적 욕구들로 인해서 불안이 높아지게 될 때, 양육자가 아이의 불안을 담아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준다면 아이는 양육자를 자기대상으로 경험하게 된다. 아직도 미숙한 상태인 아이의 정신은 전능한 자기대상과의 동일시를 통해 자기애적 평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자기대상의 경험이 실패하게 될 때, 아이에게 일생 동안 지속되는 심리적 결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코헛은 자기대상이 창조될 수 있게 공감적인 환경을 제공해주는 양육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계속해서 강조한다.¹⁶⁰

코헛은 하나님은 자기대상(Self Object)과 결속하는 하나의 축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신과의 정서적인 연합”은 종교에 대한 새로운 정신분석학의 핵심을 말해주는 용어지만 더 세부적인 이론으로 발달시키지는 않았다. 코헛은 이상화된 부모상과의 관계는 진실한 신자가 그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유사점을 가질 수 있다. 즉 힘없고 겸허한 신자가 융합하기를 원하는 완전하고 전능한 하나님은 아주 오래된 전능한 자기대상, 이상화된 부모상과 일치한다¹⁶¹는 것이다.

자기의 초기 구성물들은 주로 어머니 자기대상과의 관계에서 함께 획득되지만 핵심적인 과대주의는 아동기 초기(2-4세경)에, 핵심적인 이상화 구조는 아동기 후기(4-6세경)에 어느 한쪽 성의 부모 인물들과 관련된다.¹⁶²

이 시기에 아이를 헌신적으로 돌보아 주는 부모의 지원을 받아서 아이는 차츰 응집력 있는 자기로 발달한다. 신생아는 어머니와의 공생적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전하고 자신이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에적 평정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차츰 양육자의 돌봄에서 점차 피할 수 없는 결함이 발생하면서 아이는 이전에 경험했던 완전함을 유지하기 위해 과대자기와 이상화된 부모원상이라는 원초적 구성물을 창조한다. 코헛은 이 두 구성물은 성격 속에 존재하는 자기에적 영역의 핵심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두

¹⁶⁰ Heinz Kohut, 「자기의 회복」,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6), pp. 91-93.

¹⁶¹ Jay R. Greenberg, Stephen R. Mitchell, op. cit. pp. 549-550.

¹⁶² Allen M. Siegel, 「하인즈 코헛과 자기 심리학」, 권명수 옮김,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p. 171.

원상의 중심기제는 “나는 완전하다”와 “너는 완전하며 나는 너의 일부이다”이다. 서로 대칭되는 기제는 처음부터 공존하며 독립적으로 발달해 나간다.¹⁶³

이상화된 부모원상의 발달은 아이가 전능감을 부모에게 투사시켜서 모든 행복과 힘이 이상화된 대상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그들과 가까워짐으로써 자기에적 완벽감을 재획득하려 시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상화하는 자기에적 리비도는 양육자의 돌봄으로 인해 자기대상과 결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상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창조성과 지혜라는 중요한 활동을 위한 주 자원이 된다. 전능한 부모를 가지려던 아이의 소망은 외상이 되지 않을 정도의 부모에 대한 실망을 통해 좌절된다, 이때 아이는 전능한 대상을 자기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상화된 부모원상이 담당했던 기능을 수행하는 정신 구조의 한 부분을 만들어 낸다. 코헛은 이 과정을 변형된 내재화라고 말한다. 발달 과정 동안 일어나는 변형적 내재화를 통해 이상화된 부모원상은 중화하는 정신의 기초조직을 형성하고, 또한 이상화된 초자아로 내사되어 이상을 안내하는 지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정신조직의 구성요소가 된다.¹⁶⁴

훌륭한 자기대상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핵심적인 포부와 가치, 목표와 아울러 자신감을 갖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인간이 살아 숨쉬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수적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신체 기관이 온전하게 형성되지 않았다면, 신체적으로 건강한 삶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강한 신체의 기관이 형성되는 것 또한 산소 못지 않게 중요하다. 이와

¹⁶³ Heinz Kohut, 「자기의 분석」,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5), p. 38.

¹⁶⁴ Ibid, p. 39.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응집적으로 형성된 개인의 내적 능력은 그들 주변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대상을 찾아내고 선택하고 보다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¹⁶⁵

라. 사무엘의 하나님 경험

사무엘은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전환하는 이스라엘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막대한 임무를 맡은 훌륭한 지도자였을 뿐 아니라 향후 왕정체제의 두 주역인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정국가의 형성에 기반을 닦은 인물이다.

사무엘(שמואל)은 ‘하나님의 이름’ 또는 ‘하나님께서 들으심’ 이란 뜻으로 사사의 지위로서 사사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와 조직의 생활을 가져오게 한 인물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초기 두 왕인 사울과 다윗을 세운 자로서 명실 공히 이스라엘 왕정 제도의 창설자였다. 아울러 사무엘은 선지자의 직위로서 사사시대의 종교적 부패와 방종을 일소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어준 이스라엘 종교 부흥의 기수였다. 아울러 그는 사사시대까지의 씨족적 소종교 제도를 극복하고, 왕정 시대의 민족적 대종교 제도를 발전시킨 선지적 종교의 길잡이였다. 즉 이스라엘의 종교를 제사장 가문이 독점, 지배하던 시대는 엘리 가정의 몰락과 함께 마무리되고, 그 후

¹⁶⁵ Heinz Kohut, 「정신분석은 어떻게 치료하는가?」,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7), P. 121.

선지자 사무엘이 영도하는 선지 시대가 막을 연 것이다.¹⁶⁶

사무엘은 유일하게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삼중직 기능을 모두 수행한 인물이다.

(1) 유대인의 자녀 교육

유대인의 자녀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아기가 강보에 쌓여 있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들이 말을 시작하면 쉼마¹⁶⁷를 외우게 하고 아침 저녁으로 암송하게 한다. 자녀의 쉼마 교육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우 귀한 신앙교육의 본질이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고백하고 이 믿음을 자손에게 계승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새겨야 한다. 또한 자녀가 말할 수 있을 때 토라를 가르쳐 암송시켰다. 토라 교육은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 전수받은 신앙의 유산을 철저히 가르쳐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면서 삶 가운데 꼭 지키는 자녀로 양육하는 의무를 부모들을 가지고 있다. 부모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가르치되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모범을 통해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유대인 가정은 종교적인 신앙을 전수하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며

¹⁶⁶ 강병도 편, 호크마주석, 「사무엘상하」, (서울: 기독교출판사, 1990) p. 22.

¹⁶⁷ 신 6: 4-9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여호와와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를 교육하는 곳이다. 또한 유대인 자녀들은 가정에서 부모를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을 배우는 곳이다. 성경은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고 신앙적인 성장의 통로역할을 하는 곳이다.

유대인 가정 교육에 있어 한 살부터 세 살까지의 시기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공식적인 종교적 의식과 의무 속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출생 직후부터 신앙교육을 시작한다. 필로(Philo)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신성한 계시로 간주하고 그들이 가장 어렸을 때부터 그 지식 속에서 교훈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 깊숙한 곳에 율법을 품고 산다. 말하자면 그들은 심지어 신성한 율법이나 전해오는 관습들의 교훈을 받기 전 이미 강보에 쌓여 있을 때부터 그들의 부모나, 교사 또는 그들의 양육자들로부터 이 세계의 창조주이며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¹⁶⁸고 했다.

4세 이후가 되면 부모는 아이들을 회당으로 데려가 토라 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다. 회당에서는 예배 행위가 제사가 아니라, 가르치는 교육 행위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회당 안에서는 ‘율법’을 적은 두루마리가 회중을 향하여 놓여 있고 회당장이 있어 모든 종교 활동과 교육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 아울러 하잔이라고 불리는 회당 전속 전문가가 있어 의식을 보좌할 뿐 아니라 주간 동안 많은 히브리 사람들과 어린이들을 가르쳤다. 이와 같이 토라를 가르치고 또한 예배 드리는 곳인 회당은 유대인 생활의 중심이 되었으며 성전 파괴 이후 유대인들이 모이는

¹⁶⁸ 현용수, 「IQ는 아버지 EQ는 어머니 몫이다. 1권」, (서울: 조선일보, 1997), p. 61.

곳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회당이 생길 정도로 회당은 보편적인 교육 기관이 되었다.¹⁶⁹

유대인에게 아버지들이 자녀교육에 많은 역할을 하지만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갖는다. 어머니의 역할이 매우 큼을 말한다.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이미지는 아이에게 내면화되고 아이가 갖게 되는 하나님 이미지의 기초가 된다.

(2) 사무엘의 탄생

사무엘이 출생할 당시는 사사 시대 말기로 이 때 이스라엘의 정치, 경제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쇠퇴한 시기였다.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삿 21:25)라고 이 때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무엘은 에브라임의 산지 라마다임소빔에서 출생하였다(삼상 1:1). 그의 아버지는 레위 가문 계열의 그핫 후손 엘가나로, 사무엘은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출생한 맏아들이다.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부와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레위 사람이다.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매우 경건한 열심과 큰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다.

“한나는 자식이 없고” (삼상 1:2), 엘리 제사장은 홉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다. 엘리제사장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서는 엘가나가 제사 드리러 가는 실로에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삼상 1:3). 한나는 자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남편의 씨받이인 브닌나에게

¹⁶⁹Ibid. pp. 64-65.

수모를 당해 “울고 먹지 않았다” (삼상 1:7,8).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서원을 이루려고 하는 신앙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엘리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보단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장으로 함께 성전에 있었다는 직업을 나타내고 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의 슬픔을 알고 한나에게 갑절이나 제물의 분깃을 주었지만, 브닌나가 애를 많이 나오니, 자신의 몸에서 아이를 나올 수 없음과, 매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무시와 천대를 받았고 남편의 대를 잇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슬픔으로 가득 찼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이전에 한나와 브닌나 사이에는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

한나는 그런 치욕 속에서도 비난을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 오직 그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였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치욕을 거두시고, 그 괴로움을 해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 하였다. 이 때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아 있었다(삼상 1:9). 엘리는 그녀가 기도하는 동안 그녀의 눈물을 보지 않고 그녀의 입술만 바라본다(삼상 1:12). 술 취한 여자로 보고 분을 내며 “포도주를 끊으라” (삼상 1:14)고 한다. 성전에서 평생토록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술 취한 세상적인 모습을 분간하지 못하는 엘리의 모습 속에서 그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알게 된다. 그리고 삼상 1:17절에 한나에게 형식적으로 축복을 한다. “기도하여 구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을 기원한다.¹⁷⁰

¹⁷⁰ 삼상 1: 17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

아들을 낳는다면 젖을 떼고 난 후에 바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기도를 드린다. 그 후 한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오랫동안 기다리던 아들을 낳고 사무엘이라 하였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뗄 나이가 될 때까지 성소에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며 사무엘을 양육한다. 모세가 젖을 뗄 때까지 양육했던 모세의 엄마처럼 한나도 사무엘에게 최선을 다해 ‘충분히 좋은 엄마’의 역할을 다한다. 당시 유대인 엄마들이 젖을 떼는 시기를 최소한 3-5세 정도로 볼 때 사무엘에게 있어 엄마 한나와의 초기 대상관계 경험은 그의 인격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비론 브닌나와 배다른 형제들과의 갈등 구도도 있었겠지만 일차적으로 엄마 한나와의 긍정적인 경험은 사무엘에게 역기능적인 엘리 제사장의 가정 구도 속에서 성장하는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엄마와의 초기 대상관계가 긍정적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소에 제사하러 오는 많은 백성들과의 긍정적인 대상관계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총으로 인하여 그는 비교적 인격적으로 성숙하게 자랄 수 있었다.¹⁷¹

(3) 사무엘의 소명과 계시(사무엘상 3:1-14)

한나는 아들을 낳은 후 아이가 젖을 뗄 후 서원을 지켜 성소에 올라갔다. 세 살에서 다섯 살 즈음이었을 것이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아버지 엘가나는 아들 사무엘의 교육을 의논했고, 그것을 일관성 있게 유지시켰으며,

¹⁷¹ 이관직, 「성서인물과 심리분석」,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p. 140.

사무엘을 성전에 맡기는 문제에도 한나와 엘가나는 의견의 일치를 보인다.¹⁷²

한나는 매년 남편과 함께 예배하러 실로에 갈 때 손수 아들의 의복을 만들어 가지고 갔다. 사무엘은 매년 정해진 절기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전에 올라오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고, 한나와 엘가나는 사무엘 앞에서 올바르게 건전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어린 사무엘 마음 속에는 사랑하는 엄마와 만남과 헤어짐의 기쁨과 슬픔의 애증의 관계가 계속되는 슬픔을 겪게 된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엘리 가문이나 이스라엘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스스로 경건과 거룩을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비참한 영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시려는 계획을 볼 수 있다.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극히 드물었다(삼상 3:1).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 역시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기가 힘들었다(삼상 3:2).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자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3번 경험한다(삼상 3:3-8). 하나님의 부르심에 원망 없이 응한다(삼상 3:6, 8, 21). 그런데 사무엘은 그때마다 엘리가 부르는 줄 착각한다. 엘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삼상 3:9),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삼상 3:10)하고 순종하였다.

¹⁷² 삼상 1:22-23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젓 떼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뵈게 하고 거기 영영히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대로 하여 그를 젓 떼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젓 떼기까지 기다리다가”

사무엘의 소명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에서 비롯되었고 사무엘은 소명을 그 자신이 의식하였다. 이스라엘의 예언자적 기능을 새롭게 하였다. 어린 나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따라 소명의식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았다.

(4) 사무엘의 사역

사무엘은 종교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였고, 영적 회복 운동운동을 전개하였다. 영적 무지와 타락은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과 사회적 혼란 그리고 전쟁으로 이어 졌다. 엘리제사장 때에는 홉니와 비느하스의 범죄로 하나님의 법궤를 불레셋에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어 사무엘은 우상을 제거하라고 (삼상 7:3) 호소하여 우상숭배로 인해 어려움을 당함을 교훈하였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로 인한 영적 타락을 견뎌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것을 강조했다. 백성들을 속이지 않고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뇌물을 취하거나 부정축재를 하지 않았다(삼상 12:4).

사무엘은 미스마에서 회개운동을 주도하였다(삼상 7:5-6). 여러 도시를 돌며 가르쳤고, 기도를 열심히 하였다. 이방인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쟁하였고,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삼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름 부음의 사역을 감당하였다.

또한 회막 문지기를 임명(대상 9:17-26)하였고, 유월절 잔치를 성대하게 거행(대하 35:18), 성전예물 봉헌하였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받아 카리스마적 신정체제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가는 전환시기에 사역을 감당하였다. 사무엘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사역한다는 신전의식으로

사역하였다(삼상 12:16). 이런 의식은 제사장, 선지자, 사사로서 일생 동안 청렴하고 덕망 있는 지도자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사사의 직책을 맡고 있는 동안 사무엘은 본거지를 라마에 두고, 혼란한 이스라엘에 평안과 공의를 확립하기 위해 매년 벳엘, 길갈, 미스바를 순회했다.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이 직분을 감당했다(삼상 7:15).

마. 사무엘의 수피에고가 자녀에게 미친 영향

(아동기 발달 장애와 높은 수피에고의 갈등이 만들어낸 사무엘)

프로이트는 신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주는 관계를 아버지로 한정시켰다. 그러나 대상관계이론가들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중요시하여 초기 유아기부터 어떤 발달 단계든지 표상을 형성하는 순간에 지배적, 정서적인 경험을 갖게하는 대상을 통해 신 이미지가 형성됨을 언급하였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타인 즉 부모에게 완전히 의존해서 살아가게 된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하는 것 또한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 환경이나 가족의 영향력은 아동이 자라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즉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는 그 아이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주게 된다. 아이는 부모로부터 받은 돌봄을 통해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자기상을 가지게 되고 부모로부터 받는 대우를 경험하면서 자기상을 형성하게 된다.

(1) 엘리 제사장과 그 가족이 사무엘에게 미친 영향

인간은 관계 속에 사는 존재이다. 그 관계가 바람직하고 건전할 때에는 보다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삶을 창출하게 될 것이고, 반대로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는 무관심, 갈등, 분열 나아가서는

파탄으로까지 이어지는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된다.¹⁷³

가족치료 이론에서 개인의 성격을 치료함에 있어 그 문제를 개인에게 국한하지 않고 가족의 문제로 접근한다. 그 이유는 한 개인의 성격은 한 개인의 성격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성격 안에는 가족의 영향이 녹아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가족의 각 구성원들이 가진 기본적인 욕구와 추구하는 목표에 따라서 삶의 방식 또한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가)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일반적 연구

아동이 아동기에 최초의 경험인 가정의 분위기, 부모의 양육태도 등 가정 환경은 개인의 성격은 물론 가치관이나 행동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의 인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속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가 사회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가족 구조의 변화, 여성의 사회 진출, 아버지의 참여와 관심은 자녀의 전인적 발달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녀 양육을 어머니가 전담하기보다는 아버지도 함께 분담해야 한다는 의식이 절실히 필요하다.

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이론은 아버지의 역할에 대하여 3~6세 남아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와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남아의 경우 전오이디푸스(Pre-Oedipal)기간에는 아버지를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에 대한

¹⁷³ 이도선, 「관계중심교육」, (서울: 나침반, 1997), p. 20.

감탄과 애정의 감정으로 본다. 그래서 아동이 아버지에게서 보호를 받을 필요를 느낀다. 남근기 기간을 지나면서 어머니에게 리비도적 감정을 갖게된다. 이때 어린 남아는 아버지를 어머니의 사랑과 관심에 대한 경쟁자와 적대감의 대상으로 질투하고 미워하여 어머니와 친해지려는 긍정적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형성하게 된다. 이 시기에 정상 남아의 경우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과 질투심으로 인한 거세불안(castration anxiety)을 느낀다. 또한 두려움에서 오는 거세불안을 감소시키고 어머니의 애정을 얻기 위해 동일시(identification)의 심리적 기제가 나타난다. 아버지에 대한 동일시 과정은 남아의 성역할 발달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초자아(Super-Ego) 형성에 기초가 된다. 이 때 아버지는 자녀가 사회에서 요구하는 양심과 도덕성 발달에 필수적인 초자아를 내면화해 주며 초자아는 규율이나 가치를 습득하는데 도움을 준다.

프로이트 이론에 따르면 아버지의 역할을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¹⁷⁴

첫째: 아버지는 자녀, 특히 아동에게 동일시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둘째: 자녀들이 자신들은 무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겨 이 욕구를 아버지에게서 해결하려고 한다.

셋째, 아버지를 절대권위자로 생각한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이 두려움으로부터 아버지-자녀간은 더욱 가까워진다. 결국 아버지는 자녀의 성역할이나 초자아 및 도덕적 행동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¹⁷⁴ 김행자, “청소년기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에 관한 연구”, 생활문화예술논집, (서울: 건국대학교생활문화연구소, 1987), pp. 28-29.

② 사회학습이론

사회학습이론은 자녀의 모델로서의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한다. Bandura(1968)는 직접적인 강화나 벌이 없이도 일어날 수 있는 관찰을 통한 모방학습을 강조하여 아버지의 역할이 남아에게는 남성다움으로 여아에게는 여성다움으로 변화하게 하는 데 공헌한다고 보았다. 또한 아동의 바람직한 행동 형성을 위해 보상과 처벌을 사용하는 훈육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아버지는 가족 내에서 사회와 가족을 연결하는 대표자로, 경제적 제공자이며, 최종적인 판단의 결정자이고, 궁극적인 자녀 훈련의 담당자로 인식된다. 또한 자녀에게 모범행동을 보임으로 바른 가치관을 갖게하는 역할을 한다. 아버지가 자녀의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들은 아버지 역할의 재평가 및 인식의 변화에 도움을 준다. 사회적 변화와 아울러 자녀의 훈육이나 양육은 부모 공동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증가시켜 과거에 비하여 아버지의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조하게 되었다.¹⁷⁵

학습이론에 따르면 학습이 일어나는 데에는 두 가지 기제가 있다 아동들은 강화(Reinforcement)를 통해 사람들의 특정한 행동을 배운다. 또한 모방(Imitation)을 통해 역할모형의 태도와 행동을 단순히 관찰함으로써 사회적 태도와 행동을 학습한다. 아버지는 아동들이 사회 규범에 맞는 행동의 습득을 함에 있어 모방과 관찰학습을 통하여 남자는 남성성 발달과 여아가 성역할을 습득하는데 영향력을 준다.

¹⁷⁵ 유연화, 최경애,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 인식과 수행에 관한 조사 연구”, 경북논총, Vol. 1, (경북대학, 1997), pp. 266-269.

③ Parson 이론

Parson은 역할 구조 면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도구적 역할(Instrumental Role)로서, 어머니의 역할을 표현적 역할(Expressive Role)로 구분하고 있다. 즉 아버지는 가족 체계 내에서의 사회적 대표자, 사회 내에서의 가족의 대표자로 보고, 아버지는 제공자, 판단하는 사람, 긍정적인 훈육의 책임자로서 아동으로 하여금 장래 계획을 설계하도록 하며 아동이 능력이 있고 독립된 성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며 아들에 대해서는 남성 역할의 모델이 된다.

고수길은 “아버지 역할과 자녀의 인성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아버지의 역할수행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¹⁷⁶

첫째, 아버지 역할 상실은 자녀의 활동성과 안정성을 저하시키며 충동성에 영향을 준다. 이는 아버지의 부재는 성별화 된 행동유형을 배울 기회의 부족과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활동성이 저하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아버지 부재로 가정에 경제적 곤란과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가져다 주며, 남편 사망이나 이혼에 따른 슬픔, 고독감 등의 영향으로 안정성의 저하와 충동성에 영향을 준다.

둘째, 여아의 경우는 사회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보인다. 아버지를 통해 남성-여성관계를 볼 기회부족과 어머니가 갖는 남성관등의 영향이 아버지의 부재로 인하여 사회성(이성관계)이 저하될 수 있다.

¹⁷⁶ 고수길, “아버지 역할과 자녀의 인성발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84), p. 46.

셋째, 아버지의 부재는 분석적 사고와 창의성에 따른 사려성과 지배성에도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아버지가 훈육담당자, 통제자, 가정과 사회를 연결시키는 중개자의 역할을 못하므로 반사회적 행동도 많아질 수 있다.

다섯째, 아버지 부재를 자각하여 아버지 역할을 긍정적으로 대행하려는 경우 활동성과 지배성이 증가되기도 하나 전반적으로 인성발달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녀의 바람직한 성격형성을 도와주며, 기본적인 훈육,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하는 역할, 경제적 지원, 특히 신앙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는 일 등 아버지가 자녀 교육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것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될 부분들이다. 이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자녀교육에 미치는 아버지의 역할과 중요성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엘리 제사장의 아버지 역할 부재

*****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회 심리학적 이유를 항목을 나누어******

***** 엘리제사장을 연구하여 그곳에서 아버지의 역할 부재를 한 항목으로 나눌 것**

등등으로 앞에 연구한 이론으로 사무엘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 연구를 위해서 앞에서 연구한 것이다. 이 부분이 논문의 본론인데 오히려 부수적 연구 같이 보인다.

영어의 Family는 ‘가족’ 혹은 ‘가정’ 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는데 이 말은 라틴어 ‘familia, 또는 ‘famulus’ 에서 파생된 말로 그 의미는 한 주인에게 속하였던 재산, 노예 또는 집에 속한 사람을 뜻하는 혈연관계

등으로 공동 장소에서 더불어 희로애락과 숙식 및 기거를 하는 집단을 의미한다.¹⁷⁷

엘리는 실로의 제사장이자 사사로 하나님을 섬겼다. 엘리라는 이름의 뜻은 ‘고귀한, 신분이 높은’ 이란 뜻이다. 엘리는 아론의 막내 아들인 이다말 자손으로(삼상 1:9, 왕상 2:27). 사사의 역할과 함께 제사장의 직무도 겸하였다(삼상 4:18)

엘리의 두 아들을 두었다. 아들들의 이름은 홉니와 비느하스이다. 홉니라는 이름은 ‘싸움꾼’, 비느하스는 ‘뱀의 입, 놋쇠 입’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엘리는 58세에 사사가 되어 40년 동안 사역하였고(삼상 4:18), 98세에 세상을 떠났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교육을 어떻게 했을까?

엘리의 아들들인 홉니와 비느하스는 사무엘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같이 성전에서 자랐다. 홉니와 비느하스도 사무엘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함께 제사를 드렸을 것이다. 그런데 엘리의 자녀들과 사무엘은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엘리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자랐을까?

성경은 그리스도인 남성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모범을 보임으로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해야 한다고 가르친다(신 6:7, 11:19; 엡 6:4; 시 34:11; 78:5-6). 부모의 최우선의 목표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여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성숙했을 때 영적으로도 성숙한 성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눅 2:41-42). 하나님과 가족 관계는 세대를 통하여 이어지며, 하나님의

¹⁷⁷ 김국환, 「기독교교육사역론」,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1993), p. 288.

약속들의 결과가 3,4 대 자손까지 도달한다고 가르친다. (창 12:2-3; 행 16:31; 고전 7:14; 딤편 5:3-16; 딤후 1:5).¹⁷⁸

엘리는 아들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자식들이 저주를 자청했음에도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삼상 3: 13).¹⁷⁹ ‘저주를 청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에게 저주를 내려달라고 대들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엘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그런 말을 하지 말도록 막지도 않았다. 엘리는 자녀들이 어떻게 살든 그대로 내버려 둔 것이다. 백성들이 다 알고 소문을 전해준 다음에야 자식에게 한마디 하였다. 이는 엘리가 자녀들을 훈계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았음을 보여준다. 엘리는 마음으로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면서도 잘되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¹⁸⁰

엘리 제사장의 이런 모습은 회피성 인격장애(Avoidant Personality Disorder)에 가깝다.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듣고도 별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그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삼상 3:18)고 반응하였을 뿐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삼상 2:22절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다” (삼상 2:22)는 말씀은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¹⁷⁸ Gary Collins 편, 기독교상담시리즈 14, George A. Rekers, 「가정상담」, (서울: 두란노, 1995), pp. 94-103.

¹⁷⁹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¹⁸⁰ 김인수, 「우리 아이 어떻게 양육할까?」 (서울: 성안당, 2008), p. 19.

①노령을 뜻하는 말이다.

Bigner(1977)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연령이 아버지 역할에 대한 태도나 아버지-자녀의 활동시간과 유의있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녀와의 상호 작용시간이 줄어들었음을 보고하였다.¹⁸¹

나이가 많은 엘리는 제사장의 직무로 두 아들과 특별한 활동을 하거나 교육하는데 많은 제약점이 있었을 것이다.

②야훼 신앙과 제사의 철저성을 잃어버렸다.

엘리는 매우 방임적인 자녀교육을 했다. 그 두 아들 역시 성전에서 자랐지만 하나님께 바치는 재물을 가로채고 제사장 법도를 무시했다.

엘리는 세속적 가치(내가 세상의 중심이다)에 따라 양육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아버지로 인해 유복하게 살았다. 엘리는 그들의 소행을 보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훈계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엘리의 집의 죄악으로 인해 그 제물이나 예물로도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한다(삼상3:14) .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릴 것임을 경고 받았음에도 회개하거나 자녀들을 훈계하지 않았다.

③자녀를 신앙적으로 지도할만한 역량이 없었다. 이 사실은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삼상 2:29)는 말씀에서

¹⁸¹ 최혜숙, “아버지 역할에 대한 이해”, (원우론집,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7), p. 275.

찾을 수 있다.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엘리는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을 것이다. 가르쳤다 해도 제사장 엘리는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실패했다. 이스라엘 가정의 아버지는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직업을 위한 기능을 가르치고, 결혼생활에 대하여 가르쳐야 하는 세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무가 아이에게 세 살이 되면 웨마를 가르치는 것(신 6:4-9)이었다. 이것은 모든 유대인이 해야 하는 의무인데, 특히 제사장인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에게 제사장직에 대한 귀중함을 가르치는 것을 소홀히 한 것은 엘리의 커다란 실수이다. 또한 성경에는 엘리 아내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내와의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회피하고 묻어두는 결혼생활이었을 것이다. 그런 건강하지 못한 결혼 생활 방식은 자녀를 교육하는데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지며, 결국 자녀들의 성장과정에서 잘못을 했을때에 적절하게 훈계하거나 야단치지 못해, 성장한 자녀들이 불의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적당히 회피하고 넘어가는 방식을 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엘리는 자신의 회피성 인격장애로 인한 자녀 교육의 실패와, 무능한 자식들의 범죄 때문에 성소의 언약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 흡니와 비느하스는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으며 자신도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의자에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다. 무분별한 자식에 대한 과잉 사랑이 한 가정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와 백성까지 패망케 했다(삼상 4: 1-22).

또한 엘리와 두 아들의 죄는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영향을 미쳤다. 그가 받은 영향은 사무엘 자신이 경건한 아버지가 되지 못했으며, 그 때문에 두 아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왕으로 삼아달라고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엘리는 목회자 자녀교육의 모형이다. 목회자가 아무리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대형 교회를 이끌어 가더라도, 자녀교육에도 역할을 다해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엘리에게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무엘을 키우고 평생 제사장으로서는 역할을 다한 엘라도 자녀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녀들은 올바르게 자라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도록 키우지 못하고 물질적으로 보상하려는 허용적인 양육은 자녀를 망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준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방관적, 허용적 양육을 좋아하지 않는다.¹⁸²

목회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주위의 시선과 부모자신의 높은 수퍼에고로 인하여 사랑과 훈계를 일관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성수는 그의 논문 “성경인물의 부모 양육태도를 통해 본 성경적 자녀교육의 원리”에서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를 분석하여 성경적 자녀교육의 원리¹⁸³를 다섯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세상 가치의 교육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가치의 교육을 통해 분명한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어야 한다.

둘째, 생애 초기에 부모와의 안정된 애착을 평생을 두고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생애 초기에 안정된 애착이 형성되어야 자녀가 불안해 하지 않고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¹⁸² David Clarke, 「자녀양육전쟁」, (서울: 브니엘, 2003), p. 46.

¹⁸³ 전성수, “성경인물의 부모 양육태도를 통해 본 성경적 자녀교육의 원리”,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pp. 111-112.

셋째, 조기 성경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자녀는 초기에 습관 형성이 되어야 하며, 성격 형성이 어려서 이루어지므로 초기에 성경 교육을 시켜야 하나님에 가치를 둔 삶을 살 수 있다.

넷째, 편애하지 않고, 방임하지 않고, 자녀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 사랑의 돌봄과 공감의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자녀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부모의 양육이 필요하다.

다섯째, 권위 있고 원칙 있는 훈계를 통해 자녀가 올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에 미친 영향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정도 만드셨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의한 것이다. 성서에 나타난 가정은 생활과 종교가 함께 이루어지는 곳으로서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자녀들을 종교적으로 훈련시켰다.

구약성서에 나타난 가정은 좁은 의미로는 아담과 아내와 자녀로 구성된 아담의 가족,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자부로 구성된 노아의 가족, 그리고 넓은 의미의 가정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자녀들, 혹은 부부에게 자녀가 없을 경우 남편이 주선한 자와의 관계에서 난 자녀와 집에 속한 종이나 노예 또는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합하여 가족으로 생각하였다.¹⁸⁴

구약성서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종교로 뭉쳐진 공동체다. 부모 모두가 가정 안에서 신앙의 교육자, 신앙의 전수자로 책임과 의무를

¹⁸⁴ 강사문, “오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 총회교육부 편, 「생명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pp. 60-61.

가지고,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쳤다.

엘리가 늙자 그 아들들이 회막(會幕)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을 겁탈하는가 하면 아버지의 말도 무시한다. 성경은 이들을 불량자라고 하였다(삼상 2:12).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엘리시대의 종말을 고한다(삼상 2:22-36).

사무엘상 2:12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한다.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장 반열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선택 받은 자들이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렸으며,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제사장의 아들이며, 제사장인 홉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길도 모른다는 것이다. 홉니와 비느하스의 불신앙과 범죄는 선천적 요소보다 후천적인 요인이 더 크다.

제사장은 경건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제사장은 지도자이다. 제사장으로, 지도자로 백성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경건한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뺨뚫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또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공산주의 창시자 카를 마르크스는 유대교 신자였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하인리히 마르크스의 아들이었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 로시프 스탈린은 희랍정교의 티프리스 신학을 중퇴하였다. 무신론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독일 개신교목사의 아들이었다. 전통 있는 기독교 가정에서 성실하고 유능한 자녀가 태어나지 못하고 가라지와 같은 자녀가 태어났단 말인가?

성경은 제사장과 그의 자녀들의 모습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말하고 있다. 어떤 제사장의 자녀들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 또 다른

제사장의 자녀들은 교만하고 거만하며, 공모하며, 살인적인 모습을 들어내기도 한다. 이와 같이 성경에 나타난 제사장 자녀들의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의 제사장 자녀들과 부정적인 모습의 제사장 자녀들의 모습이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환경이 좋고 나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목회현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인간의 본성적인 약점들, 즉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스스로가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느냐 하는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러한 힘과 능력의 뿌리는 중요한 시기들에 형성 되어진 건강한 자아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¹⁸⁵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해도 하나님을 모두 경험하고 아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이다. 이들은 하나님의 경험을 위해 가르침을 받았어야 했다.

하나님의 개념을 자녀에게 심어주고자 하는 부모가 자신이 먼저 아이들에게 존경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면 부모의 가치관은 아이들에게 아무런 공감을 줄 수 없을 것이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므로 부모는 맡은 자로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양육해야 한다.

사무엘상 2: 26에는 절대 헌신과 절대 성결을 삶의 목표로 삼아야 할 제사장의 두 아들이 영적, 도덕적으로 지극히 타락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무엘과 홉니와 비스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내용을 살펴보자.

장면 1) 사무엘상 2:11절 사무엘의 성전에서의 삶이 시작된다. “제사장

¹⁸⁵ 김은영 “흔들리는 목회자 자녀의 자아정체감 향상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개발”,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2002), p. 5.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런데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삼상 2:12). 엘리의 잘못된 태도와 자녀들의 비리가 폭로된다. 삼상 2:13-17절에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해도 책망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

장면 2) 사무엘상 2:18-21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은 키가 자라가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죄가 자라고 있음에도 아버지 엘리는 죄를 중하게 생각은 하지만 벌하지 않고 타이른다. 삼상 2:22절에 아버지 엘리가 그 아들이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과 동침하였다는 소식을 듣는다. 삼상 2:24절에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고 하였더니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 (삼상 2:25).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신다.

장면 3)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세 번씩이나 엘리에게 가봤으나 엘리는 사무엘을 부른 적이 없다고 한다. 마침내 엘리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른 것이라 여겨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가 자기에게 고하라고 일러 둔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진다(삼상 3:1-18).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성경은 엘리의 아들들의 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①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삼상 2:12)

하나님을 무시하여 그분에 대한 신령한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았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는 말은 매우 충격적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말한다.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엘리의 책임이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무시하며 그를 부인하는 자가 제사장직을 수행하였다는 것은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② 여호와의 규례를 무시했다(삼상 2:13-16)

그들은 경건한 제사제도를 문란케 하였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화제로 드릴 것과 제사장의 몫, 또 제사를 드린 제주의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레 7:28-36). 엘리의 아들들은 정해진 제사의 규례를 무시하고 자기 편리대로 행했다.

③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삼상 2:17)

엘리의 아들들은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자기의 필요를 위해 먼저 사용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이다. 그것도 순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짓고 있다. 구약 시대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는 희생제사였다(레 17:10-16). 그런데도 엘리의 두 아들은 신성한 제사 법도를 무시한 채 사욕(私慾)을 채움으로써 제사 기능을 마비시키고 만 것이다.

④ 우상숭배와 같은 간음 죄를 지었다(삼상 2:22-24)

성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간음함은 아버지 엘리의 명예를 크게

더럽히는 행위였다. 엘리는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긴다. 두 아들이 악한 것을 알면서 아들들을 꾸짖었지만 아주 엄한 질책은 아니었다.

⑤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았다(삼상 2:25).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신실한 믿음과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한 성경과 자신의 아들들이 범한 죄에 대해 관용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다. 구십팔세를 일기로 삶을 마무리한 엘리 제사장은 안타깝게도 사십 년의 사생활 동안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를 잘 양육하지 못한 지도자로 언급된다.

두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된 자들로서 제사장에 대한 소명의식이 전혀 없는 자들이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전혀 없이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하는 그들은 그 인격이 사악한 악의 사람들이었다. 홉니와 비느하스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악한 사람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같은 인격장애의 모습 뒤에는 거의 확실하게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내의 양육방법에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듣고도 별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도 그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삼상 3:18)고 반응하였을 뿐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엘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두 아들들의 성장과정에서 잘못할 때에 거절하고도 일관성 있게 훈계하고 야단치지 못하고 문제점들을 그냥 회피하고 지나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성장과정에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상실해 버린 엘리는 성장한 두 아들이 계속적으로 비행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엄하게 꾸짖지 못했다. 또한 그 꾸짖음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했다.¹⁸⁶

흡니와 비스하스의 심각한 탈선의 원인을 삼상 3:13절에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고 하였다.

결국 ① 엘리의 두 아들이 한낱에 전쟁터에서 죽었다(삼상 4:11,17).

②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었다(4:18).

③ 엘리의 며느리가 해산하다가 죽게 된다(삼상 4:19-22).

④ 엘리의 후손들이 도역에 의하여 대량학살(삼하 22:11-23)되었다.

⑤ 엘리 집안의 대제사장인 아비아달이 솔로몬의 의하여 제사장직이 파면되고 사독에게로 넘어가는(왕상 2:27,35) 하나님의 사람의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빼앗기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을 제사장 집안으로 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특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

가정의 환경은 아동의 성격형성과 사회성 개발, 지능 발달, 신앙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자녀가 어릴수록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김희자는 “환경을 통하여 교육된다는 것은 가정의 분위기를 통하여 교육되는 것으로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들을 포함한다.

¹⁸⁶ 이관직, “가정목회에 실패한 성경 속의 지도자들”, 목회와 신학 5월호 (서울: 두란노, 1999), pp. 64-65.

가정의 종교적인 분위기는 자녀를 신앙인으로서 양육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환경에 의한 자녀의 신앙형성은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 평범한 것 같은 대화, 순간 나타나는 깊은 애정, 함께하는 식사나 청소, 잠자리에서의 애정, 함께하는 놀이나 운동, 잠자리에서의 짧은 대화, 가족끼리의 여행 등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¹⁸⁷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삶의 모델, 즉 신앙의 모범이 되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여야 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 이부분에서는 앞에서 연구한 모든 학자들의 이론을 따라 가면서 사무엘의 슈퍼 에고를 정리해야 한다. 앞에서 연구한 학자들의 이론을 이 부분에서 항목별로 구분하여 연구하지 않으면 앞에 있는 연구를 왜 했는지 묻는다.

예를 들어 프로이트의 지정학적 이론, 성격 구조론을 연구를 했는데 이부분에서도 앞 부분의 중요한 한두 문장을 가지고 와서

- 1) 프로이트 입장에서 본 사무엘의 슈퍼 에고
프로이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힘들이 무의식 안에 존재하며, 그 힘들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선택을 하도록 강요한다. 초자아는

¹⁸⁷ 김희자, 「정보화 사회와 기독교교육」, (서울: 홍신대학교 출판부, 1996), p. 94.

어린 시절에 본능을 통제하고 아버지와 사회의 금기사항을 내면화해야 하는 내부 심리의 필요성 때문에 발생한다.

Superego 는 부모의 엄격함, 혹독함을 선택하고 부모의 사랑스러운 돌봄은 배제한다. Id 의 공격적 충동은 Super ego 의 감시로 Ego 에 의해 억압된다. 내적 대상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이 내면화한 부모의 음성과 이미지, 가치 등이 있다.

2) 에릭슨이 본 사무엘의 수피에고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서 볼 때, 영아기는 인생의 신앙 여정의 기초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시기이다. 비록 드러나거나 구체적으로 표현되지는 않더라도, 건물의 기초와 같이 땅 속에 있으면서 전체 신앙을 지탱해간다.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다. 자신을 신뢰하고 세상을 신뢰하며 그리고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된다. 특히 이 단계에 해당하는 1~2 세의 영아들에게 있어서는 부모를 중심으로 하여 주위 사람들의 역할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이들로부터 어떠한 돌봄을 받느냐에 따라서 신뢰감의 형성은 좌우된다. 버림을 받지 않는까 하는 두려움, 아무도 나를 돌보아 주지 않는다는 두려움이 가장 큰 시기인 만큼 부모나 주위 사람들은 이들을 잘 이해하고 항상 이들 주변에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모태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의 경우, 이 시기에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신뢰’ 를 부모를 신뢰함으로써 배우게 되므로 이 시기의 신앙 형성에 있어서 부모들의 역할은 대단하다.¹⁸⁸

2) 벨라니 클라인의 이론에서 본 사무엘의 수피에고

클라인은 프로이트의 욕동구조모델에서 관계구조모델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역할을 하였다, 욕동(Drive)은 그 자체 안에 대상을 포함하며, 곧

¹⁸⁸ 부영호,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관한 발달심리학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광주: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2006), p. 48.

관계를 의미한다. 욕동은 특정한 신체적 긴장들로부터 발생하는 양적 에너지가 아니라, 신체를 통해 표현되는 타자를 향한 사랑과 증오의 열정들이다. 환상(Phantasy)는 아동이 소유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상들이 지식의 저장소에서 나오며, 아주 어린 시기에도 근친상간적 연합의 환상(오이디푸스 콤플렉스)과 무서운 자기처벌의 환상(초자아)이, 보다 원시적이고 기묘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내적 대상들은 실제의 외적 대상과 똑 같은 복제물이 아니며, 유아의 환상과 투사에 의해 채색되며, 아동의 행동, 기분 그리고 자기감에 대한 기초를 이룬다.

또한 프로이드는 아동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오이디푸스적 갈등이 해결되고 그와 더불어 초자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본 반면에, 클라인은 남근기전에 이미 오이디푸스적 환상에 뒤따르는 가혹하고 비판적이며 편집-분열 자리와 우울적 자리라는 개념으로 무의식의 원시적인 층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¹⁸⁹

3) 코헛의 이론에서 본 사무엘의 수퍼에고

3)…위니콧이 본 사무엘의 수퍼에고

위니콧에게 있어서 엄마가 안아주는 환경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엄마는 아이에게 대상제공을 통해 삶에 대한 느낌을 제공해주고 아이에게 엄마는 곧 세계이다. 유아에게 필요한 것은 돌봄과 관심이다.

부모와의 관계는 초기 하나님 표상의 기초를 제공한다. 부모의 특성과

¹⁸⁹ Jay R. Greenberg and Stephen R. Mitchell, op. cit. pp. 202-203.

하나님 표상의 특성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며, 정 반대일 수도 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는 경험을 통해 아이의 상상력 속에서 환상과 섞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종교경험의 모델이 된다. 문화적 전통과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고유한 경험, 기타 가족 상황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 또한 하나님 표상 형성에 영향을 준다.

위니콧은 충분히 좋은 모성 돌봄에 아버지를 포함한다. 아이를 돌봄에 있어서 남성으로서의 아버지는 중요한 요소가 되며,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결합의 기초가 되는 가정 또한 중요한 요소이다. 이 가정은 부부가 함께 새로운 인간 존재인 아기에 대해 책임을 진다. 아기를 누가, 어떻게 돌보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실제 어머니인지 아니면 다른 누구인지, 축진적 환경의 지속적 제공은 아이에게 삶의 연속성을 지니게 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불운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4...

하나님의 관계 경험과 수피 에고 이 부분도 하나님의 관계 경험으로 인하여 수피 에고가 강해진 예를 성서에서 찾는 것도 필요하다.

******** 하나님과의 관계경험은 있지만 사랑 받지 못하고 자란 사무엘, 아브라함도 하나님 관계 경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게 되었지만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동생이라고 말한 것은 에고가 강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

(2) 사무엘이 두 자녀 요엘과 아비아에게 미친 영향

사무엘은 어린 시절 대부분을 엘리 제사장의 집에서 첫 딸 무렵부터 생활하였다.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 가족의 일원이 되어 형님별 되는 엘리의 자녀들과 같이 생활하며 성전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들이 행한 악한 일들을 보며 자랐을 것이다. 그 속에서 그가 보고 배운 것들이 좋은 점들로 받아들이기 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한 사무엘이 용납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무엘의 자녀들 또한 엘리의 자녀들과 같이 악한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은 사무엘에게도 엘리와 마찬가지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등한히 한 점들이 있다는 것이다.

사무엘은 우선 그는 어릴 적부터 성소 봉사를 통해 거룩한 것들을 접하며 겸손과 섬김의 도를 배웠다(삼상 2:11,18). 또한 그는 성장할수록 하나님과 사람들로 부터 보다 더 큰 은총을 입었다(삼상 2:26). 이는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 사무엘을 부패한 바깥 세상과 구별시켜 거룩한 영혼의 소유자로 훈련시키고 계심을 의미한다.¹⁹⁰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소명을 받기 전에는 ” 여호와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었다” (삼상 3:1). 그러나 사무엘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후에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와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삼상 3:21).

요엘(Joel)과 아비아(Abiah)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장남과 차남으로 요엘(Joel)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아비아(Abiah)는 ‘여호와는 아버지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다. 아버지 사무엘이 늙자 대를 이어 사사가 되었다. 두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의 믿음과 영감이 깊이 반영된

¹⁹⁰ 강병도 편, 「사무엘상하」, 호크마주석, (서울: 기독지혜사, 1990), pp. 70-71.

신앙적인 이름이다.

사무엘상 8:1-3절을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된 것에 대한 기사가 나온다. 사무엘이 늙자 요엘과 아비야는 함께 브엘세바에서 사무엘에 의해 사사로 임명된다. 그러나 두 형제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그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삼상 8:3). 그들은 저희 아버지의 순결한 생애를 본받지 않았다. 사무엘은 아들들이 사악하고 불의한 모습을 보고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였다.¹⁹¹

이 위대한 사람의 인생에서 일어난 슬픈 일 가운데 하나는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아무런 기쁨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지도자들의 죄가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사무엘의 두 아들의 범죄는 엘리 가정에서와 같은 비극적인 모습이 비쳐지고 있다(삼상 2:12).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하니라” (삼상 8:3). 이(利)를 추구(출 18:21), 뇌물 수수(출 23:8; 사 1:23; 5:23; 암 5:12), 판결의 왜곡(출 23:2,6,8; 신 16:19; 24:17; 사 5:23)등은 특별히 성경이 지도자된 사람들에게 절대로 금지시킨 조항들이다. 따라서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 같은 행위들은 그들이 사사의 본분을 망각한 대단히 타락한 지도자들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¹⁹²

사무엘의 눈앞에서 그렇게 생생하게 전개되었던 엘리와 그의 아들과 같은 비극이, 조금 덜한 정도이기는 하지만 사무엘에게도 반복되었다.

¹⁹¹ 삼상 8:5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¹⁹² 강병도 편, 「사무엘상하」, 호크마주석, (서울: 기독교출판사, 1990), pp. 158-159.

사무엘은 이러한 경험으로 고통을 겪은 마지막 아버지는 아니었다. 성경에는 아들들의 비행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자식들의 행동에 대해서가 아니라도, 최소한 그들이 계속해서 그 직책을 수행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사무엘은 가장 권위 있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죄책을 모면할 수가 없다.¹⁹³

(가) 부모 상실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대상관계를 형성하는데 부모와의 상호작용 즉 부모의 양육태도가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 따라서 부모의 상실이나 부재는 건강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프로이트가 아동기 때의 부모로부터의 이별이 성인기에서의 우울증의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 이래 조기 부모 상실과 성인기의 정신 병리와의 연관성을 알아보려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권재호 외 2인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로부터의 조기 이별이나 이러한 위협이 성장한 이후에 이별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부모의 상실은 우울증 발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8세 이전의 부모상실이 우울증을 유발하며 6세에서 18세 사이의 모친의 상실은 우울증을 더 많이 발생하게 하는 요인으로 보인다.¹⁹⁴고 한다.

Bowlby는 유아가 어머니와 같은 주양육자와 분리된 후 보이는 반응을

¹⁹³ 오스왈드 샌더스, 「당신도 성경인물과 같이 될 수 있다」, (서울: 도서출판 나침반), p. 35.

¹⁹⁴ 권재호, 이길홍, 박두병, “주요우울증,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환자들에서의 부모상실에 관한 비교연구”, 신경정신의학 제 33 권 제 6 호, (서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4), pp, 1209- 1218. 참조

저항, 분리, 절망의 세 단계로 설명을 하였으며 이는 유아가 나타낼 수 있는 우울의 보편적 현상으로 설명하였다. 분리된 후 적절히 재회가 이뤄지거나 조처가 취해질 경우에는 유아의 절망이 회복되지만 만성적인 분리, 망임상태에서는 유아기의 우울증이 보여질 수 있다.¹⁹⁵

생애 초기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모에게 많이 의존하며 부모와의 관계에서 많은 것을 배워나가지만 차차 성장함에 따라 역량과 독립심이 발달하게 되고 보다 유동적이며 넓은 범위의 환경과 상호작용함에 따라 또래가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된다. 아동의 부적응에는 항상 상대적 의존기에 아동의 중요한 욕구에 적절히 응해 주지 못한 부모 특히 어머니라는 환경의 실패가 있고, Cantor는 이혼으로 인한 가정 해체로 유아기에 부모를 상실한 경우 일반 아동에 비해 두 배나 많은 정신과적 치료 경험이 있음을 보고 하였고, (중략) 부모 상실 외에도 아버지나 어머니의 한 사람의 부재도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아버지의 역할의 상실과 아버지로부터의 적절한 양육과 훈육의 결핍은 자녀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과 성격 형성의 왜곡 및 장애와 관계가 있다고 한다. (중략) 어머니의 부재 역시 인성의 결핍, 정신 병리 및 왜곡된 대인관계를 초래한다. 그리고 유아의 발달 과정에서 어머니로부터 받아야 할 적절한 심리적 양육과 지도의 결핍은 유아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과 성격 형성에 왜곡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또한 어머니의 상실은 언어, 행동, 정서 표현에서 지연 현상이 일어나며, 감정 통제력의 결핍, 대인 관계 문제, 비사회성, 미성숙

¹⁹⁵ 공보금, “소아, 청소년기의 우울증”, 인제의학 제 24 권, 제 2 호, (인제대학교의과대학, 2003), p. 30.

및 비행행동 그리고 퇴행현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¹⁹⁶

문제아동에 대한 조사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하고 있는 사실은 문제의 원인이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에게 있다는 점이다. ‘아버지 상실’ 현상은 남자 아이들에게 정서적 열등감과 무기력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여자 아이들에게는 올바른 이성관계의 기초를 갖추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아버지의 존재가 미미한 가정에서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드러워야 할 어머니가 오히려 강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한 환경에서 자라난 청소년들에게는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한다.

197

아동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 인격형성을 함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어린아이의 정신은 부모 정신의 반영물이라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처음 부모와 만나 관계 경험을 통해 한 인간이 되어가는 필요한 능력을 키우게 된다. 관계경험을 통해 바른 인격을 만들어 가지 못한다면, 자기와의 올바른 경험도 만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가 성장이 저지되거나 감정이 억제 되었을 때, 특히 화가 나거나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아이가 그대로 가진 채 자라서 성인이 된다면 화가 나고 상처받은 그 아이는 어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그의 내면에 어린 시절의 상처가 자리 잡게 된다.¹⁹⁸

¹⁹⁶ 유근준, “대상관계 변화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2008, pp. 12-13.

¹⁹⁷ 이석철, “아버지로서의 목사”, 두란노목회자료 큰백과, 제 20 권, (서울: 두란노서원, 1997년), p. 388.

¹⁹⁸ 브래드 쇼우 저, 「상처받은 내면아이 치유」, 오제은 역 (서울: 학지사, 2004), p. 31.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상호 작용의 패턴이 경직되고 문제해결 능력이 약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자기중심적 사고 방식을 갖고 있어 더욱 심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부모의 반응, 행동이 아이 스스로를 만들어간다. 아이는 부모 중 한 쪽을 정형화하여 행동을 모방한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상황 또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 학교, 또래 집단 모두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아이의 인격이 형성되어가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부모이다. 특히 부모가 죽거나, 함께 살지 못하고 헤어져 산다면, 어린 시절의 힘들고 고통스러운 충격은 평생을 지나도록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이며 어머니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젖을 땀 후부터 성전에서 성장하였다. 젖을 땀 후부터 부모의 품을 떠나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해야 했던 어린 사무엘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 있었을 것이다. 부모 대신 늙은 엘리 제사장이 보호자가 되어 어릴 때부터 늙은 할아버지 손에 크게 된 사무엘은 어쩌면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나실인 임을 알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모가 없다는 상실감으로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이다. 또한 늙은 엘리의 죽음은 할아버지 혹은 아버지와 같은 ‘일차 대상’을 상실한 큰 슬픔을 가져다 준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이다.(김윤경 2007. 84-86)

사람들은 어른이 된 후에 부모의 곁을 떠났다고 믿고 있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부모를 그들의 내면에 억압시켜 버렸다. 따라서 그들의 삶 전체는 아직 청산되지 않는 부모의 투사(Pro-Jection)에 묶여 있게 된다. 그들이 용감하게 부모로부터 뛰쳐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부모로부터 도피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부모로부터의 분리란 ‘문자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상징적인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인 분리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심리적인 분리한 부모들과의 깊이 화해한 다음에만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부모들과의 단순하게 헤어짐으로써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부모와의 분리를 흔히 말하기를 어머니로부터의 분리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린이의 세계’를 떠나는 것이며, 어린이의 세계는 또한 어머니의 품으로 상징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른이 되려면, 우리의 내면이 유아성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반드시 심리적인 탯줄을 끊어버리고 분리되어야 한다.¹⁹⁹

인간이 처음 태어났을 때에는 인격이 형성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연약하여 어른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영향을 준다. 발달 심리학자들은 갓 태어나서 1세가 되는 동안 겪는 일들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격발달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 시기에 엄마와의 사이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경험은 인격에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나중에 대인관계를 하는데에 일관된 어떤 특성을 만든다, 만약 그 시기에 엄마하고 관계가 좋아서 항상 안정감이 있고 포근하고 따뜻하게 필요를 충족 받으면서 성장했다면, 인간관계의 경험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성장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과 대화하려고 하고 같이 협동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쉽게 구축하게 된다.²⁰⁰

성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배후에 숨겨져 있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신 상태는 성장하면서 극복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되며, 계속해서

¹⁹⁹ De Winkel, Erna Van 공 저, 「융심리학과 기독교 영성」, 김성민 역 (서울: 다산글방, 1996), pp. 108-109.

²⁰⁰ 이만홍. 황지연 공저, 「역동심리치료와 영적 탐구」, (서울: 학지사, 2007), pp. 93-94.

되짚어 보아야 한다. 이 작업은 우리의 삶에 회복과 창조를 만들어 내는 중요한 작업이다. 이런 계속되는 작업이 없다면 우리의 실존을 제한하며, 피폐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나) 분리 불안을 경험한 사무엘과 두 자녀와의 관계

분리불안에 대한 여러 가지 진단 기준에서 보는 항목 중 공통된 특징은 집이나 주요 애착 대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한 과도한 불안이라는 것이다. 분리불안은 아동이 주변의 자극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타고난 능력이 안전기지 역할을 성공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양육환경에 대한 반응이다. 아이들이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떼쓰는 모습이나, 처음으로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에서 오는 불안 등은 대부분의 아동들이 정상적인 발달과정으로 차차 나아지는 일시적인 분리불안의 현상이다.²⁰¹

분리불안의 원인은 부모, 가정, 기타 친숙한 환경인 양육자의 품에서 벗어나 낯선 사람들과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이다.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잘못된 애착 때문에 생긴 문제이다. 불비는 정서발달적인 측면에서 어머니를 알아보는 5-6 개월 경에 돌보아주는 사람에 대한 각인이 일어나는데, 이 때 돌보아주는 사람이 자주 바뀐다든지 돌보아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아기의 신호에 적절히 반응해 주지 못한다면 애착형성에 실패하게 되고 대인관계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²⁰¹ 조혜진, “분리불안장애 아동과의 놀이치료에서 부모상담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07), pp. 7-8.

애착의 질은 일생 중 가장 상처 입기 쉽고 의존적인 생후 1 년 동안 어느 정도 따뜻하고 민감한 보살핌을 경험했느냐야 따라 달라진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이다. 한나는 기도하여 얻은 아들을 젖을 뎀 후 성전에 바쳤으며 성전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젖을 뎀 후 부모의 품을 떠나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하며 자신의 뜻과는 다른 종교적인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다.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는 은총을 받았지만 부모로부터는 지속적인 양육을 받지 못하였다.

세 살경 부모로부터 떨어져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은 사무엘 자신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이다. 엄마와 떨어진다는 분리 불안은 그의 삶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안정된 애착관계는 신뢰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안정된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다. 사랑 받고 있다는 느낌은 정신과 육체의 성장을 돕는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자아감을 갖고 정서적으로 좋은 성격으로 이어진다. 두려움을 극복할 힘이 생기며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해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타인을 인정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엄마박탈(Maternal Deprivation)²⁰²은 아동이 엄마와 안전애착을 형성하지 못했거나 안전하게 애착된 엄마를 잃은 상태이다. 양육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기, 거절, 학대, 비일관성은 아동에게 불안정한 애착을 심어주어 불안, 분노, 우울증과 같은 정서장애와 심하게 되면 성격발달에 영속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²⁰² 엄마박탈(Maternal Deprivation)은 아동이 엄마와 안전 애착을 형성하지 못하였거나 안전하게 애착된 엄마를 잃은 상태를 가리킨다. 박탈은 지각적, 사회적, 생리적, 정서적 박탈이 발생한 다양한 상황이나 다양한 유형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용어이다. Mario Marrone, 「애착이론과 심리치료」, 이민희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7), p. 17.

위니콧은 “박탈을 경험한 아동은 병을 앓고 있는 아동이며, 새로운 환경의 제공이 이 아동을 건강하게 회복시키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는 문제는 결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단순하게 환경의 변화를 제공받음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병이 낫기 시작할 것이며, 그러면서 아동은 과거에 생긴 박탈 경험에 대하여 점차 분노할 수 있게 될 것이다.”²⁰³

위의 위니콧의 설명에 의하면, 사무엘은 부모 대신 늙은 엘리 제사장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 늙은 엘리 제사장의 손에 크게 된 사무엘은 부모가 없다는 상실감이 그로 하여금 어린시절이 우울하였을 것이다.

이관직은 “분리불안을 경험했던 사무엘”에서 엘리제사장 가정에서 받은 영향이 사무엘이 낳은 자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어떤 한 사람을 이해할 때 여러 가지의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그 삶의 여정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사건들이 그 사람에게 미친 영향들을 통하여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사무엘의 삶을 살펴본다면 첫째, 사건은 독특한 출생방법과 환경, 둘째는 젖뵤 후에 어머니와 헤어진 것이다. 다음에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것이고 그 다음 사건은 자신을 키워준 엘리 제사장의 죽음과 그의 두 아들들의 죽음,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경험이다. 미스바의 회개사건, 두 아들들의 부정부패, 백성들이 왕을 구한 사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 사울의 타락,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을 중요한 삶의 사건들로 지적할 수 있다. 이 사건들이 사무엘에게 끼쳤던 영향들을 다 언급하지는 않고 주목할 만한 부분들만 보아도 이렇게 어느 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현대적인 가족이해의 관점에서 볼

²⁰³ D. W. Winnicott, 「박탈과 비행」, 이재훈 외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1), p. 146.

때 사무엘은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났을 때에는 이미 배다른 형제 자매들이 여럿이 있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고 아마도 아버지 엘가나는 후처로서 브닌나를 연상케 할 만큼 브닌나를 얻은 것 같다. 마치 아브라함의 가정의 하같이 사라를 무시하던 모습을 연상케 할 만큼 브닌나는 한나를 격동케 하며 언어적 폭력을 사용하였다. 그러한 알력 속에서 어린 사무엘은 태어난다. 그러다가 젓벨 무렵 들어간 성소도 엘리라는 가정의 역기능이 있는 곳이었다. 이것이 사무엘을 분리불안을 겪게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²⁰⁴

사무엘은 한나의 서원으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헤어져 특별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종이였다. 엘리 제사장의 밑에서 자라났지만 그는 부모에게서 절절하고 건강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다. 오히려 역기능적인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영향을 알게 모르게 받고 자랐다. 아버지로부터 양육 받은 경험이 없었던 사무엘은 막상 그 자신이 결혼하여 아버지가 되었을 때 두 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몰랐으며, 그의 고향 라마를 본거지로 전국을 순회하며 사사,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라 전체를 돌보기 위해 전력하다 보니 막상 가장 가까운 자신의 가정에는 소홀하게 되고 결국에는 요엘과 아비야의 비행을 가져오게 되었다.²⁰⁵

진실된 제사장의 가문에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바르지 못한 자녀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사무엘은 두 아들을 바로 잡지 못했는가?

²⁰⁴ 이관직, 「성서인물과 심리분석」,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5), pp. 137-138.

²⁰⁵ 이관직, “가정목회에 실패한 성경 속의 지도자들”, 목회와 신학 5월호, (서울: 두란노서원, 1999), pp. 66-67.

사무엘 자신이 유년 시절의 양육 경험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소홀히 했을 것이다. 아버지의 교육부재, 자녀를 가르치는 일은 아내(어머니)의 몫으로 여기는 가정과 문화에서 자랐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낳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기 위해 품안에 있을 쫓겨 뿔 무렵의 시기에 온갖 정성을 다하여 길렀다. 어쩌면 아버지 엘가나의 손이 닿지 않아도 될 경우에 까지 이르렀을 것이다. 또한 엘리의 삶은 사무엘에게 표본이 되었을 것이다. 사무엘은 공적으로 바쁘다는 이유²⁰⁶로 그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을 그의 아내에게 일임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이다.²⁰⁷

또한 두 번의 큰 상실을 경험한 사무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가 자기의 곁을 떠났다는 분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²⁰⁶ 사무엘은 사사가 된 뒤에 라마를 본거지로 전국을 순회하며 사사,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느라 아내와 자녀들과 시간을 공유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나라 전체를 돌보기 위해 가장 가까운 자신의 가정에는 소홀하게 되고 결국에는 요엘과 아비야의 비행을 가져오게 했다고 볼 수 있다.

²⁰⁷ 아버지의 상실은 장·단기적으로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거나, 아버지가 있어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됨으로써 아버지로부터 받아야 할 적절한 양육과 훈육의 결핍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부성상실은 감정 통제력의 결핍, 공격적 행동의 무분별한 표현, 죄의식 결여, 초자아 미발달, 인내심 또는 불쾌 자극에 대한 참을성 부족, 대인관계의 공포증, 그리고 자폐증 현상을 나타낸다. Glasor, Eisenberg(1956)와 Yallow(1964)는 비록 어머니의 상실 원인적 상황이 동일할지라도, 영향의 정도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어머니-유아관계의 결정적 시기인 생후 6개월부터 5세 사이에 모성 분리가 되었을 경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어머니의 상실의 시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적절한 모성대행인물이 제시됨으로써 모성분리에서 오는 지적, 성격적인 손상을 상쇄할 수 있다는 면에서의 대리모성의 중요하다. 그리고 지적 발달을 위한 학습조건이나 사회화를 위한 대인관계의 구조적 변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자아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모성분리자체가 외상적 경험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의 회상적 경험 등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권창현, “부모부재 청소년의 성격장애-대상관계 및 애착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2004), p. 29.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그 불안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으나 본인의 감정이 진정한 사랑으로 자녀들에게는 전달되지 못하였다. 볼비의 내부작동모델로 비추어 볼 때 무의식 중에 분리된 불안과 사랑받지 못했던 혼란스러운 감정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었던 것 같다.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의 행위대로 따르지 못하고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족한 인물이 되고 만 것이다.²⁰⁸

(다)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스도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들 사이의 일차적인 관계이다. 그 어떤 교사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영적인 기초를 제공하여 주는 일을 능가할 수 없다. 어떤 교사도 부모에 의하여 이미 형성된 잘못을 쉽사리 고칠 수 없다. 어떤 교사도 부모처럼 아이들로부터 전적인 신뢰감을 얻을 수 없다. 가장 어릴 때의 교사가 가장 오랫동안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그들의 행동과 태도는 어린이들이 이해력을 형성해 나가는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때에 어린이들의 자아는 그들의 전 생애의 인격형성에 끊임없이 영향을 끼칠 기본적인 인상을 받는다. 이 개념은 때로는 프로이드의 이론으로 돌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프로이드 이전에 이미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교의 지혜가운데서 널리 적용되어

²⁰⁸ 장수덕, "우울증에 대한 대상관계적 목회적 돌봄의 가능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08, p. 46.

왔다.²⁰⁹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다른 어느 것으로도 대체되거나 바뀌어서는 안된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린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이창호는 그의 논문 “부모의 양육태도가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이상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알 수 있는 것은 대상관계이론에서 말한 바대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하나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자녀의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그 마음에 형성되는 하나님 이미지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의 질은 그 마음에 형성된 하나님의 이미지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충분히 좋은 엄마(Good Enough Mother)로서의 하나님 이미지가 자녀의 마음에 형성된다면 그 자녀는 안정된 마음에 질 높은 풍요로운 생애를 살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충분히 좋은 엄마로서 양육을 하여야 할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대상관계를 형성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자녀가 평생 동안에 좋은 하나님 이미지로서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평안을 누리며 행복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²¹⁰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아가 충분한 애정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거나 혹은 처벌을 받으면서 성장한다면, 유아의 내면에 형성되는 표상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성격을 띤다. 즉, 자신과 대상에 대한 표상이 주로 부정적인 지각과 정서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는 자신과

²⁰⁹ Thomas C. Oden, 「목회신학」, 이기춘 역,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p. 219.

²¹⁰ 이창호, “부모의 양육태도가 하나님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2009), pp. 86-87.

타인에 대한 경험 중부정적인 측면만을 지각하게 된다. 그 결과 낮은 자존감과 취약한 자아구조를 갖게 되고, 타인에 대해서도 왜곡된 지각과 부정적인 정서를 형성하게 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²¹¹

블랑차드와 빌러(Robert Blanchard, Henry B. Biller)의 연구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녀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아이의 학업 성취를 도와 아이의 동기 발달에 도움을 주고, 호프만(Hoffman)은 자신의 아버지를 강하게 동일시한 소년들이 아버지와의 유사성을 덜 느낀 아이보다 내적인 도덕발달이나 도덕적인 가치와 규칙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 말은 아버지와 유사성을 느끼고 있고 아버지를 동일시하는 자녀가 그렇지 않은 자녀보다 도덕 발달이 낫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를 더 좋아하게 되고 스스로 양육능력의 가치를 배우게 된다고 한다. 라딘(Radin)은 아버지와의 강한 유대관계는 아이의 지적인 능력과 사회적 능력을 더 발달하도록 돕는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친밀성은 아이의 자아존중감과 신뢰감을 길러주는데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아버지는 아이의 지적, 사회적, 도덕적, 신체적 발달과 정서발달 등 모든 발달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²¹²

사무엘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겼다. 그러나 그가 자녀들을 키운 모습을 보면 엘리 제사장과 같은 모습이 보인다. 엘리

211 김진숙, “대상관계 가족치료 이론의 한국적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제 8-2 호, 2000), pp. 53-54.

212 성영혜 외, 「아버지도 부모인가?」, (서울: 샘터, 1995), pp. 13-14.

제사장과 두 아들의 죄는 자신들의 생명을 잃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엘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엘리 제사장이 홉니와 비느하스의 죄에 대하여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침묵했던 것처럼, 사무엘은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아버지가 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하여 범죄한 두 아들²¹³을 바로잡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계속해서 왕으로 삼는 대신에 왕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엘리의 아들과 사무엘의 아들 비교²¹⁴

	직분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홉니 비느하스	제사장	* 성물을 가로챈 * 회막에서 간음함 * 하나님을 알지 못함	*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음
요엘과 아비아	사사	*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함	* 아버지 사무엘이 사역으로 바빴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이 부족하였음

엘리와 사무엘의 삶의 방식이 아들들에게 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엘리가 삶이 다했을 즈음, 사무엘에게도 경건한 자손이 없었다. 사역을 하면서 가족을 아주 소홀히 여겼다는 증거이다.

²¹³ 사무엘은 아들을 낳고 요엘 즉 ‘여호와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둘째 아들 아비아는 ‘여호와와 거룩한 아버지’라 이름 지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사로 임명 받았고, 제사장으로 임명 받은 것은 아니다.

²¹⁴ 민경립, “목회자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관계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설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09), p. 23.

성경에 나타난 목회자 부모²¹⁵

	하나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자녀교육의 결과
엘리	* 자녀를 더 중시함	* 절제 없는 사랑 * 훈계가 결여됨	* 두 아들이 성물을 가로챈 * 회막에서 간음함
사무엘	* 끝까지 좋음	* 많은 사역으로 돌보지 못함	*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함

목회에서는 크게 성공했는데 가정생활에서 실패한 목회자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목회자 자신이 목회에 열중하고 있는 동안 자녀들은 무슨 부모를 향하여 목회에 쏟는 열정의 조금이라도 자신들을 위해 사용해주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이 교회 생활가운데 나타나는 반항이든, 사회적 문제들이든 표출하게 된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의 실패함을 보고 자랐고, 특히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향한 '저주의 메시지'까지 전달했으면서도 그가 자식을 바로 키우지 못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받은 것을 보면 엘리보다 자녀 교육에 실패한 선지자이다.

흔히 목회자의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생각으로 부모로써, 혹은 가장으로써 할 일은 무시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들이 있다. **아무리 하나님 사역에 열심하였더라도 자녀교육은 그 부모에게 달려있다. 부모**

²¹⁵ Ibid. p. 20.

역할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부모 역할은 부모만 할 수 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부모역할이다. 부부가 함께 살고, 함께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 하나님 사역도 충실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키우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가정이 불안하면 목회자의 마음도 불안정하여 여러가지 유혹과 시험의 덫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목회자의 가정은 목회자 자신이 지켜야 한다. 그 누구도 목사 자신을 대신해서 가장이 될 수 없고, 남편이 될수도 없으며, 아빠가 될수도 없다. ²¹⁶

(3) 사무엘의 내면화 그리고 대상관계, 하나님 경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태중에서부터 시작되어 영원토록 지속되는 관계로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는 최초로 관계를 맺는 대상이기 때문에 부모가 제공하는 환경은 자녀에게 있어서 지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발달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문희경은 “대상관계이론의 관계중심 목회상담적 적용 가능성 연구”에서

²¹⁶ 권유순은 건강한 목회자 가정의 자녀양육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1) 부모가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할 수 있는대로 자녀들과 가까이 지내야 한다.
- 2)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간에 대화가 없을 때 서로 이해할 수 없고 자녀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친구처럼, 나가서도 자주 전화를 하며 항상 우리부모는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믿게 한다.
- 3) 가정예배이다. 정한 시간엔 꼭 가족이 모여 10~15 분 정도의 시간으로 간단하나마 계속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 예배하는 때가 신앙성장과 가족화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 4) 가족 오락이다. 가정에 즐거운 오락(recreation)이 없으면 가정에 대한 싫증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가정도 주간 중 하루는 '가정의 날'로 정해서 자녀와 함께 집 안에서 즐거운 시간을 갖든지 아니면 나가서 운동을 하거나 즐거운 소풍을 하는게 좋다.
- 5) 가족 관광교육을 하는 것이다. 지금은 관광시대이다. 아이들이 집과 학교 그리고 교회에서만 매어살기 때문에 사회의식이 약하다. 그러므로 밖에 나가 등산이나 캠핑, 관광을 하면 공중도덕과 공중위생 같은 국민의식이나 시민생활을 익히게 된다. 권유순, “가정목회와 자녀양육”, 목회와 신학, 1993년 6월호.

“대상관계는 정서적 에너지가 부여되는 그 어떤 것과의 관계 경험이 내재화된 내용을 의미한다. 이때 내재화되는 것은 주로 어머니인 대상의 이미지(또는 표상)와 어머니에게 돌봄을 받는 유아의 자기 이미지(또는 표상)의 관계이다. 개인의 초기경험은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의 원자료를 제공한다. 주요 타자들과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에서 유아는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불만족스럽고 부정적인 경험도 갖게 된다. 이런 경험으로부터 자신과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표상은 긍정적인 대로, 부정적인 표상은 부정적인 대로 조직되어, 자신과 대상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표상으로 유아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유아가 적절한 관심과 애정을 경험하면 표상의 긍정적 측면들과 부정적인 측면들은 긍정적인 측면이 우세한 가운데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형성된다.”²¹⁷고 주장한다.

리주토(Rizzuto)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부모의 이미지로부터 형성된다고 제안한다. 초기 어린 시절에 중요한 부모의 기능은 아이를 훈육(Discipline)하는 것이지만, 이와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 또 다른 기능은 양육(Nurturing)하는 것이다.²¹⁸

부모를 향한 양가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양가 감정에 반영된다.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해 주고 사랑한다면, 아이는 사랑이 많고 친절한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한다. 반대로 어머니가 아이에게 벌을 주거나 무섭게 대한다면, 아이는 두려움과 회피의 이미지를 어머니에게 부착시키며, 또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자아내는 이미지들을 하나님 표상에 부착시킬 것이다.

217 문 회 경, “대상관계이론의 관계중심 목회상담적 적용 가능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대학원, 2006), p. 19.

218 제임스 존스, 「현대 정신분석학과 종교」, pp. 127-128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경험한 기본적인 신뢰는 후에 사랑이 많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기초로서 사용된다. 긍정적인 어머니 이미지들이 우세하다면, 긍정적인 종교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²¹⁹

리주토(Rizzuto)는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신의 이미지를 창조하는데 이르기까지 개인이 겪는 경험을 조사했다. 초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의 반영이 어떻게 하나님 표상으로 연결되는지를 자세히 살폈고, 살아가는 동안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수정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하였다. 리주토(Rizzuto)는 유아기 초기에 부모와의 대상관계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즉 각 개인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은 오이디푸스 시기 이전과 오이디푸스 시기 동안에 경험하는 감정들, 관계들, 정신적 상황들, 부모의 성격들, 아이가 관계 맺는 부모와 형제들과 갖는 관계 등 온갖 종류의 요소들로 이루어진 복합적 이미지이다. 개인의 이런 표상들은 개념적인 것이 아니며 경험으로부터 유래한 것이어서, 어린 시절의 상들, 감정들, 기억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표상으로서의 하나님은 의식적인 수준의 하나님과는 달리 우리 정서를 강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 신표상이 일단 형성되면 여기에 개인의 모든 심리적 잠재력이 집중되며 그 신표상은 결코 소멸되지 않으며 그의 삶과 자기 정체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리주토는 신표상의 형성을 살아있는 신의 탄생이라고 표현하였다.²²⁰

개인이 관계를 통해 형성하고 갖고 있는 신 이미지는 사회적 그리고

219 Michael St. Clair, 「인간의 관계경험과 하나님 경험」,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p. 59.

220 Ana Maria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이재훈 외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p.62 .

문화적 중요성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심리적 발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이 위기에 직면했을 때 위안을 줄 수 있고 인생의 의미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에 굴복하지 않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며 능력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신 이미지가 개인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억압할 수 있다. 개인이 잔혹하고 억압적인 신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스스로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의식하고 추구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²²¹

하나님 표상이란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갖게 된 마음속에 경험되고 존재하는 하나님 이미지를 말하는 것이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이 아닌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역동적 에너지로서 심리내적인 표상으로, 개인이 기독교의 하나님 표상과 통합될 때 건강한 하나님 표상을 소유하게 되고, 그 개인은 자기 표상과 대상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나님 표상은 일단 형성되면 살아있는 인간의 심리적인 잠재력이 된다. 우리 삶의 현실에 개입되는 소위 하나님에 관한 경험들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 달려 있으며 그 해석은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관계가 조화로운 것인지 갈등적인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²²²

하나님 표상은 상상 속에서 가족 구성원의 실제적 특징들과 혼합되면서 형성된다. 평생토록 심리적 안정감과 평안을 유지시키다. 타자와의 관계

²²¹ 반신환, “신형상에 대한 리주토의 대상관계론적 이해와 그 비판”, 「종교연구」 3호, 1997, p. 213.

²²² Ana Maria Rizzuto, 「살아있는 신의 탄생」, 이재훈 외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0), p. 172.

그리고 특히 하나님 상의 형상과 자존감 및 희망을 갖는데 기여한 사람들과 관계 맺는데 사용되고 하나님 표상은 한번 만들어지면 전 생애를 통해서 중간대상으로 남아 있으면서 자기 자신, 다른 사람들 그리고 삶 자체와의 관계에서 유용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중간대상으로서의 하나님 표상은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하나님 표상이 지적 그리고 정서적 성장에 맞추어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개인의 사회적 적응능력을 저하시키거나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개인은 성장하면서 자신의 신 형상을 억압하거나 변화시킨다. 하나님 표상은 개인이 최소한의 위안과 의미를 얻어서 심리적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개인이 유아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표상은 불안과 고통에서 그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하나님 표상을 포함한 모든 대상 표상과 자아표상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인간에게 상징과 환상 그리고 초인간적 존재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남아있는 한 신은 최소한 무의식 안에라도 남아 있을 것이다.²²³

리주토(Rizzuto)는 신은 중간대상이 강력하고 실감나는 환상적 삶을 부여 받는 심리적 공간 안에서 아이가 창조한 하나의 특별한 대상 표상의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따르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중간대상이다. 일반적으로 중간대상은 의미를 잃는다. 왜냐하면 중간현상이 전제 문화 영역으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신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대신 그의 표상적 특성을 재정교화 하는데 공헌한다. 중간대상 표상으로서의 신은 항상 더 큰 인정이나 더 큰 거절을 위해 잠재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요약하면, 전 생애를 통해 신은 중간대상으로 남아 있으면서 자기 자신,

²²³ Ibid, pp. 101-105

다른 사람들 그리고 삶 자체와의 관계에서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것은 신이 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치 곰 인형처럼 아이가 인생에서 발견한 일차 대상으로부터 신적 요소의 절반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신적 속성의 나머지 절반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창조한 아이의 능력으로부터 온 것이다. 신-개인화된 표상적 중간대상-을 창조하고 발견하는 심리적인 과정은 어떤 특정시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 생애 동안 계속되는 발달 과정이다. 우리의 신은 한번 만들어지면, 잠재적이든 활동적이든 계속되는 정신의 통합과정을 위해 잠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표상으로 남아있게 된다. 중간대상 표상으로서의 신은 마술을 넘어선 존재이기 때문에 종교의 신으로 사용될 수 있다.²²⁴

위니콧은 중간현상이 신에 대한 인간경험의 본질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은 종교경험 또는 신앙경험의 영역 안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표현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야곱이 압복강가에서 자신의 이전의 모습에서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가능한 일이었다.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경험은 야곱의 내면의 문제를 드러내고 치유하는 치료적 관계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안아주는 환경인 치료적 관계를 통하여 충분한 기간 동안 충분히 좋은 대상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 표상이 자리 잡고 있는 중간영역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기독교적 상담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거울 역할을 함으로써 내담자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고, 중간대상으로서의 하나님 표상이 완전한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됨으로써

²²⁴ Ibid. pp. 328-335.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²²⁵

3. 결론

보이센은 인간을 역사 자료를 판독하려고 읽고, 해석하듯 하나의 문서로 보라고 주장하였다. 개인의 정신적 영적 삶의 여정에서 부딪히는 경험의 깊이가 유대 기독교 신앙전통의 토대를 밝혀주는 역사적 텍스트가 가지는 깊이만큼이나 동일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설교자가 성경본문을 자기 의도에 쫓아 억지로 뜻을 맞추려 해서는 안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문서는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닌 텍스트로 보아야 한다²²⁶고 주장하였다. 한 개인의 내적 세계는 삶을 이루는 여러 사건과 그 관계들은 복잡하다. 그럼에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되고 존중 받아야 한다.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영적인 것과 심리학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특히 한국교회 상황이 교회 안에서 심리학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그러하다. 극단적으로 영적인 것만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은 사람을 이해하는데 성경, 하나님은 필요없고 심리학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²²⁵ 노성욱, “대상관계이론을 통해 본 유아의 하나님 표상형성에 관한 고찰”,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2004), p. 49.

²²⁶ Charles V. Gerkin, 살아있는 인간문서, 안석모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pp. 46-47. 김정선은 목회상담가는 두 개의 언어, 즉 심리학의 언어와 신학의 언어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목회상담의 사례분석에는 심리학적 차원과 신학적 차원이 공존하며, 목회상담에서 양자는 서로 보완적이라고 주장한다. 김정선, 「외상, 심리치료 그리고 목회신학」,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6), p. 71.

반면에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근본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문제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다룸으로써 해결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다. 우리의 교재는 성경 하나면 충분하여 사회과학은 필요 없다고 주장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정신적 문제의 해답이며, 죄를 회개하는 것이 치유의 열쇠라고 본다. 그러므로 심리학은 교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콜린스(Gary Collins), 클라인벨(Howard Clinebell), 크랩(Larry Crabb), 커완(William Kirwan), 맥레모어(Clinton McLemore), 마이어(Paul Meier), 펙(Scott Peck)과 같은 통합주의자들은 신학과 심리학의 관계를 갈등과 긴장관계가 아닌 보완적이고 협조적이고 조화적인 관계로 본다.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성경의 계시된 진리와 사회과학의 발견된 진리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때 발견된 진리가 계시된 진리의 권위와 척도를 따라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고,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된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인간이 가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며, 어떻게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노력하며 연구해 나아가야 한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의 세계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성령의 통찰력을 구하는 신앙적인 노력과, 또한 인간이 노력하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영역을 신앙적이지 않다고 하여 연구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아 해결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

하루 하루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현 시대에, 삶의 문제들에 대한

일상적인 관심을 심리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종교적 삶과 헌신을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는 것에 맞서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맞는 위기와 문제들을 경험하는 보통 사람의 여정과도 근본적으로 관련을 맺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 뿌리를 둔 역설적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심리-영적(Psycho-spiritual)인 견해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²²⁷

또한 심리학이 신학과 배치되는 면들이 있다 하더라도 의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대상관계이론 등 많은 인문학들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그런 패러다임으로 형성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정신분석적 이해에서 종교는 본능이나 내면화된 대상들이 드러난 것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하나님, 신령한 것, 또는 공간이나 시간의 현상적인 세계를 넘어서는 어떤 실제와의)관계로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에 대한 정신분석학적인 연구는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 경험 그리고 실천이 자신의 경험에 대한 해석과 내면화된 관계의 깊은 구조 속에 있는 역학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연구할 것이다.²²⁸

김진은 과거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중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만 의지했지만 현대 발달된 의료 기술을 통해 조기 진단하면 생존율을 올릴 수 있는 경우 의학적 접근을 했다고 하여 불신앙이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여 왔던 문제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에서 의학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는 태도의 이행은 ‘마치 하나님을

²²⁷ Charles V. Gerkin, 살아있는 인간문서, 안석모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1998), pp. 250-251.

²²⁸ James W. Jones, 「현대정신분석학과 종교」, 유영권 옮김,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pp. 101-102.

버리는 반신앙적 행위’로 느껴질 수 있지만,²²⁹ 의학을 발전시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결국 의학을 통한 치료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치료가 꼭 하나님께부터 꼭 와야 신앙적인 것이고,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것은 반신앙적인 것이 아니다.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기에 둘 다 하나님적인 것이고 신앙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²³⁰

특히 상담적인 입장에서 보면 심리학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기독교적인 입장에 인간의 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는 도구로 심리학을 사용하여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도울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혹자들은 심리학은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기독교 상담에서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리학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학문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인간 내면의 복잡한 문제들을 이 도구를 사용하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식견을 얻는 것도 지혜로운 일이다.

목회상담에서 “심리치료”라는 말은 성서적 전통에 깊은 뿌리를 박고 있다. 신약성서에서 “영혼”이라는 푸시케(psyche)는 “전인적인 실체 또는 통일체로서의 살아있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측면으로부터 분리된 영적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헬라이어 테라피오(Tjerapeuo)로부터 연유된 치료라는 말은 신약성서에서는 “봉사하고 치료한다”(마 10:8; 눅 10:9)는 뜻으로 쓰여졌다. 목회심리치료란 현대 심리치료의 통찰과 방법을 활용해서 성서적 전통의

²²⁹ 김진, 「그리스도인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서울: 뜨인돌, 2002), p. 20.

²³⁰ Ibid. p. 28-29.

치유와 심층적 변화를 회복하려는 한 방법이다.²³¹

김균진은 프로이트의 종교에 대한 비판 가운데 기독교에서 성찰해야 하는 부분으로 “인간의 이해 조건을 무의식의 차원으로 확대, 그의 심리분석을 ‘의미발견의 방법’으로 이해하기 위해” 기독교는 프로이트의 심리분석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의 심리분석은 영적, 정신적 장애와 더불어 무감각해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다 더 잘 이해하며, 자신의 심리적 장애들을 극복하고 자기의 참된 자아를 회복하도록 도와 줄 수 있다. 프로이트의 심리분석은 무의식의 영역이 종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의식 속에 있는 과거의 부정적 경험들로 인해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며, 정신적 신체적 질병에 빠진다. 무의식 속에 있는 갈등들이 치유되지 못하여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는 물론 신앙 생활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²³² 고 하였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인본주의적인 학문을 통해 인간내면의 복잡한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영유아기는 자기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신앙의 기초로서의 하나님 표상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어떤 관계 경험을 심어주느냐에 따라 하나님 표상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령 긍정적인 관계경험을 심어 주면 이후에 삶의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별다른 상처 없이 무난하게 넘기지만, 반대로 부정적 관계경험으로 인해 생긴 심리적 상처는 그 이후에 어떤 문제보다 훨씬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영향을

²³¹ Howard Clinebell, 「목회상담신론」, 박근원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1998), p. 574.

²³² 김균진, “프로이트의 심리분석적 무신론에 대한 신학적 성찰”, 신학논단, Vol. 47, (서울: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2007), p. 95.

미친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생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²³³

특히 하나님을 체험하는 부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주관적인 체험과 객관적인 현실 사이의 공간에 존재하는 중간영역에서의 종교체험은 인간이 자신의 삶에 대한 창의적인 대처와 직면을 가능하게 한다. 이 때의 체험은 주관과 객관의 구분이 없이 종교적 경험을 통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잠재력이 된다. 위니캣의 입장은 부모의 역할 특히 어머니가 제공한 양육을 통하여 전달되는 환경의 질에 의하여 유아가 성장하면서 신앙을 가질 때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반대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는 부모에게서 부정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거나 불안정한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아동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미지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특히 부모와의 구체적인 경험에서 하나님 이미지를 창조한다.

그러므로 유아가 초기에 경험하는 가정환경과 부모와의 관계 경험이 유아의 하나님 표상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럼에도 가정이 파괴되고, 혹은 부모의 무관심으로 부모 자신의 신앙의 성숙뿐 아니라 유아의 신앙교육을 등한히 하여 하나님 표상을 형성해가는데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관계란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다. 인간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경험들이 결국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²³³ 강정화, “대상관계이론과 유아의 신앙발달”, (석사학위논문, 서울: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2006), p. 66.

타인과의 관계 형성함에 있어서 관계의 틀을 결정하고,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여 하나님께 대한 관계경험에서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ABSTRACT

“THE STUDY OF EFFECTS OF MINISTERS’ SUPEREGO
ON THEIR CHILDREN”

Keun Young Lim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Human -relation is an essential element for human beings who can not exist outside relationships. In humans, experiences from relationships with others ultimately form their identities, determine the way they form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greatly influence the relations-experience with God by forming His image.

In such formation of relationships, the most intimate organization is family, i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a minister and his child can be viewed as the most intimate one, expressed as that of a father and a child.

A parenting minister may wish to maintain good relationships with his child, contribute to society, and especially for his child to become a minister following himself, or otherwise, for him to lead an exemplary life of faith and become acknowledged in society, church and especially by God.

The reality, however, is not always so.

A general relationship between a parenting minister and his child According to Minister' s Lady Report (publisher: Rev. Dong Wook Seol), a survey performed in the 11th national minister' s kids seminar sponsored by Korea Regional Evangelization Committee in 2009 revealed that most pastors' kids have had negative experiences in relationship with their fathers. Seven out of every ten pastors' kids did not feel well-connected with services and most believed that they were suffering from financial difficulties. In addition, many PKs were not satisfied in spiritual aspects.

An article called "Sad Death" in a newspaper in 2010 gives an insight to such difficulties that exist in relationships with parenting ministers and PKs.

"If I could go back to the past, I would not sacrifice my kid for ministry. I will take care of him."

"I overlooked my kid' s struggles he faced in high school. I was too busy with my ministry. I did not take good care of my son."

"My son faced a great deal of stress from the fact that his father was a minister. People think that PKs should lead a godly life just like their parents. They believe that PKs should be different. I would like to tell them. Those PKs are just kids of their age. So please respect that."

Today' s reality in which the position of the father is absent not only weakens the position itself but also negatively influences the child, family and the society at large. Especially because pastors are at the position of spiritual leaders, the consequences that stem from the malfunctioning of the father' s position are dire.

It is very unfortunate to see such difficulties and wound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ministers and their kids in a family that that should lead the most blessed life. It cannot always be the case that minister' s families are full of happy events, and it may not be that problematic kids arise less in such families than other families. Then why is it that the same wounds and unfortunate events that exist between the parents and kids happen in ministers' families?

There may be many causes, but the Korean traditional Confucian value that places power on the father may be inherent. And in cases where strict beliefs create problems, one may only see them through the lens of faith and believe that the only thing to do is to pray to God. There are cases in which parents overlook their kids' developmental stages and place psychological burdens and difficulties, or in cases in which the kids decide to be rebellious because they have been neglected by their parents who were too busy with their ministry, they may struggle through their parents' hypocritical way of life.

The reasons behind the struggl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sters and their children tend to be psychological rather than economical or for their health, and tend to lie on their parents rather than on the kids.

There are some cases in which the kids ultimately leave church or to reject God' s calling for their ministry because they have been hurt by their parents.

Behind problematic kids are problematic parents. The problems are not of the parents who are ministers themselves, but that they pass on to their

kids the wounds from and anger at their own parents that they have not resolved.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plore how the developmental hindrances that one experiences affect his and his kids' life and how super-ego affects personal growth and inner world through the lens of Samuel's life by referring to Freud's unconscious and super-ego theory that differentiates the primal human mind into the conscious and the unconscious, to Ericsson's psycho-societal developmental theory that life comprises of continual growth and maturity, and to children's developmental stages from the perspective of object relations theory.

Furthermore,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origin of the problems of not only the ministers themselves but of their kids, to reconcile the relationship between ministers and their kids by way of Jesus Christ's teaching who have come to bring peace to the world, and to maintain the kids' well-being and happy lives.